

2012. 8.

월간 콘텐츠 시장동향



Contents



Section 1

콘텐츠 시장통계

01	출판	12
02	만화	21
03	음악	31
04	공연	44
05	게임	49
06	영화	58
07	애니메이션	65
08	캐릭터	72
09	방송	74
10	광고	83
11	지식정보	86

Section 2

콘텐츠 통계 브리핑

국내 콘텐츠산업 시장집중도	103
콘텐츠산업의 고용구조분석과 시사점	106

콘텐츠 시장통계





<월간 콘텐츠 시장동향 8월호 - 7월의 시장동향 요약>

분야	7월 시장동향
출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철수의 생각’ 돌풍 / 휴가철을 맞아 쉽게 읽히는 에세이·소설의 강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철수의 생각’ 최단기간 최고 판매 기록 경신(8월 말 현재 60만권 출고) » 교보문고 100위권에서 ‘소설’ 및 ‘시/에세이’ 장르가 각각 21권씩 진입
만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웹툰의 단행본 시장 점령과 출간종수의 지속적인 하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만화 단행본 판매량 상위 10위 중 웹툰을 단행본으로 출간한 만화가 8개로 압도적 » 7월 출간된 단행본은 259종으로 2011년 대비 73종 감소, 연간 누적 기준으로는 121종 감소
음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형 가수들의 복귀와 ‘강남스타일’ 열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NE1, 티아라, 씨스타의 신곡이 디지털 음악 종합차트에서 1, 2, 3위 차지 / 슈퍼주니어와 싸이 앨범 발매 » 싸이의 ‘강남스타일’ 뮤직비디오가 한 달간 1,537만 조회수 기록(8월 6일 기준, 8월 28일 현재 6,500만 회 돌파)
공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학을 맞아 어린이 뮤지컬이 인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BS 모여라 덩동덩 뮤지컬 ‘번개맨의 비밀’이 판매 점유율 9.0%로 1위, ‘로보카 폴리’(7위), ‘파워레인저 미라클 포스 에피소드 2: 최후의 전투’(14위), ‘NEW 어린이 난타’(18위) 등
게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블레이드 & 소울’의 1위 등극과 ‘디아블로 3’의 하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블레이드&소울’과 ‘리그 오브 레전드’의 1위 경합, ‘디아블로3’는 사용시간 점유율 큰 폭의 하락(-14.64%p)
영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박스오피스 매출의 확대와 한국영화의 강세 지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7월까지 연간 누적 매출액 1,043억 원(15.1%) 증가한 7,938억 원, 관객수 1,700만 명(19.6%)이 증가한 1억 375만 명 » 7월 누적 관객 점유율에서는 한국영화가 52.3%를 기록하며 외국영화 점유율(47.7%)을 앞섬
애니메이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채널에서 일본 인기 애니메이션 시리즈의 강세 지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따맘마>, <짱구>, <명탐정 코난> 시리즈가 어린이·애니메이션 전문채널 시청률 상위 점유
캐릭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애니메이션·영화·게임에서 파생된 캐릭터 상품이 인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애니메이션 캐릭터(‘보로로’, ‘로보카 폴리’, ‘교마버스 타요’) 및 영화 캐릭터(‘스파이더맨’, ‘트랜스포머’), 게임 캐릭터(‘앵그리버드’)를 상품화한 완구 및 보드게임들이 인기
방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균 가구시청률 6월 대비 상승 (지상파: 19.17%, 유료채널 11.74%, 종합편성 1.7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채널별 평균 시청률 : KBS1(5.54%), KBS2(4.69%), SBS(4.64%), MBC(3.45%), EBS(0.71%), YTN(0.65%) 순 » 프로그램 시청률 TOP20 : 드라마 9편(45%), 예능 4편(20%), 시사교양 3편(15%), 보도 2편(10%) 등
광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위 3개 포털이 인터넷 노출형 광고 매출액의 76.5%를 점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개 포털의 시장 점유율 3월 72.5%, 4월 73.6%, 5월 75.2%, 6월 76.5%에 이어 7월 76.5% 기록 » 인터넷 노출형 광고에서 3개 포털이 7월 유치한 광고 매출액은 6월 대비 38억 원 증가한 486억 원
지식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네이버’와 ‘다음’이 시장 주도, ‘네이트’의 약세 지속 / LTE 가입자 빠른 증가세 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위 2개 포털이 검색·커뮤니티·이메일 서비스 이용시간의 70% 이상 점유 / 3위 포털 네이트는 약세 » 6월 말 LTE 가입자 700만 명 돌파 및 매일 100만 명 이상 증가추세로 대용량 데이터 서비스 이용기반 확대



출판시장 : ‘안철수의 생각’ 돌풍 / 휴가철을 맞아 쉽게 읽히는 에세이·소설의 강세

- 하반기를 시작하는 7월 출판 시장에서는 ‘안철수의 생각’이 최단기간 최고 판매 기록(이전 기록은 '스티브 잡스' 자서전)을 경신하면서 1위를 차지했다. 7월 19일 출간 이후 하루 1만 부 이상의 무서운 속도로 판매되면서 8월 말 현재 출고량은 60만 부에 이른다.
- 7월에는 대선 예비주자들의 책이 서점가에서 본격적으로 주목받는 한편, 에세이와 소설 등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문학서가 대세였다. 소설 및 시/에세이 장르는 100위권 내에 21권이 포함되며 최근 들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감성적인 에세이가 강세를 보였고, 가벼운 마음으로 읽을 수 있는 소설들도 판매량이 증가했다. 6월에 비해 다소 줄어들긴 했지만 자기계발서도 15권이 100위권 내에 들며 여름 도서시장을 견인했다.
- 전자책 독자들이 무더위를 잊기 위해 찾은 길은 문학이었다. e북 순위 20위권에서 5권을 제외한 모든 책이 장르문학 또는 순수문학이었다. 휴가철을 맞이하여 정치·경제·시사적인 콘텐츠에서 벗어나 편안한 시간을 함께 할 장르소설 및 욕망, 심리학에 관한 책들이 많이 소비되었다.
- 교보문고 베스트셀러 100위를 분야별로 분류한 결과, 종이책 시장은 6월 대비 에세이와 소설, 정치/사회 분야가 증가하는 대신 경제/경영서와 자기계발서는 감소했고, e북 시장은 장르소설 및 자기계발서가 순위 내에 무려 80권이 포진하며 여전히 주류를 이루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화시장 : 웹툰의 단행본 시장 점령과 출간종수의 지속적인 하락

- 7월 한국만화 단행본 판매 순위에서는 6월에 이어 네온비 작가의 ‘다이어터’가 1위를 차지했다. 한국만화 단행본 판매 상위 10위 중 웹툰이 8권(1, 3, 4, 6, 7, 8, 9, 10위)을 차지하며 단행본 시장에서 웹툰의 인기가 지속되었다. 외국만화 순위에서는 6월에 이어 ‘원피스’가 1위에 올랐다. 외국만화 순위에서는 ‘명탐정 코난’, ‘심야식당’, ‘신의물방울’, ‘나루토’처럼 장기간 연재되고 있는 인기 시리즈가 고정 독자층을 바탕으로 높은 판매고를 보이고 있다.
- 만화 단행본 출간 종수(7월)는 259종으로 작년 동기와 비교하여 73종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간 누적 기준(2012년 1~7월)으로는 2,032종으로 2011년에 비해 121종 감소했다. 2002년 이후 급격히 감소했던 만화 출간 종수는 2010년 잠시 반등했다가 다시 감소하고 있다.
- 국적별 만화 출간 현황에 따르면, 최근 4년간 5~7월까지 국내에서 출간된 819종의 만화 중 한국작가의 작품은 249종으로 30.4%를, 일본작가의 작품은 556종으로 67.9%를 기록했다. 두 국가의 출간 종수 합계는 전체 만화 출간 종수의 98.3%를 차지한다. 기타 국가 출신 작가의 만화 단행본 출간은 14종(1.7%)에 그쳤다.
- 웹툰 서비스 이용통계(닐슨 코리안클릭 집계)에 따르면, <네이버 만화>는 7월 한 달간 710만 명의 순방문자수와 이용자 1인당 83분의 월평균체류시간을, <다음 만화속세상>은 303만 명의 순방문자수와 57분의 월평균체류시간을 기록했다.



☐ 음악시장 : 대형 가수들의 복귀와 ‘강남스타일’ 열풍

- 7월 디지털 음악 종합차트에서는 2NE1의 새 싱글 〈I Love You〉의 수록곡 ‘I Love You’가 1위에 올랐다. 7월 3일 발매된 티아라의 ‘DAY BY DAY’는 2위를 기록했고, 씨스타의 여름 스페셜 앨범 ‘Loving U’가 3위에 오르며 여성 그룹들의 곡이 1위에서 3위까지를 차지했다.
- 7월 오프라인 앨범 차트에서는 7월 1일에 발매된 슈퍼주니어의 6집 〈Sexy, Free & Single〉이 약 33만 5천장의 판매량을 기록하며 1위를 차지했다. 슈퍼주니어의 앨범은 빅뱅의 앨범을 제치고 2012년 7월까지의 연간 단일 앨범 판매량 1위에도 올랐다.
- 7월 유튜브 K-POP 조회수 순위에서는 싸이의 ‘강남스타일’이 1,537만 회의 조회수를 기록하며 1위에 올랐다. ‘강남스타일’은 CNN을 비롯한 해외 방송에 소개되고, 각종 패러디 영상으로 재생산되면서 큰 인기를 얻어 8월 말 현재 조회수 6,500만을 돌파했다. K-POP 누적 조회수에서는 소녀시대의 ‘Gee’가 8,127만 회의 조회수로 1위를 유지했다. 빅뱅의 ‘FANTASTIC BABY’는 3,609만 회의 조회수를 기록하며 11위로 순위권에 진입했다.
- 7월 음악 어플리케이션 이용 현황에 따르면, ‘멜론’이 151만 명으로 가장 많은 순이용자수를 기록했고 ‘네이버 뮤직’이 148만 명으로 2위에 올랐지만 월평균이용시간에서는 멜론이 1,242분을 기록하며 ‘네이버 뮤직’(63분)과 큰 차이를 보였다. 3위부터는 순이용자가 60만 명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집계되었으나, ‘엠넷’과 ‘벅스’는 낮은 순이용자수에도 불구하고 2,000분이 넘는 월평균이용시간을 기록하며 높은 이용률을 보였다.

☐ 공연시장 : 방학을 맞아 어린이 뮤지컬이 인기

- 7월 공연시장 종합 순위에서는 방학을 맞아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뮤지컬이 대거 순위권에 진입한 것이 특징적이었다. EBS 모여라 덩동맹 뮤지컬 ‘번개맨의 비밀’이 판매 점유율 9.0%로 1위를 차지했고, ‘로보카 폴리’(7위), ‘파워레인저 미라클 포스 에피소드 2: 최후의 전투’(14위), ‘NEW 어린이 난타’(18위)가 순위권에 들었다. 한편, 7월 20일 공연이 시작된 뮤지컬 ‘잭더리퍼’가 5.7%의 점유율로 2위에 올랐고, ‘오즈의 마법사’를 각색한 뮤지컬 ‘위키드’의 오리지널 내한공연은 4.2%의 점유율로 3위를 기록했다.
- 공연시장 종합 20위권 내에는 뮤지컬 14편(창작 뮤지컬 6편), 연극 6편이 포함되었고, 콘서트·클래식·오페라·국악·무용 공연은 포함되지 못했다. 이는 6월과 같은 구성비이지만, 창작 뮤지컬의 비중은 7편에서 6편으로 한 작품이 감소했다.
- 연극 분야에서는 5, 6월에 이어 ‘옥탑방고양이(대학로)’가 3개월 연속 1위를 유지했다. 2010년 대한민국 국회대상을 수상했던 ‘옥탑방 고양이’는 작품성과 흥행성을 인정받으며 룹런하고 있다. 초연 60주년을 맞이해 대학로 SH아트홀에서 공연되는 ‘쥐뿔’이 연극 티켓 판매 2위에 올랐으며, 올해 3월 12일부터 공연 중인 인기 연극 ‘라이어’가 3위를 차지했다.
- 콘서트 분야에서는 9월 15일에 잠실종합운동장 보조경기장에서 열리는 Maroon 5의 내한공연이 14.8%의 점유율로 1위에 올랐다. 싸이의 ‘훨씬 THE 흠뻑쏘’는 10.4%의 점유율을 기록하며 2위를 차지했다. 5일에 걸쳐 진행되는 인기 아이돌 그룹 인피니트의 단독콘서트 ‘그 해 여름’은 점유율 6.4%로 3위에 올랐다.



- 클래식/오페라 분야에서는 정명훈이 지휘를 맡고 안젤라 게오르규와 비토리오 그리골로가 출연하는 야외 오페라 <라보엠>이 1위에 올랐다. 9월 8일로 예정된 '2012 파크 콘서트 'Piano Paradiso'는 3.7%의 점유율로 2위를 기록했고, 8월 4일 개최된 '아시아 필하모닉 오케스트라(APO)와 유니세프가 함께하는 북한 어린이를 위한 자선 음악회'가 3위에 올랐다.
- 국악/무용 분야에서는 한국인 발레리나 서희가 수석무용수로 활동하고 있는 아메리칸발레시어터(ABT)의 '지젤' 내한공연이 1위에 올랐다. 슈투트가르트 발레단의 프리마돈나인 강수진의 발레 갈라 쇼 '강수진과 친구들'의 전주 공연이 2위에 올랐으며 유니버설발레단의 '로미오와 줄리엣'은 9.1%로 3위를 차지했다.
- 7월 공연시장 종합 50위를 분야별 분포로 살펴보면 뮤지컬이 32개로 1위를 차지했다. 뮤지컬은 매월 순위 중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1월부터 7월까지 총 213편(60.9%)을 순위권에 올리며 공연시장을 이끈 것으로 집계됐다. 뮤지컬에 이어 17개 공연이 50위권에 오른 연극이 2위를 차지했고 국악/무용, 클래식/오페라, 콘서트는 아주 적은 수의 공연만이 순위권에 올랐다. 이는 장기간에 걸쳐 공연하는 뮤지컬, 연극에 비해 콘서트나 공연은 1회 또는 수회에 그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 게임시장 : '블레이드 & 소울'의 1위 등극과 '디아블로 3'의 하락

- 7월 온라인게임 순위에서는 6월 21일에 출시된 '블레이드 & 소울'이 1위를 차지했다. 차세대 e-Sports 주자로 떠오르고 있는 '리그 오브 레전드'는 6월에 이어 2위에 올랐다. 6월 1위였던 '디아블로 3'는 전월대비 50%에 가까운 큰 폭의 이용시간 하락을 보이며 3위로 내려갔다. TOP 20 중 국내 개발사의 게임은 14개로 지난달과 동일하였으나 6월 52%였던 국내 개발사 게임 점유율은 7월 65%로 상승하여 국산 게임의 강세가 더욱 두드러졌다.
- TOP 20위 게임의 사용시간 합계는 6월(6,014,049)에 비해 7월(6,514,253)에 소폭 상승했다. 이는 많은 게임사들이 여름방학을 맞이한 학생들을 겨냥하여 대규모 업데이트 및 이벤트를 진행한 효과로 풀이된다.
- 장르별 현황에서는 5월과 6월 상승했던 RPG 장르의 점유율이 3.6%p 하락하며 50% 이하로 떨어졌다. '블레이드 & 소울'의 점유율이 높아졌으나 '디아블로 3'와 '아이온' 등 다른 RPG 게임의 점유율이 전반적으로 하락한 것이 원인이다. 2위를 기록한 RTS(실시간전략게임)는 전월 대비 1.8%p 상승한 23.8%를 기록했다. '서든어택'과 '카운터 스트라이크'가 선전한 FPS(1인칭슈팅게임)는 1.2%p 상승한 10.4%로 3위에 올랐다.
- 7월 게임 제작사별 점유율에서는 '블레이드 & 소울'의 인기로 힘입어 엔씨소프트가 25.81%의 점유율로 1위에 올랐다. 엔씨소프트의 점유율이 6월보다 9.58%p 증가한데 반해 블리자드는 14.57%p 하락하며 2위로 내려앉았다. 넥슨과 네오위즈게임즈는 각각 13.26%와 10.03%의 점유율로 3, 4위를 기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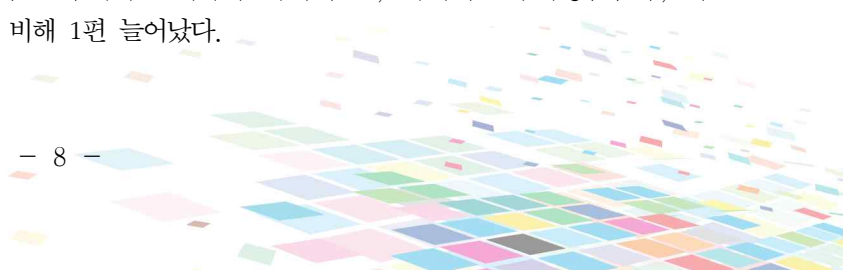


영화시장 : 박스오피스 매출의 확대와 한국영화의 강세 지속

- 7월 박스오피스 순위에서는 7월 19일 개봉한 '다크 나이트 라이즈'가 매출액 339억 원, 관객수 459만 명을 동원하며 1위를 차지했다. 7월 5일 개봉한 김명민, 문정희 주연의 재난 드라마 '연가시'가 445만 명의 관객을 동원하며 2위를 기록했고, 7월 마지막 주에 개봉한 '도둑들이' 1주일 만에 386만 명을 기록하며 3위에 올랐다. '어메이징 스파이더맨', '아이스 에이지 4: 대륙 이동설!'이 각각 관객수 366만 명, 69만 명을 기록하며 그 뒤를 이었다.
- 전통적으로 월별 관객 수가 많은 7월이긴 하지만 월 관객 350만 명이 넘는 영화가 4편이나 나왔다. 이는 10대 학생만이 아니라 30·40대들에게도 관심을 불러일으킬만한 할리우드 블록버스터 영화와 한국의 주요 투자배급사들이 전략적으로 기획한 흥행 대작들이 대거 개봉했기 때문이다.
- 7월까지의 연간 누적 박스오피스 매출액은 작년 같은 시기에 비해 약 1,043억 원(15.1%) 증가한 7,938억 원으로 집계되었다. 관객 수도 작년 동기 대비 약 1,700만 명(19.6%)이 증가한 1억 375만 명을 기록했다.
- 7월 누적 관객 점유율에서는 한국영화가 52.3%를 기록하며 외국영화 점유율(47.7%)을 앞섰는데, 6월 누적 수치 대비 다소 하락하기는 했지만 전년 동기 한국영화(44.7%)의 점유율이 외국영화(55.3%)에 11% 뒤졌던 것과 비교하면 한국영화의 강세가 지속되고 있다.
- 7월까지 가장 높은 점유율을 기록한 배급사는 7월 박스오피스 2위를 기록한 <연가시>를 배급한 'CJ E&M'으로, 총 관객 2,275만 명을 동원하며 22.2%의 점유율을 기록했다. '어벤져스', '맨 인 블랙', '어메이징 스파이더맨' 등 할리우드 대작을 배급한 '한국소니픽처스릴리징브레나비스타영화(주)'는 점유율 16.8%로 2위를 차지했다. 6월까지 점유율 2위를 기록하였던 '롯데쇼핑(주)롯데엔터테인먼트'는 6월부터 상영하고 있는 '후궁: 제왕의 첩'의 급격한 관객 감소와 7월 배급 영화 <두 개의 달> 등의 흥행부진으로 인해 전월 대비 점유율이 2.2%가 감소한 14.7%를 기록하며 3위로 한 단계 하락했다.
- 2012년 7월 누적 상영유형별 관객점유율에서는 2D영화(디지털)가 81.3%, 아날로그 필름이 10.4%, 3D가 6.6%를 기록했고, IMAX와 4D는 1% 미만으로 나타났다. 국내의 경우 관객들의 요금 저항(2D 영화에 비하여 3D 상영권이 4,000원 비쌌)으로 인해, 극장들도 전년에 비하여 3D 상영비율을 줄이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전년 동기 대비 3D 관객점유율은 6.5% 감소했다.

애니메이션시장 : 전문채널에서 일본 인기 애니메이션 시리즈의 강세 지속

- 어린이/애니메이션 전문채널의 7월 방영 프로그램 중에서는 '아따맘마 극장판'이 0.92%로 가장 높은 시청률을 기록했다. '짱구는 못말려 11 스페셜'은 0.76%의 시청률로 2위에 올랐고, 시청률 0.7%의 '명탐정 코난 극장판 천공의 난파선'이 3위를 기록했다. <아따맘마 시리즈>와 <짱구 시리즈>, <명탐정코난 시리즈>는 꾸준히 순위권에 머무르고 있다.
- 시청률 상위 35개 프로그램 중에서 국산 프로그램은 투니버스 제작의 '막이래쇼3', '막이래쇼 무작정탐험대', '와라 편의점 스페셜', '안녕 자두야' 4편으로 6월에 비해 1편 늘어났다.





- 어린이/애니메이션 전문채널의 평균 가구시청률에서는 ‘짱구는 못말려’, ‘명탐정 코난’, ‘아빠맘마’ 등을 방영하는 <투니버스>가 0.28%로 1위에 올랐다. ‘뽀롱뽀롱 뽀로로’, ‘꼬마버스 타요’ 등을 방영하는 <카툰네트워크>는 0.096%의 시청률을 기록하며 2위로 한 단계 상승했고 ‘디지몬’, ‘도라에몽’, ‘포켓몬스터’ 등을 방영하는 <Champ>가 3위(0.094%)를 차지했다. <투니버스>를 제외한 어린이/애니메이션 전문채널은 평균 시청률 0.1% 이하, 점유율 1% 미만에 머물렀다.
- 애니메이션 채널의 시간대별 평균 시청률을 분석한 결과, ‘60대 이상’을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18~20시에 가장 높은 평균 시청률을 나타냈다. 특히 ‘4~9세’는 17시~20시까지의 시청률이 평균 3%를 넘었고 아침 시간인 8~10시까지의 시청률도 평균 2% 이상을 기록했다.
- 2012년 1월부터 8월 초까지 32편의 극장판 애니메이션이 개봉했고, 이중 1월에 개봉한 ‘장화신은 고양이’가 약 200만 명으로 가장 많은 관객 수를 동원했다. 2위는 약 160만명을 동원한 ‘마다가스카 3’가 차지했고, 국산 애니메이션 중에서는 3D 애니메이션 ‘점박이: 한반도의 공룡 3D’가 약 100만 관객을 동원하며 선전했다.

캐릭터시장 : 애니메이션 · 영화 · 게임에서 파생된 캐릭터 상품이 인기

- 7월에도 애니메이션, 영화 캐릭터 완구들이 강세를 보였다. ‘뽀로로’와 ‘로보카 폴리’, ‘꼬마버스 타요’처럼 애니메이션에서 파생된 완구 상품들이 대거 순위를 차지했으며, ‘스파이더맨’이나 ‘트랜스포머’같은 영화 캐릭터 완구도 순위에 올랐다. 특히 국산 애니메이션의 인기에 힘입어 국산 캐릭터 완구들이 꾸준히 인기를 끌고 있다.
- <토이저리스>에서 발표한 7월 캐릭터 상품 순위에서는 남아완구에서 ‘포봇 시리즈’가, 여아완구는 ‘미미 시리즈’가 상위권에 올랐다. 교육완구로는 ‘레고 시리즈’가 많이 판매되었고, 야외완구 중에서는 스마트 트라이크에서 나온 ‘쥬 시리즈’가 꾸준히 인기를 얻고 있다. 보드게임에서는 ‘아카데미과학 한밤의 유명사냥’이 1위를 차지했으며 모바일 게임인 앵그리버드의 보드게임이 두 개나 순위에 올랐다.

방송시장 : 평균 가구시청률 6월 대비 상승 (지상파: 19.17%, 유료채널 11.74%, 종합편성 1.71%)

- 2012년 7월 채널유형별 평균 가구시청률에서는 지상파 채널이 19.17%(점유율 55.96%), 종합편성채널은 1.71%(점유율 4.98%), 유료채널(110개)이 11.74%(점유율 34.28%)를 기록했다. 이는 6월 시청률이 지상파 17.65% 종합편성채널 1.61% 유료채널 11.55%을 기록했던 것과 비교하면 소폭 상승한 수치이다.
- 7월 채널별 가구시청률은 ‘KBS1’이 5.54%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이어서 ‘KBS2’, ‘SBS’, ‘MBC’의 순으로 시청률이 높은 것으로 집계되어 전월과 동일했다. EBS를 비롯한 나머지 채널들은 시청률 1% 이하를 기록했으며, 4개의 종합편성채널(JTBC, MBN, 채널A, TV조선) 중에서는 MBN이 0.55%로 가장 높은 시청률을, TV조선이 0.30%로 가장 낮은 시청률을 보였다. 5, 6월에 종합편성채널 중에서 가장 높은 시청률을 보였던 JTBC가 주춤한 가운데, MBN의 시청률이 꾸준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채널A의 상승세도 눈에 띄는 반면, TV조선은 계속해서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 전체 프로그램 가구시청률에서는 시청률 34.7%를 기록한 KBS2 주말연속극 ‘넝쿨째 굴러온 당신’이 5, 6월에 이어 계속해서 1위에 올랐고, SBS 드라마 ‘신사의 품격’이 22.9%로 2위를 기록했다. 뒤를 이어 KBS1의 일일연속극 ‘별도 달도 따줄게’가 22.8%로 3위에, ‘개그콘서트’가 19.5%로 4위에 올랐다.
- 인기 프로그램을 장르별로 살펴보면, 10위권 내에서 6개의 프로그램이 드라마였고, 상위 20개 프로그램 중에서는 드라마가 9편으로 45%를 점유했다. 5월에 12편의 드라마가 20위권 내에 들었던 것과 비교하면 드라마의 강세가 다소 약화되는 추세이다.

광고시장 : 상위 3개 포털이 인터넷 노출형 광고 매출액의 76.5%를 점유

- 7월 인터넷 노출형 광고는 상위 30개 업체가 596억 원의 매출액을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550억 원이었던 6월 대비 46억 원(8.4%) 증가한 것이다. 상위 3개 포털인 ‘네이버’, ‘다음’, ‘네이트’의 점유율 합계는 6월과 같은 76.5%를 기록했다.
- 상위 3개 포털의 점유율은 3월 72.5%, 4월 73.6%, 5월 75.2%, 6월 76.5%를 기록하며 지속적으로 상승했었으나, 7월에는 변동이 없었다. 상위 3개 포털이 6월에 유치한 광고료는 486억 원으로 5월의 448억 원에 비해 38억 원 증가했으며, 상위 30위의 광고비 매출 중 3개사가 차지하는 비율은 81.6%로 집계되었다.
- 7월 검색광고 시장 광고주 수는 144,000개를 기록하며 148,000개를 기록했던 6월에 비해 2.7% 감소했다. 매체별 점유율에서는 ‘네이버’가 33.9%로 1위를, ‘오버추어-네이버 공동집행’이 14%로 2위를 기록했고 ‘네이트’는 11.2%로 3위를 기록했다. 전월 대비 ‘네이버’가 3.4%p 증가한 반면 ‘오버추어’는 3.2%p 감소했다. ‘오버추어’는 6월에 전월 대비 3.0%p 증가하며 잠시 회복세를 보였었지만 다시 하락했다.

지식정보시장 : ‘네이버’와 ‘다음’이 시장 주도, ‘네이트’의 약세 지속 / LTE 가입자 빠른 증가세 유지

- 7월 국내 인터넷 웹사이트 종합 순위(순방문자수 기준)에서는 ‘네이버’가 순방문자수 3,218만 명으로 1위에 올랐다. 뒤를 이어 ‘다음’과 ‘티스토리’가 각각 2위와 3위를 차지했지만, ‘티스토리’의 경우 월평균체류시간이 약 11분으로 355분을 기록한 ‘네이버’와 260분을 기록한 ‘다음’에 크게 못 미쳤다.
- 7월 주요 서비스별 웹사이트 순위는 검색·커뮤니티·이메일 서비스 모두 여전히 주요 포털(네이버, 다음, 네이트)의 이용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검색 서비스>에서는 ‘구글’이 시간점유율에서 ‘네이트’를 앞서는 추세이고, <커뮤니티 서비스>에서도 ‘싸이월드’의 시간점유율이 소폭 하락하는 등 상위 2개 포털의 지배력이 강화되고 ‘네이트’의 영향력이 조금씩 하락하고 있다. 한편 ‘네이버’와 ‘다음’의 시간점유율을 합산하면 전체 검색 서비스의 93.21%, 커뮤니티 서비스의 92.17%, 이메일 서비스의 70.57%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 7월 인터넷 평균 이용시간은 전월 대비 2.5% 증가한 1,847분으로 나타났다. 연령별 구분에서 인터넷 이용시간이 가장 높은 집단은 ‘25~29세’로 7월 평균 2,637분(하루 평균 1시간 25분)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스마트폰 및 태블릿용) 순위에서는 컴투스의 모바일 소셜 게임인 '타이니 팜'이 매출액 기준으로 <앱스토어>에서 1위, <플레이스토어>에서 2위를 기록했다. '타이니 팜'은 다양한 동물들을 키워나가며 자신만의 목장을 경영하는 게임으로, <앱스토어> 6월 1위를 기록했던 '롤 더 스카이'를 2위로 밀어냈다.
- 각 통신사들이 LTE 서비스의 주도권 확보를 위해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는 가운데, 5월 대비 SKT가 43만 명, KT가 24만 명, LG U+가 31만 명의 LTE 가입자를 추가 확보하며 6월에만 100만 명에 가까운 가입자가 늘었다. LTE 서비스 전체 가입자수는 709만 명으로, 이 중 SKT가 334만 명, KT가 117만 명, LG U+가 258만 명을 기록하고 있다. 지금과 같은 추세라면 LTE가입자는 9월 또는 10월에 1,000만 명을 돌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스마트폰과 태블릿 PC 가입자는 전월대비 2.8%, 3.4%의 무난한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스마트폰 가입자는 6월 말 기준 2,833만 명을 넘었고, 태블릿PC 가입자는 65만 명을 돌파했다. 이는 통신사 서비스에 가입된 태블릿 PC의 수량으로 와이파이 전용 태블릿을 포함하면 전체 사용자는 100만 명을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스마트기기 이용의 확장과 더불어 태블릿PC 가입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01 출판

하반기를 시작하는 7월 출판 시장에서는 ‘안철수의 생각’이 최단기간 최고 판매 기록(이전 기록은 '스티브 잡스' 자서전)을 경신하면서 1위를 차지했다. 7월 19일 출간 이후 하루 1만 부 이상의 무서운 속도로 판매되면서 8월 말 현재 출고량은 60만 부에 이른다. 13주간 1위를 기록하며 상반기 ‘힐링’ 열풍을 주도했던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은 2위를 기록했다.

7월은 대신 예비주자들의 책이 서점가에서 본격적으로 주목받는 시기였다. 특정 인물에 대한 다양한 장르의 책들이 동시에 선보이고 있고, 사회/정치 테마에 대한 문제의식으로 접근하며 스테디셀러로 자리잡는 책들도 나타나고 있다. 더불어 전반적으로 에세이의 강세가 유난히 돋보였다. 여름이 시작되면서 장르를 불문하고 쉽게 읽히는 책들이 사랑받았다. 현자의 지혜서인 칼 필레머의 책은 3위를 차지했고, 신간 중에서는 이병률 시인의 여행 산문집이 4위로 인기를 얻었으며, 김재진 시인의 시집은 예약 판매로 6월부터 순위에 올랐다. 시끄러운 사회일수록 내향성의 힘이 중요함을 이야기하는 ‘콰이어트’는 8위, ‘타력’은 이견희 회장의 애독서로 주목받으며 순위권에 올랐다. 7월 베스트셀러 20위권에는 인기 드라마에 등장하며 재진입한 신경숙의 소설 사례처럼, 방송영화의 영향력으로 2010년 도서가 4종이나 있는 점이 이채롭다.

▶ 교보문고 종합 베스트셀러 TOP 20 (7월)

순위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분야	출간일
	7월	6월	5월					
1	-	-	-	안철수의 생각	안철수	김영사	시/에세이	2012. 7.19.
2	1	1	1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헤민 스님	쌤앤파커스	시/에세이	2012. 1.13.
3	5	28	28	내가 알고 있는걸 당신도 알게 된다면	칼 필레머	토네이도	자기계발	2012. 5.12.
4	-	-	-	바람이 분다 당신이 좋다	이병률	달	여행/기행	2012. 7. 1.
5	10	8	8	아프니까 청춘이다	김난도	쌤앤파커스	시/에세이	2010.12.24.
6	2	4	4	달팽이가 느려도 늦지 않다	정목 스님	공감	시/에세이	2012. 5.15.
7	8	5	5	어떻게 원하는 것을 얻는가	스튜어트 다이아몬드	8.0	자기계발	2011.11.30.
8	-	-	-	콰이어트	수전 케인	알에이치코리아	자기계발	2012. 6.30.
9	11	23	23	빅 픽처	더글라스 케네디	밝은세상	소설	2010. 6.10.
10	4	65	65	스님의 주례사	법륜	휴	종교	2010. 9.13.
11	49	-	-	어디선가 나를 찾는 전화벨이 울리고	신경숙	문학동네	소설	2010. 5.19.
12	3	3	3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	마이클 샌델	와이즈베리	인문	2012. 4.24.
13	156	-	-	삶이 자꾸 아프다고 말할 때	김재진	시와	시/에세이	2012. 7. 2.
14	19	-	-	무지개 곶의 찻집	모리사와 아키오	샘터	소설	2012. 5.29.
15	29	-	-	마법천자문 22	올댓스토리	아울북	어린이	2012. 6.20.
16	59	-	-	채소의 기분 바다표범의 키스	무라카미 하루키	비채	시/에세이	2012. 6.27.
17	15	29	29	해커스 토익 보카	David Cho	해커스어학연구소	외국어	2011. 5.20.
18	-	-	-	타력	이츠키 히로유키	지식여행	시/에세이	2012. 7.10.
19	7	10	10	나의 상처는 돌 너의 상처는 꽃	류시화	문학의숲	시/에세이	2012. 4.28.
20	17	11	11	나는 까칠하게 살기로 했다	양창순	센추리원	자기계발	2012. 2.15.

- 01 출판
- 02 만화
- 03 음악
- 04 공연
- 05 게임
- 06 영화
- 07 애니메이션
- 08 캐릭터
- 09 방송
- 10 광고
- 11 지식정보



교보문고 e북 순위에서는 사랑과 성에 대한 심리학 인문서 ‘섹스의 재발견 벗겨봐’가 1위를 차지했다. 이 책은 전자책과 종이책의 판매비중이 7 : 3일 정도로 전자책 판매량이 월등히 많은 점이 특징이다. 뜨거운 반응을 보이며 e북만 10만 부 이상 판매되자 출판사는 상표등록까지 마치고 9월부터 시리즈 출간을 계획하고 있다. 국내외적으로 로맨스 콘텐츠의 전자책 출간 적합성은 입증됐다. 아마존의 첫 전자책 밀리언셀러인 '그레이의 50가지 그림자'가 최근 국내 간행물 심의에서 19급 판정을 받았지만, 불황에 과급력이 강한 로맨스 콘텐츠가 전자책 시장 확대 추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전자책 독자들이 무더위를 잊기 위해 찾은 길은 문학이었다. e북 순위 20위권에서 5권을 제외하고는 모두 장르 문학 또는 순수문학이었다. 휴가철을 맞이하여 정치, 경제, 시사적인 콘텐츠에서 벗어나 편안한 시간을 함께할 장르소설과 욕망과 심리학에 관한 책들이 많이 소비되었다.

한편 7월 순위에는 지난달 20위권에 오른 6권의 e북이 포함되어, 휘발성이 강한 e북 시장에서도 좋은 콘텐츠는 오래 지속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장르소설 이외에, ‘내가 알고 있는 걸 당신도 알게 된다면’과 ‘어디선가 나를 찾는 전화벨이 울리고’, ‘하루 15분 정리의 힘’, ‘은교’는 종이책 베스트셀러 순위에도 오르며 검증받은 책들이었다.

▶▶ 교보문고 e-Book 베스트셀러 TOP 20 (7월)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가격	분야	출간일
7월	6월						
1	8	섹스의 재발견 벗겨봐	조명준	모아북스	6,900원	인문	2012. 5.25.
2	10	열망	이주연	디키스토리	3,500원	장르소설	2012. 6.13.
3	6	내가 알고 있는걸 당신도 알게 된다면	칼 필레머	토네이도	9,800원	자기계발	2012. 4.30.
4	30	어디선가 나를 찾는 전화벨이 울리고	신경숙	문학동네	6,900원	소설	2012. 5.24.
5	-	인문학 공부법	안상현	북포스	9,000원	인문	2012. 6.22.
6	1	하루 15분 정리의 힘	윤선현	위즈덤하우스	9,660원	자기계발	2012. 4. 5.
7	-	지독한 욕망	조아	디키스토리	3,500원	장르소설	2012. 7. 9.
8	-	바람난 선녀	유지니	퍼플	3,500원	장르소설	2012. 7. 2.
9	5	FBI 행동의 심리학	조 내버로	리더스북	7,000원	자기계발	2012. 1.18.
10	61	욕망	서미선	가하	3,000원	장르소설	2012. 6.20.
11	-	나쁜남자 2	박가희	디키스토리	3,500원	장르소설	2012. 6.15.
12	-	전설의 그 사나이	유지니	퍼플	3,500원	장르소설	2012. 7.16.
13	-	서른, 빛나는 열애(19급)	서향	퍼플	3,500원	장르소설	2012. 7.10.
14	-	이상한 나라의 가정부	하정우	가하	2,500원	장르소설	2012. 7. 3.
15	3	은교	박범신	문학동네	7,200원	소설	2010. 4. 5.
16	86	우리 이제 연인인가요	이영채	디키스토리	3,500원	장르소설	2012. 6.13.
17	-	역천도 2	비가	블미디어	3,500원	장르소설	2012. 6. 1.
18	-	러브서치 2	수련	디키스토리	3,500원	장르소설	2012. 6.29.
19	-	사랑도 리플레이 되나요	이주연	디키스토리	3,500원	장르소설	2012. 6.29.
20	-	워츨 여자, 아래츨 남자 2	진아연	라떼북	1,500원	장르소설	2012. 6.28.

* 출처: 인터넷 교보문고 (<http://digital.kyobobook.co.kr>), 2012년 7월 기준

01 출판

02 만화

03 음악

04 공연

05 게임

06 영화

07 애니메이션

08 캐릭터

09 방송

10 광고

11 지식 정보



01 출판

교보문고 베스트셀러 100위를 분야별로 분류한 결과, 종이책 시장은 6월 대비 에세이와 소설, 정치/사회 분야가 증가하는 대신 경제/경영서와 자기계발서는 감소했고, e북 시장은 장르소설 및 자기계발서가 순위 내에 무려 80권이 포진하며 여전히 주류를 이루는 것으로 나타났다.

7월에는 에세이와 소설 등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문학서가 대세였다. 소설 및 시/에세이 장르는 100위권 내에 21권이 포함되며 최근 들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본격적인 휴가 준비를 하면서 감성적인 에세이가 강세를 보였고, 인기 드라마에 노출된 소설들이 인기를 얻어 다시 순위에 진입하였다. e북 시장에서는 더위를 잇는 추리·판타지 소설의 인기가 상승하며 지난달 주춤했던 장르소설의 비중이 다시 급증하였고, 휴가철을 맞이하여 여행, 취미, 건강, 스포츠 등 다양한 전자책들이 주목을 받았다.

02 만화

03 음악

▶ 교보문고 종합 베스트셀러 100위 분야별 분포 (2012. 4. ~ 2012. 7.)

순위	분야	2012. 4.	2012. 5.	2012. 6.	2012. 7.
1	소설	20	20	18	21
2	시/에세이	16	19	18	21
3	자기계발	19	20	20	15
4	경제/경영	13	10	6	8
5	외국어	7	5	14	8
6	인문	11	7	7	7
7	정치/사회	3	4	2	5
8	만화	2	4	4	3
9	어린이	2	3	2	3
10	가정/생활	3	4	3	2
11	역사/문학	0	2	2	2
12	종교	3	1	3	1
-	기타	1	1	1	2

* 기타(2012.7): 유아(1), 취미/스포츠(1)
* 출처: 교보문고, 한국콘텐츠진흥원 재구성

04 공연

05 게임

06 영화

07 애니메이션

08 캐릭터

▶ 교보문고 e-Book 베스트셀러 100위 분야별 분포 (2012. 4. ~ 2012. 7.)

순위	분야	2012. 4.	2012. 5.	2012. 6.	2012. 7.
1	장르소설	67	65	54	66
2	자기계발	16	17	18	14
3	소설	9	7	13	7
4	경제경영	3	5	7	4
5	인문	2	3	5	3
-	기타	3	3	3	6

* 기타(2012.7): 시/에세이(2), 역사(1), 여행/취미(1), 사회/정치(1), 만화(1)
* 출처: 교보문고, 한국콘텐츠진흥원 재구성

09 방송

10 광고

11 지식 정보



7월 서비스업체별 e북 판매 순위에서는 마켓별로 순위권 도서의 특성이 다르게 나타났다. T스토어는 전자책의 다양화를 위해 연계소설을 시도하고 있는 이유로 10위 내 모든 책이 장르소설이었다. 리디북스는 시간제 대여 서비스(판타지/무협, 스타화보 등 소비형 콘텐츠는 일정 기간 열람 대여, 일반 단행본은 홍보 목적으로 특정일/특정 시간 단기 대여)를 강점으로 다양한 마케팅을 선보이면서 순위권에 분야별 다양성이 돋보였다. '이상호 기자의 X파일'은 종이책 순위보다 높았고, 다양한 종이책 베스트셀러가 순위권에 올라왔다. 올레e북은 경제/경영 및 자기계발이 강세인 가운데, 대중적 영향력이 있는 문학서가 상위권을 차지했다.

▶ 서비스업체별 e-Book 판매 TOP 10 (7월)

1. 리디북스

순위	변동	도서명	저자	출판사	분야	가격
1	△1	어떻게 원하는 것을 얻는가	스튜어트 다이아몬드	8.0	자기계발	9,800
2	NEW	이상호 기자 X파일	이상호	동아시아	정치/사회/역사	8,400
3	▽2	내가 알고 있는걸 당신도 알게 된다면	칼 필레머	토네이도	자기계발	9,800
4	▽1	하루 15분 정리의 힘	윤선현	위즈덤하우스	기획/창의/리더십	9,660
5	New	백설공주에게 죽음을	넬레 노이하우스	북로드	소설	8,400
6	△1	스티브 잡스	월터 아이작슨	민음사	CEO/리더십	18,000
7	New	결혼하기 전에 한번 읽어보자 2	서홍익	스카이북	한국소설	3,600
8	△1	헝거게임 세트 (전 3권)	수잔 콜린스	북폴리오	소설	18,900
9	New	화폐전쟁 1	송홍빙	랜덤하우스코리아	재테크/금융/부동산	17,500
10	New	안철수의 서재	이채윤	푸른영토	인문	8,000

* 2012. 8. 10. 기준 / 순위 변동은 10위권 내에서의 전월 대비 변동을 기재한 것임

* 출처: 리디북스(www.ridibooks.com)

2. T스토어

순위	변동	도서명	저자	출판사	분야	가격
1	New	섹시 레이디	정경하	로맨스토리	장르소설	3,000
2	New	침대 위의 연애담	이림	스칼렛	장르소설	3,500
3	New	남시대에 걸린 너구리 세트	이진희	로맨스토리	장르소설	6,300
4	New	무정 세트	이화현	로맨스토리	장르소설	6,300
5	New	가시독	공호	피우리	장르소설	3,500
6	New	홀드미 세트	최은경	로맨스토리	장르소설	7,200
7	New	그녀의 외출	님사랑	로맨스토리	장르소설	3,500
8	New	보조 직업 마스터 세트	고종환	파피루스	장르소설	14,400
9	New	그레이의 50가지 그림자 세트	E L 제임스	시공사	장르소설	16,800
10	New	그레이의 50가지 그림자	E L 제임스	시공사	장르소설	8,400

* 2012. 8. 10. 일일 다운로드 기준 / 순위 변동은 10위권 내에서의 전월 대비 변동을 기재한 것임

* 출처 : T스토어(www.tstore.co.kr)

01 출판

02 만화

03 음악

04 공연

05 게임

06 영화

07 애니메이션

08 캐릭터

09 방송

10 광고

11 지식 정보



01

출판

02

만화

03

음악

04

공연

05

게임

06

영화

07

애니
메이션

08

캐릭터

09

방송

10

광고

11

지식
정보

3. 올레북

순위	변동	도서명	저자	출판사	분야	가격
1	New	화폐전쟁 3권 세트	송홍빙	랜덤하우스코리아	경제/경영	52,500
2	△5	웃음 1,2권 세트	베르나르 베르베르	열린책들	문학	12,600
3	New	안철수 He Story	박근우	(주)웅진씽크빅	문학	9,800
4	▽2	FBI 행동의 심리학	조 내버로, 마빈 칼린스	(주)웅진씽크빅	자기계발	6,300
5	▽4	스티브 잡스	윌터 아이작슨	민음사	자기계발	18,000
6	New	이상호 기자 X파일	이상호	동아시아	정치/사회	8,400
7	▽4	은교	박범신	문학동네	문학	4,000
8	△2	시골의사 박경철의 자기혁명	박경철	(주)웅진씽크빅	자기계발	8,000
9	▽3	하루 15분 정리의 힘	윤선현	위즈덤하우스	자기계발	9,660
10	▽1	주기자 : 주진우의 정통시사할극	주진우	푸른숲	정치/사회	9,500

* 2012. 8. 10. 기준 (최근 1개월) / 순위 변동은 10위권 내에서의 전월 대비 변동을 기재한 것임

* 출처: 올레북(www.ebook.olleh.com)



7월의 앱북 동향을 살펴보면, 애플 앱스토어에서 아이폰으로는 심리학, 연애 실용서와 종교서가 인기를 얻은 것이 특징적이고, 아이패드에서는 종이책과 아이폰용 앱에서 인기를 얻은 콘텐츠가 두드러지게 많이 다운로드 되었으며, 구글 플레이에서는 어학 관련 사전 및 학습 콘텐츠의 판매 비중이 높았다. 주목할 만한 점은 국산 그래픽 노벨 '와쳐' 시리즈의 인기가 다양한 디바이스에서 돋보였다는 점이다.

» 도서분야 유료 앱(APP) TOP 10 (7월)

순위	아이폰	아이패드	안드로이드
1	new 성격의 비밀	new 어린이 심리학 HD -부모가 모르는 아이의 진짜 속마음	new 네이버 중한사전 Chinese Dictionary
2	new 어린이 심리학 - 부모가 모르는 아이의 진짜 속마음	new 초당도 이해하는 연말정산	new 일본어 무작정 따라하기
3	new 김태훈의 러브토크	▽2 디렉스성경찬송	new Moon+ Reader Pro
4	▽2 갓피플성경	new 주기자 : 주진우의 정통시사할극	new 은누리 성경 & 찬송가
5	new 와쳐 IF3	new 하루 15분 정리의 힘	new Hanping Chinese Dictionary Pro
6	new 바람의기억	new The City Mouse and The Country Mouse: HelloStory	new 와쳐 IF2
7	▽2 작업의 정석 - PUA가 추천하는 연애 교과서	new 제자성경찬송	new 와쳐 IF3
8	new 다역본 홀리바이블	new 김어준의 건투를 빈다	▽6 홀리바이블
9	new 만화 - 그녀의 유니폼<1권>	▽3 Cinderella: Hello Story	new 보카바이블 3.0
10	new 굿바이 게으름	new BroadwayBarks	▽9 DioDict 3 ENG-KOR Dictionary

* 아이폰/아이패드는 매출 기준, 안드로이드는 판매량 기준 / 순위 변동은 10위권 내에서의 전월 대비 변동을 기재한 것임
 * 출처: App Annie (www.appannie.com), 8월 9일 기준

01 출판

02 만화

03 음악

04 공연

05 게임

06 영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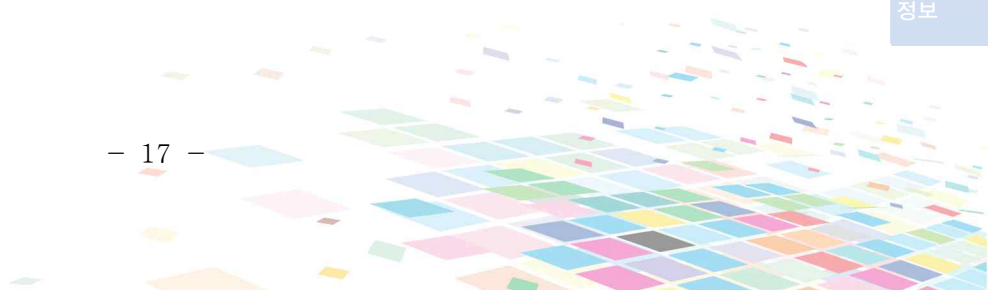
07 애니메이션

08 캐릭터

09 방송

10 광고

11 지식 정보





2012년 신간도서 발행 종수(출판유통진흥원 집계)는 2011년과 비교하여 소폭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발행부수(대한출판문화협회 집계)는 급격히 감소하는 추세이다. 7월의 발행종수는 전년대비 6.1% 증가하였으나 발행부수는 전년대비 1/3 이상 급감했다. 신규 출판사들이 늘어나는 만큼 발행종수는 명목상 증가하고 있으나 도서관매 기대치를 대변하는 발행부수는 지난해의 절반 수준에 불과해 경제 민감도가 높은 출판 시장의 어려움을 대변하고 있다.

▶ 신간도서 발행 현황

1. 신간도서(종이책) 발행 종수 (2009. 1. ~ 2012. 7.)

2009		2010		2011		2012		전년대비	
1월	7,044	1월	6,566	1월	5,789	1월	6,117	5.7%	
2월	5,879	2월	5,361	2월	4,683	2월	5,387	15.0%	
3월	5,827	3월	5,810	3월	5,217	3월	5,494	5.3%	
4월	4,779	4월	4,749	4월	4,004	4월	4,415	10.3%	
5월	4,130	5월	4,804	5월	4,016	5월	4,729	17.8%	
6월	4,681	6월	4,971	6월	4,025	6월	4,021	0.0%	
7월	4,838	7월	4,659	7월	4,059	7월	4,305	6.1%	
8월	5,162	8월	4,764	8월	4,829	-	-	-	
9월	5,139	9월	3,861	9월	3,917	-	-	-	
10월	4,248	10월	4,050	10월	4,195	-	-	-	
11월	4,872	11월	4,728	11월	4,688	-	-	-	
12월	5,893	12월	5,572	12월	5,024	-	-	-	
연간	62,492	연간	59,895	연간	54,446	-	-	-	

* 출처: 출판유통진흥원 (주요 도매상 및 중소형서점 입고도서 발행일 기준)

2. 신간도서(종이책) 분야별 발행 부수 (2010. 5. ~ 2012. 7.)

분야	2010. 5.	2010. 6.	2010. 7.	2011. 5.	2011. 6.	2011. 7.	2012. 5.	2012. 6.	2012. 7.
총류	78,800	101,990	133,287	85,460	61,400	101,100	80,000	58,370	96,500
철학	152,160	139,144	167,937	153,300	161,546	172,247	186,500	171,391	171,353
종교	433,980	288,600	418,450	369,000	313,475	303,500	266,319	229,110	152,400
사회과학	923,335	684,625	819,084	787,992	682,551	747,865	652,498	634,850	564,742
순수과학	48,400	40,930	55,697	73,761	72,150	83,500	34,300	29,200	65,100
기술과학	334,755	255,545	358,530	481,258	327,595	365,066	308,231	299,250	317,250
예술	212,550	206,597	208,884	194,564	185,230	168,750	160,400	140,020	123,800
언어	412,249	549,901	314,288	195,800	194,626	183,505	94,300	115,530	70,530
문학	1,617,215	1,505,152	1,761,426	1,503,010	1,427,690	1,469,294	1,340,260	1,101,090	1,015,458
역사	202,079	170,124	198,860	210,631	157,232	238,649	176,100	146,600	140,700
학습참고	1,560,831	2,728,478	1,087,000	2,029,636	1,284,700	1,271,111	708,500	1,005,662	354,800
아동	1,784,221	2,606,482	1,858,843	3,110,415	3,733,216	4,308,080	2,148,908	2,379,604	1,845,388
만화	852,420	875,670	831,980	806,912	809,076	763,932	726,530	648,410	243,960
총계	8,612,995	10,153,238	8,214,266	10,001,739	9,410,487	10,176,599	6,882,846	6,959,087	5,161,981

* 출처: 대한출판문화협회



분야별로 발행 종수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전 분야에 걸쳐 신간 발행의 의욕 저하가 뚜렷한 가운데, 학습참고서가 가장 많은 감소폭을 보였다. 7월에는 처음으로 아동 분야가 문학 분야보다 발행 종수를 앞질러 최근 문학서 발행 감소가 지표상으로 드러났다. 신간도서(종이책)는 아동, 문학, 사회과학, 만화, 기술과학, 철학 순으로 발행 종수가 많은 것으로 집계되었으며, 7월 신간도서의 평균 가격은 부담 없는 분량의 도서들이 출간되면서 전년 동월과 비슷한 수준인 12,657원으로 나타났다.

3. 신간도서(종이책) 분야별 발행 종수 (2010. 5. ~ 2012. 7.)

분야	2010. 5.	2010. 6.	2010. 7.	2011. 5.	2011. 6.	2011. 7.	2012. 5.	2012. 6.	2012. 7.
총류	38	55	60	50	42	53	36	34	27
철학	93	86	88	78	96	107	93	107	82
종교	202	169	138	179	187	142	154	126	75
사회과학	473	414	431	429	439	475	363	357	311
순수과학	27	30	36	48	46	39	23	17	34
기술과학	197	176	221	275	214	234	213	192	131
예술	117	153	154	122	119	104	113	85	68
언어	117	146	153	105	108	111	54	74	49
문학	731	753	806	763	765	784	706	567	426
역사	92	86	104	100	87	117	70	85	77
학습참고	174	322	150	273	199	178	109	102	37
아동	544	823	535	806	942	734	725	518	484
만화	411	500	423	563	523	561	470	449	215
총계	3,216	3,713	3,299	3,791	3,767	3,639	3,129	2,713	2,016

* 출처: 대한출판문화협회 (납본 기준 수치이므로 최근 발간 서적은 향후 집계량이 늘어날 수 있음)

4. 신간도서(종이책) 분야별 가격 (2010. 5. ~ 2012. 7.)

분야	2010. 5.	2010. 6.	2010. 7.	2011. 5.	2011. 6.	2011. 7.	2012. 5.	2012. 6.	2012. 7.
총류	18,953	20,224	16,607	19,308	22,376	17,108	24,531	19,400	16,648
철학	17,126	16,050	15,963	15,487	17,302	19,731	17,768	17,961	15,451
종교	12,216	11,747	13,857	13,293	12,364	13,737	14,443	14,663	13,156
사회과학	18,968	18,242	16,845	19,274	19,494	18,019	19,264	19,167	16,039
순수과학	20,541	23,600	17,494	20,150	20,413	20,038	21,339	30,529	17,868
기술과학	19,784	20,427	18,365	20,337	20,989	19,961	20,488	19,127	20,308
예술	19,211	18,967	14,679	20,130	17,829	17,338	20,600	21,816	16,965
언어	14,354	12,092	14,050	15,602	18,920	14,329	18,596	33,801	15,141
문학	10,108	10,204	10,928	10,468	11,431	10,920	11,256	11,322	11,339
역사	18,223	21,552	16,930	20,021	19,856	17,244	20,884	19,095	18,232
학습참고	9,637	8,702	8,632	10,588	10,078	11,113	11,443	12,128	10,230
아동	9,617	9,240	9,787	10,243	10,211	11,146	10,183	10,199	10,499
만화	4,315	4,148	4,327	4,544	4,480	4,616	4,748	4,664	4,497
총계	12,400	11,586	12,004	12,442	12,611	12,559	12,851	13,445	12,657

* 출처: 대한출판문화협회 (www.kpa21.or.kr)

01 출판

02 만화

03 음악

04 공연

05 게임

06 영화

07 애니메이션

08 캐릭터

09 방송

10 광고

11 지식 정보





01 출판

전자출판물 인증건수(한국전자출판협회 집계)는 시기별 변동폭이 큰 편이다. 2012년 7월은 4월과 5월의 수준인 2천 건 정도로 집계되었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5~7월의 인증건수는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6월에 예외적으로 5만 건 이상이었던 이유는 학술논문의 대량 등록에 따른 영향이었다.

7월 정기간행물 현황(문화체육관광부 집계)은 13,879종이 등록되어 있는데, 이 중 월간지가 4,351종, 인터넷신문이 3,656종, 주간지가 2,818종으로 집계되었다. 정기간행물의 등록 건수는 꾸준히 늘어나고 있으며 인터넷 신문이 가장 많이 증가하고 있다. '주간지'와 교차로 등 지역 정보지 성격의 '기타 일간지'는 경영 위기로 인한 폐간으로 소폭 감소하였다.

02 만화

03 음악

▶ 전자출판물 / 정기간행물 현황

1. 전자출판물 분야별 인증건수 (2010. 5. ~ 2012. 7.)

분야	2010. 5.	2010. 6.	2010. 7.	2011. 5.	2011. 6.	2011. 7.	2012. 5.	2012. 6.	2012. 7.
총류	5,165	462	777	277	558	540	324	1,106	297
철학	305	56	152	2	4	3	15	1,088	4
종교	3,497	5,970	1,393	0	2	3	26	1,494	10
사회과학	6266	4,134	4,656	7	32	7	68	12,771	6
순수과학	1,515	962	386	1	0	11	7	2,601	7
기술과학	8,778	2,916	4,418	2	305	18	402	23,066	55
예술	4,743	1,352	1,991	419	1,184	115	23	4,516	794
언어	538	110	168	1	269	219	72	2,034	17
문학	7,450	4,864	4,243	13	1,784	166	1,259	3,727	750
역사	1089	1,620	1,290	1	16	13	11	2,227	0
총계	39,346	22,446	19,474	723	4,154	1,095	2,207	54,630	1,940

* 출처: 한국전자출판협회 (www.kepa.or.kr)

04 공연

05 게임

06 영화

07 애니메이션

2. 정기간행물 등록 현황 (2007 ~ 2012. 7.)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4.	2012. 5.	2012. 6.	2012. 7.
일간신문	281	275	237	673	615	608	612	613	616
통신	3	3	4	5	12	16	16	16	16
기타일간	360	331	419	4	73	81	82	82	78
주간	2,887	2,788	2,653	2,868	2,891	2,814	2,833	2,849	2,818
월간	3,257	3,243	5,257	3,936	4,209	4,253	4,305	4,330	4,351
격월간	453	435	670	542	584	595	603	605	605
계간	986	973	1,514	1,161	1,266	1,290	1,297	1,306	1,317
연2회	325	322	509	408	425	413	418	374	422
인터넷 신문	927	1,282	1,698	2,484	3,193	3,450	3,521	3,599	3,656
합계	9,479	9,652	12,961	12,081	13,268	13,520	13,687	13,774	13,879

*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2012. 7. 31. 기준)

08 캐릭터

09 방송

10 광고

11 지식 정보



02 만화

한국만화 단행본 판매 상위 10위 중 웹툰이 8권(1, 3, 4, 6, 7, 8, 9, 10위)을 차지하며 단행본 시장에서 웹툰의 인기가 지속되었다. 7월 한국만화 베스트셀러 순위에서는 6월에 이어 네온비 작가의 '다이어터'가 1위를 차지했다. '다이어터'는 현대인의 비만강박증을 다룬 작품으로 <다음 만화속세상>에서 인기리에 연재되었다. 현재 연재가 종료된 상태로 대만, 태국, 베트남 등 해외출판이 확정되었고, 국내 영화사와 판권 계약이 체결되는 등 국내외에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한편 드라마 방영과 함께 재조명되고 있는 허영만의 '각시탈'이 2위에, 카툰에세이 장르를 개척한 만화로 평가받는 파페포포 시리즈의 최신작 '파페포포 기다려'가 3위에 올랐다.

외국만화 순위에서는 6월에 이어 '원피스'가 1위에 올랐다. 외국만화 순위에서는 '명탐정 코난', '심야식당', '신의 물방울', '나루토'처럼 장기간 연재되고 있는 인기 시리즈가 고정 독자층을 바탕으로 높은 판매고를 보이고 있다.

출판만화 베스트셀러 TOP 10

1. 한국만화 베스트셀러 (7월)

순위	도서명	작가	출판사	장르	출간일
1	다이어터	네온비 글, 캐러멜 그림	중앙북스	웹툰/카툰에세이	2012.07.13
2	각시탈	허영만 글/그림	거북이북스	액션/무협만화	2012.06.15
3	파페포포 기다려	심승연 글/그림	홍익출판사	웹툰/카툰에세이	2012.04.13
4	창백한 말	추혜연 글/그림	중앙위즈	웹툰/카툰에세이	2012.05.23
5	궁	박소희 글/그림	서울문화사	순정만화	2012.06.25
6	마음의 소리 Ver. 1(2012)	조석 글/그림	코리아하우스	웹툰/카툰에세이	2012.04.05
7	이런 영웅은 싫어	삼촌 글/그림	길찾기	웹툰/카툰에세이	2012.06.15
8	어쿠스틱 라이프	난다 글/그림	애니북스	웹툰/카툰에세이	2012.08.08
9	피크(PEAK)	홍성수 글, 임강혁 그림	영상노트	웹툰/카툰에세이	2012.06.01
10	신과 함께	주호민 글/그림	애니북스	웹툰/카툰에세이	2011.11.11

* 집계방식: 시리즈는 합산하였으며, 주요 6개 서점의 순위에 가중치 적용하여 순위산정 (교보문고:8, YES24:6, 인터파크:3, 리브로:2, 알라딘:3, 반디앤루니스:1)

* 출처: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자료제공, 한국콘텐츠진흥원 재구성

2. 외국만화 베스트셀러 (7월)

순위	도서명	작가	출판사	장르	출간일
1	원피스	오다 에이치로	대원씨아이	SF/판타지	2012.06.30
2	명탐정 코난	Aoyama Gosho	서울문화사	탐정/추리	2012.07.25
3	심야식당	Abe Yaro	미우	요리만화	2012.05.15
4	신의 물방울	Tadashi Agi 글, Shu Okimoto 그림	학산문화사	직업만화	2012.05.25
5	나루토	Masashi Kishimoto 글, Masashi Kishimoto 그림	대원씨아이	액션/무협만화	2012.05.30
6	흑집사	Yana Toboso	학산문화사	SF/판타지	2012.06.29
7	마요치키	아사노 하지메 글, 키쿠치 세이지 그림	디앤씨미디어	학원만화	2011.12.10
8	블리치	Tite Kudo	서울문화사	SF/판타지	2012.06.30
9	디 그레이맨	Katsura Hoshino	대원씨아이	SF/판타지	2012.08.15
10	바쿠만	Tsugumi Ohba 글, Takeshi Obata 그림	대원씨아이	직업만화	2012.05.30

* 집계방식: 시리즈는 합산하였으며, 주요 6개 서점의 순위에 가중치 적용하여 순위산정 (교보문고:8, YES24:6, 인터파크:3, 리브로:2, 알라딘:3, 반디앤루니스:1)

* 출처: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자료제공, 한국콘텐츠진흥원 재구성

01

출판

02

만화

03

음악

04

공연

05

게임

06

영화

07

애니메이션

08

캐릭터

09

방송

10

광고

11

지식정보



7월 만화소설(라이트노벨) 베스트셀러 순위에서는 일본 소설 ‘소드 아트 온라인’이 1위에 올랐다. ‘소드 아트 온라인’은 원작의 인기에 힘입어 현재 일본에서 애니메이션이 제작, 방영 중이다. 일본 작품들이 강세를 보이는 가운데 국내 작품으로는 노블엔진에서 출판된 ‘소드걸스’와 ‘기신전기 던브링어’가 각각 8위와 10위에 올랐다.

3. 만화소설 (라이트노벨) 베스트셀러 (7월)

순위	도서명	작가	출판사	가격	출간일
1	소드 아트 온라인	카와하라 레키 글, abec 그림	J NOVEL	6,300	2012.07.10
2	나는 친구가 적다!	히라사카 요미 글, 브리키 그림	학산문화사	6,120	2012.06.07
3	액셀월드	카와하라 레키 글, HIMA 그림	서울문화사	6,300	2012.06.11
4	오빠지만 사랑만 있으면 상관없잖아?	스즈키 다이세키 글 우루우 갓바 그림	학산문화사	6,120	2012.04.07
5	바보와 시험과 소환수	이노우에 켄지 글, 하카 유키 그림	대원씨아이	6,300	2012.06.15
6	마탄의 왕과 바나디스	카와구치 츠카사 글, 요시오 그림	학산문화사	6,120	2012.06.07
7	기어와라! 냐루코 양	아이소라 만타 글, 코인 그림	L노벨	4,800	2010.08.10
8	소드걸스	류세린 글, SALT 그림	노블엔진	6,120	2012.07.01
9	널 오타쿠로 만들어줄 테니까, 날 리얼충으로 만들어줘!	무라카미 린 글, 아나퐁 그림	대원씨아이	6,300	2012.06.15
10	기신전기 던브링어	홍정훈 글, K KUEM 그림	노블엔진	5,850	2012.06.01

* 집계방식: 시리즈는 합산하였으며, 주요 6개 서점의 순위에 가중치 적용하여 순위산정 (교보문고:8, YES24:6, 인터파크:3, 리브로:2, 알라딘:3, 반디앤루니스:1)

* 출처: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자료제공, 한국콘텐츠진흥원 재구성

01
출판

02
만화

03
음악

04
공연

05
게임

06
영화

07
애니메이션

08
캐릭터

09
방송

10
광고

11
지식정보



7월 만화 단행본 출간 종수는 259종으로 작년 동기와 비교하여 73종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002년 이후 급격히 감소했던 만화출간종수는 2010년 잠시 반등했다가 다시 감소하고 있다. 이는 출판 시장 자체의 축소와 더불어 스마트기기를 이용한 웹툰 소비 증가의 영향도 일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최근 4년간 5~7월에 출간된 만화의 장르를 살펴보면, 성인/성애 소설이 807종으로 가장 많았고, 순정 만화가 695종으로 그 뒤를 이었다. 드라마·판타지는 각각 500종 이상 출간되며 적지 않은 종수를 기록했고, 학원·코믹·에세이툰·SF도 각각 100종 이상을 출간한 것으로 조사됐다.

▶ 만화 단행본 출간 현황

1. 만화 출간 종수 추이 (2012. 1. ~ 2012. 7.)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합계
2002	689	622	696	729	698	540	627	4,601
2003	612	569	566	566	578	581	603	4,075
2004	522	531	520	462	466	464	513	3,478
2005	366	396	428	399	385	415	368	2,757
2006	393	382	351	329	351	318	332	2,456
2007	330	308	322	300	295	331	321	2,207
2008	308	294	330	319	334	323	338	2,246
2009	263	308	345	296	300	306	339	2,157
2010	305	282	317	337	345	339	401	2,326
2011	317	272	318	326	291	301	328	2,153
2012	285	316	301	311	280	280	259	2,032

* 출처: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자료제공, 한국콘텐츠진흥원 재구성

2. 장르별 만화 출간 현황 (5월~7월)

장르	2009. 5.	2009. 6.	2009. 7.	2010. 5.	2010. 6.	2010. 7.	2011. 5.	2011. 6.	2011. 7.	2012. 5.	2012. 6.	2012. 7.	합계
성인/성애	71	74	79	54	63	95	51	50	61	65	69	75	807
순정	69	68	88	68	71	60	41	54	47	54	37	38	695
판타지	39	42	35	39	53	41	49	51	47	43	45	38	522
드라마	41	27	37	53	45	69	52	50	55	37	33	41	540
학원	6	14	14	10	19	10	7	11	10	17	19	7	144
코믹	14	14	7	10	27	11	3	8	18	15	7	17	151
에세이툰	4	10	10	25	12	20	14	15	16	13	12	7	158
공포	3	13	-	6	8	-	3	14	-	7	12	-	66
액션	6	13	2	8	9	10	10	11	3	6	7	11	96
SF	13	13	21	12	8	11	18	7	16	5	6	7	137
기타	34	18	46	60	24	74	43	30	55	18	33	18	453
합계	300	306	339	345	339	401	291	301	328	280	280	259	3,769

* 기타(2012. 7.) : 스포츠 5종, 기타 13종

* 출처: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자료제공, 한국콘텐츠진흥원 재구성

01 출판

02 만화

03 음악

04 공연

05 게임

06 영화

07 애니메이션

08 캐릭터

09 방송

10 광고

11 지식정보



01
출판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최근 4년간 5~7월까지 국내에서 출간된 819종의 만화 중 한국작가의 작품은 249종으로 30.4%를, 일본작가의 작품은 556종으로 67.9%를 기록했다. 두 국가의 출간 종수 합계는 전체 만화 출간 종수의 98.3%를 차지한다. 기타 국가 출신 작가의 만화 단행본 출간은 14종(1.7%)에 그쳤다.

02
만화

출판사별 만화 출간 종수에서는 2012년 5~7월 누적 기준으로 대원씨아이가 227종, (주)학산문화사가 212종을 발간하며 타 출판사에 비해 4배가량 많은 종수를 출간했다. 3대 만화출판사 중 하나인 서울문화사는 57종을 출간하는데 그치며 최근의 위축세가 이어졌고, 다른 출판사들은 50종 이하의 도서를 출간한 것으로 조사됐다.

만화 단행본의 7월 평균정가는 6,057원으로, 6월 6,516원에 비해 459원 하락했다. 2011년 5월을 제외하면 만화 단행본의 평균정가는 5천원에서 6천 원대 중반의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으며, 2010년 이후에는 6천 원 이상의 가격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03
음악

3. 국적별 만화 출간 현황 (5~7월)

구분	2009. 5.	2009. 6.	2009. 7.	2010. 5.	2010. 6.	2010. 7.	2011. 5.	2011. 6.	2011. 7.	2012. 5.	2012. 6.	2012. 7.	합계
한국작가	87	99	116	107	112	185	84	85	101	83	81	85	249(30.4%)
일본작가	211	201	221	222	224	206	194	208	200	192	194	170	556(67.9%)
기타	2	6	2	16	3	10	13	8	27	5	5	4	14(1.7%)
합계	300	306	339	345	339	401	291	301	328	280	280	259	819(100%)

* 출처: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자료제공, 한국콘텐츠진흥원 재구성

04
공연

4. 출판사별 만화 출간 종수 (5~7월)

구분	2009. 5.	2009. 6.	2009. 7.	2010. 5.	2010. 6.	2010. 7.	2011. 5.	2011. 6.	2011. 7.	2012. 5.	2012. 6.	2012. 7.
대원씨아이(주)	77	70	62	91	88	77	79	82	80	78	73	76
(주)학산문화사	71	75	69	81	81	74	72	70	72	71	76	65
(주)서울문화사	39	43	43	37	40	43	38	36	37	22	18	17
현대지능개발사	21	21	19	13	15	18	15	17	14	15	20	15
도서출판 우신	8	15	15	7	11	17	10	10	13	13	14	16
(주)삼양출판사	13	15	18	24	28	30	9	8	7	8	9	12
도서출판 자유구역	8	6	9	8	6	8	9	7	12	10	7	8
도서출판 우보	6	3	2	4	4	4	2	4	4	6	4	8

* 월 3종 이상 출간 출판사 대상

* 출처: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자료제공, 한국콘텐츠진흥원 재구성

06
영화

5. 만화 단행본 평균정가 (5~7월)

구분	2009. 5.	2009. 6.	2009. 7.	2010. 5.	2010. 6.	2010. 7.	2011. 5.	2011. 6.	2011. 7.	2012. 5.	2012. 6.	2012. 7.
평균정가 (원)	4,962	5,262	5,363	5,762	5,928	6,252	7,435	6,241	6,395	6,156	6,516	6,057

* 출처: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자료제공, 한국콘텐츠진흥원 재구성

07
애니
메이션

08
캐릭터

09
방송

10
광고

11
지식
정보



2012년 7월 만화소설 및 장르소설은 전월 대비 72종이 감소한 348종이 출간되었다. 전년 동월의 404권에 비해 서도 56권이 줄어들었다. 올해는 작년에 비해 조금 줄어들긴 했지만 매월 300~400여종이 꾸준히 출간되며 7월까지 2,588종을 기록하고 있다. 2010년을 기점으로 만화소설 및 장르소설의 출간 종수는 조금씩 하락하고 있으나 다른 출판 분야에 비해선 감소폭이 크지 않은 편이다.

7월 장르별 출간 현황에서는 6월에 이어 판타지의 출간종수가 231종으로 가장 많았고, 무협, 로맨스가 각각 57종, 42종으로 그 뒤를 이었다. 판타지 장르의 비율은 전체의 66%이고 상위 3개 장르의 합산 비율은 전체의 95%에 이를 정도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만화소설(라이트노벨) / 장르소설 현황

1. 만화소설 / 장르소설 출간 종수 (1~7월)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합계
2002	70	62	71	54	76	61	91	485
2003	109	132	122	125	121	118	164	891
2004	304	309	318	275	280	303	339	2,128
2005	338	302	325	317	285	316	365	2,248
2006	294	312	316	331	313	310	330	2,206
2007	324	316	355	350	371	355	367	2,438
2008	363	312	354	343	334	330	401	2,437
2009	373	352	373	380	386	362	425	2,651
2010	389	331	398	387	391	395	440	2,731
2011	391	338	412	412	371	363	404	2,691
2012	333	355	421	348	363	420	348	2,588

* 출처: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자료제공, 한국콘텐츠진흥원 재구성

2. 만화소설 / 장르소설 장르별 출간 현황 (5~7월)

구분	2009. 5.	2009. 6.	2009. 7.	2010. 5.	2010. 6.	2010. 7.	2011. 5.	2011. 6.	2011. 7.	2012. 5.	2012. 6.	2012. 7.
판타지	205	197	228	223	228	261	220	224	236	252	253	231
무협	94	83	96	86	99	124	104	103	111	59	108	57
로맨스	71	53	71	52	54	47	36	31	44	49	52	42
일반	13	14	15	24	7	7	7	4	12	1	6	10
추리	-	2	5	-	1	-	2	1	1	2	1	1
N세대	3	9	4	2	-	-	2	-	-	-	-	-
기타	-	4	6	4	6	1	-	-	0	-	-	7*
합계	386	362	425	391	395	440	371	363	404	363	420	348

* 기타(2012. 7) : 공포 5종, 성인 2종

* 출처: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자료제공, 한국콘텐츠진흥원 재구성

01 출판

02 만화

03 음악

04 공연

05 게임

06 영화

07 애니메이션

08 캐릭터

09 방송

10 광고

11 지식정보



01
출판

2012년 5~7월 만화소설 및 장르소설의 국적별 출간종수는 한국이 938종으로 82.9%를, 일본이 168종으로 14.9%를 점유했다. 2009년 동기 대비 한국 작가의 소설 출간 종수는 87종 하락했으며, 한국작품 비율이 87%를 기록했던 2009년에 비하면 2012년의 한국작가 비중은 4.1%p 감소했다.

5~7월까지의 출판사별 출간 현황을 살펴보면 디앤씨미디어가 매월 가장 많은 종수의 만화소설/장르소설을 출간하고 있다. 4개의 출판사는 2012년 5~7월까지 100종이 넘는 소설을 출간했고, 80종 이상을 출간한 출판사도 3개사나 된다. 또한 2009년 동기간 873종이었던 출간 종수는 2012년에는 1,030종에 달해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

02
만화

3. 만화소설 / 장르소설 국적별 출간 종수 (5~7월)

구분	2009. 5.	2009. 6.	2009. 7.	2010. 5.	2010. 6.	2010. 7.	2011. 5.	2011. 6.	2011. 7.	2012. 5.	2012. 6.	2012. 7.	합계
한국작가	339	316	370	332	339	383	305	305	349	301	352	285	938
일본작가	36	35	43	37	43	46	56	47	45	54	59	55	168
기타	11	11	12	22	13	11	10	11	10	8	9	8	25
합계	386	362	425	391	395	440	371	363	404	363	420	348	1,131

* 출처: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자료제공, 한국콘텐츠진흥원 재구성

03
음악

04
공연

4. 만화소설 / 장르소설 주요 출판사별 출간 종수 (5~7월)

구분	2009. 5.	2009. 6.	2009. 7.	2010. 5.	2010. 6.	2010. 7.	2011. 5.	2011. 6.	2011. 7.	2012. 5.	2012. 6.	2012. 7.
디앤씨미디어	34	43	44	38	42	44	38	38	45	75	47	49
(주)로코미디어	37	37	37	41	44	43	39	39	40	36	43	39
도서출판 영상노트	24	25	27	27	19	25	38	39	43	43	41	32
도서출판 불미디어	21	23	26	41	32	48	47	48	53	39	30	31
(주)루트미디어	-	-	-	-	4	3	18	12	22	36	29	28
(주)마루-마야출판사	29	31	34	29	32	32	30	24	28	33	29	26
도서출판 청어람	24	36	29	22	25	24	23	19	24	32	27	23
어울림 출판사	12	13	15	22	18	25	20	22	25	21	21	23
대원씨아이(주)	21	17	24	23	18	20	16	19	12	13	10	13
(주)신영미디어	12	14	15	14	13	12	13	12	14	14	13	13
(주)학산문화사	12	10	10	11	8	12	9	16	9	10	10	13
(주)삼양출판사	16	10	14	9	15	17	17	16	15	12	9	10
(주)서울문화사	12	10	9	9	9	10	12	12	12	12	11	10
도서출판 동아	20	19	27	15	18	21	11	11	8	8	11	5

* 5~7월 10종 이상 출간 출판사 대상

* 출처: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자료제공, 한국콘텐츠진흥원 재구성

05
게임

06
영화

07
애니메이션

08
캐릭터

09
방송

10
광고

11
지식정보



7월 일일만화 출간 종수는 316종을 기록했다. 6월에 비해 다소 증가했으나 4, 5월의 수준을 회복하지는 못했다. 1월부터 7월까지의 2012년 누적 출간종수는 2,464종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77건 증가한 수치로, 2010년을 제외하면 지난 10년간의 출간 평균치와는 큰 차이가 없는 수준이다.

일일만화의 시장규모를 추정해 보면, 7월에는 316종의 만화가 총 208,560부 발행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1종당 660부에 해당하는 부수이다. 1월에서 7월까지 일일만화는 총 162만부가 발행되어 65억 원 가량의 시장규모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 일일만화 출간 현황

1. 일일만화 출간 종수 (2002년 ~ 2012년)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합계
2002	347	344	391	398	357	333	398	2,568
2003	447	353	443	392	404	379	437	2,855
2004	439	428	435	394	409	426	372	2,903
2005	431	361	478	454	463	470	468	3,125
2006	426	385	403	392	422	374	410	2,812
2007	410	350	453	398	455	422	433	2,921
2008	354	334	429	405	375	341	425	2,663
2009	423	386	399	384	366	385	431	2,774
2010	299	296	350	283	158	244	285	1,915
2011	352	348	443	335	258	305	246	2,287
2012	271	388	415	392	387	295	316	2,464

* 출처: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자료제공, 한국콘텐츠진흥원 재구성

2. 일일만화 월별 시장규모 추이 (2012. 1. ~ 2012. 7.)

구분	출간종수	발행부수	시장규모 (천 원)
1월	271	178,860	715,440
2월	388	256,080	1,024,320
3월	415	273,900	1,095,600
4월	392	258,720	1,034,880
5월	387	255,420	1,021,680
6월	295	194,700	778,800
7월	316	208,560	834,240
합계	2,464	1,626,240	6,504,960

* 출처: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자료제공, 한국콘텐츠진흥원 재구성

01 출판

02 만화

03 음악

04 공연

05 게임

06 영화

07 애니메이션

08 캐릭터

09 방송

10 광고

11 지식 정보



작가별 출간 현황을 살펴보면 황성 작가가 79종으로 7월에 가장 많은 종의 만화를 출간했고, 76종의 야설록 작가가 뒤를 이었다. 만화방을 기반으로 매일 연재되는 일일만화의 특성상 단일 작가가 매달 30종 가량의 만화를 꾸준히 출간하는 경우가 많다.

3. 일일만화 작가별 출간 현황 (2012. 1. ~ 2012. 7.)

구분	2009. 7	2010. 7	2011. 7	2012. 7	합계
황성	65	101	79	79	324
야설록	60	34	46	76	216
사마달	46	30	20	38	134
묵검향	-	-	18	33	51
김성동	54	-	12	32	98
고행석	55	60	-	31	146
박봉성	58	7	-	15	80
신형빈	8	-	57	10	75
하승남	53	16	14	2	85
오일룡	16	16	-	-	32
조명운	16	21	-	-	37

01
출판

02
만화

03
음악

04
공연

05
게임

06
영화

07
애니
메이션

08
캐릭터

09
방송

10
광고

11
지식
정보



01 출판

02 만화

03 음악

04 공연

05 게임

06 영화

07 애니
메이션

08 캐릭터

09 방송

10 광고

11 지식
정보

7월 <네이버 만화> 인기순위(조회수 기준)에서는 6월에 이어 ‘노블레스’가 1위를 차지했다. ‘노블레스’는 누적 조회수가 7억 회 이상에 달하는 웹툰계의 베스트셀러로, 820년 만에 깨어난 뱀파이어가 보통의 고등학생처럼 지내며 겪는 사건을 담고 있는 판타지 학원 만화이다. 2006년부터 장기간 연재 중인 조석의 ‘마음의 소리’는 2위로 한 단계 상승했다. 5위에 오른 ‘절벽귀’는 절벽 한가운데에 고립된 두 친구의 이야기를 다룬 단편 스타일로 연재와 동시에 새롭게 순위권에 진입했다.

<다음 만화속 세상>에서는 영화 ‘이끼’의 원작자인 윤태호 작가의 ‘미생’이 1위에 올랐다. ‘미생’은 프로입문에 실패한 바둑기사가 대기업 인턴 사원으로 취직하면서 겪는 일을 그린 만화로 사회생활을 바둑에 비유해 큰 인기를 얻고 있다. 뒤를 이어 7월 중순 연재가 종료된 네온비, 캐러멜 작가의 ‘다이어터’가 2위를 차지했다.

▶ 웹툰 서비스별 인기순위 (7월)

1. 네이버 만화 TOP 10

순위	변동	작품	작가명	연재기간	별점
1	-	노블레스	손제호 / 이광수	2007.12.30. ~ 연재 중	9.8
2	+1	마음의 소리	조석	2006.09.08. ~ 연재 중	9.6
3	+2	신의 탑	SIU	2010.06.30. ~ 연재 중	9.9
4	-	갯 오브 하이스쿨	박용제	2011.04.08. ~ 연재 중	9.7
5	new	절벽귀	오성대	2012.07.04. ~ 연재 중	9.8
6	-	역전! 야매요리	정다정	2011.12.05. ~ 연재 중	9.9
7	+2	신과 함께	주호민	2010.01.08. ~ 연재 중	9.9
8	-1	고삼이 집나갔다	미티	2011.11.06. ~ 연재 중	9.9
9	+1	농지마 정신줄	스튜디오 농정	2009.08.27. ~ 연재 중	9.9
10	new	격투기특성화사립고교 극지고	허일	2011.10.15. ~ 연재 중	9.8

* 출처 : 네이버 만화 (8월 6일 조회수 기준)

2. 다음 만화속세상 TOP 7

순위	변동	작품	작가명	연재기간	별점
1	+3	미생	윤태호	2012.01.20. ~ 연재 중	9.8
2	-1	다이어터	네온비, 캐러멜	2011.02.23. ~ 연재 종료(7월)	9.7
3	-	어쿠스틱 라이프	난다	2010.08.11. ~ 연재 중	9.6
4	+3	말에서 내리지 않는 무사	허영만	2010.10.01. ~ 연재 중	9.6
5	new	피노키오	마루	2011.04.06. ~ 연재 중	9.7
6	new	카산드라	이하진	2012.05.25. ~ 연재 중	9.6
7	new	개와 토끼의 주인	이원진	2012.04.24. ~ 연재 중	9.6

* 출처 : 다음 만화속세상 (8월 6일 주간 인기 웹툰 기준)



01

출판

02

만화

03

음악

04

공연

05

게임

06

영화

07

애니
메이션

08

캐릭터

09

방송

10

광고

11

지식
정보

웹툰 서비스 이용통계에 따르면, <네이버 만화>는 7월 한 달간 710만 명의 순방문자수와 이용자 1인당 83분의 월평균체류시간을, <다음 만화속세상>은 303만 명의 순방문자수와 57분의 월평균체류시간을 기록했다. 6월 대비 <네이버 만화> 순방문자수는 183,704명 증가한 반면 월평균체류시간은 2분가량 하락했고, <다음 만화속 세상>의 순방문자수는 44,049명 하락했으나 월평균체류시간은 5분가량 상승했다. 해당 조사는 PC 이용자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모바일 이용량을 더했을 때에는 추이가 달라질 수 있다.

▶ 웹툰 서비스 이용통계 (7월)

서비스명	순방문자 ¹⁾	도달률(% ²⁾	월평균체류시간(분) ³⁾	월평균재방문일수(일) ⁴⁾	평균페이지뷰(월) ⁵⁾
네이버 만화	7,103,252	21.16	82.87	4.59	107.72
다음 만화속세상	3,033,127	9.03	57.49	3.54	64.09

* 출처: 닐슨 코리아클릭 (www.koreanclick.com)

- 1) 순방문자: 해당 기간 동안 웹사이트를 적어도 1번 이상 방문한 이용자
- 2) 도달률: 전체 인터넷 이용자수 대비 순방문자수의 비율
- 3) 평균체류시간: 측정기간 중 순방문자 1인당 발생시킨 체류시간의 평균을 의미
- 4) 평균재방문일수: 측정기간 중 해당사이트에 방문한 순방문자 1인당 평균 재방문한 일의 수
- 5) 평균페이지뷰: 측정기간 중 해당사이트에 방문한 순방문자 1인당 조회한 평균 페이지 조회수



03 음악

7월 가온 디지털 음악 종합차트에서는 2NE1의 새 싱글 〈I Love You〉의 수록곡 'I Love You'가 1위에 올랐다. 7월 3일 발매된 티아라의 'DAY BY DAY'는 2위를 기록했고, 씨스타의 여름 스페셜 앨범 'Loving U'가 3위에 오르며 여성 그룹들의 곡이 1위에서 3위까지를 차지했다.

7월의 음악 시장은 싸이의 〈싸이6甲 Part 1〉, 슈퍼 주니어의 〈Sexy, Free & Single〉, 보아의 〈Only One〉 등 대형 가수들의 복귀 앨범 발매가 이어졌고, 신사의 품격, 빅, 각시탈 등 인기 드라마의 OST 수록곡들도 꾸준한 사랑을 받았다.

▶ 디지털 음악 종합 TOP 20 (7월)

순위	변동	곡명	앨범명	아티스트	제작사	가온지수
1	New	I Love You	I Love You (Single)	2NE1	YG Entertainment	151,627,608
2	New	DAY BY DAY	DAY BY DAY	티아라	코어콘텐츠미디어	137,687,085
3	△50	Loving U	Loving U	씨스타	스타쉽엔터테인먼트	134,246,524
4	New	강남스타일	싸이6甲 Part 1	싸이	YG Entertainment	125,951,529
5	New	내 사랑아	신사의 품격 OST Part 5	이종현	화앤담픽처스	84,645,127
6	-	정말로 사랑한다면	버스커 버스커 1집 마무리	버스커 버스커	CJ E&M	80,586,036
7	△8	가슴이 시린 게	신사의 품격 OST Part 3	이현(8Eight)	화앤담픽처스	76,941,477
8	△46	illa illa (일라 일라)	My First June	주니엘	F&C Music, CJ E&M	69,730,482
9	New	방구석 날라리	방구석 날라리	처진 달팽이	뮤직팜	67,096,540
10	△31	한사람	'허각-한사람' 빅 OST	허각	CJ E&M & 본팩토리	66,512,214
11	New	Midnight (별 헤는 밤)	Midnight (별 헤는 밤)	비스트	큐브엔터테인먼트	63,725,949
12	New	Sexy, Free & Single	Sexy, Free & Single	슈퍼주니어	SM Entertainment	63,314,962
13	△16	충분히 예뻐	10년동안의오독1	버벌진트	브랜뉴뮤직	58,272,647
14	▽11	Electric Shock	'Electric Shock' The 2nd Mini Album	f(x)	SM Entertainment	57,763,147
15	▽3	그댈 마주하는건 힘들어 (그마침)	버스커 버스커 1집 마무리	버스커 버스커	CJ E&M	56,112,673
16	New	뜨거운 안녕 (Feat. 성시경)	싸이6甲 Part 1	싸이	YG Entertainment	54,963,170
17	New	한여름밤의 꿈	Brown Eyed Girls The Original	브라운 아이드 걸스	내가 네트워크	49,166,775
18	△60	안되겠더라	각시탈 OST Part.2	포맨	더그루브엔터테인먼트& 허브엔터테인먼트	47,955,557
19	▽18	Like this	Wonder Party	원더걸스	JYP Entertainment	47,536,927
20	New	Only One	Only One	보아(BoA)	SM Entertainment	46,309,712
합계						1,540,146,141

* 순위 집계 : 스트리밍 + 다운로드 + BGM 판매량 + 모바일 판매량

* 출처 : 가온차트 (www.gaonchart.co.kr),

01
출판

02
만화

03
음악

04
공연

05
게임

06
영화

07
애니
메이션

08
캐릭터

09
방송

10
광고

11
지식
정보



01 출판

02 만화

03 음악

04 공연

05 게임

06 영화

07 애니메이션

08 캐릭터

09 방송

10 광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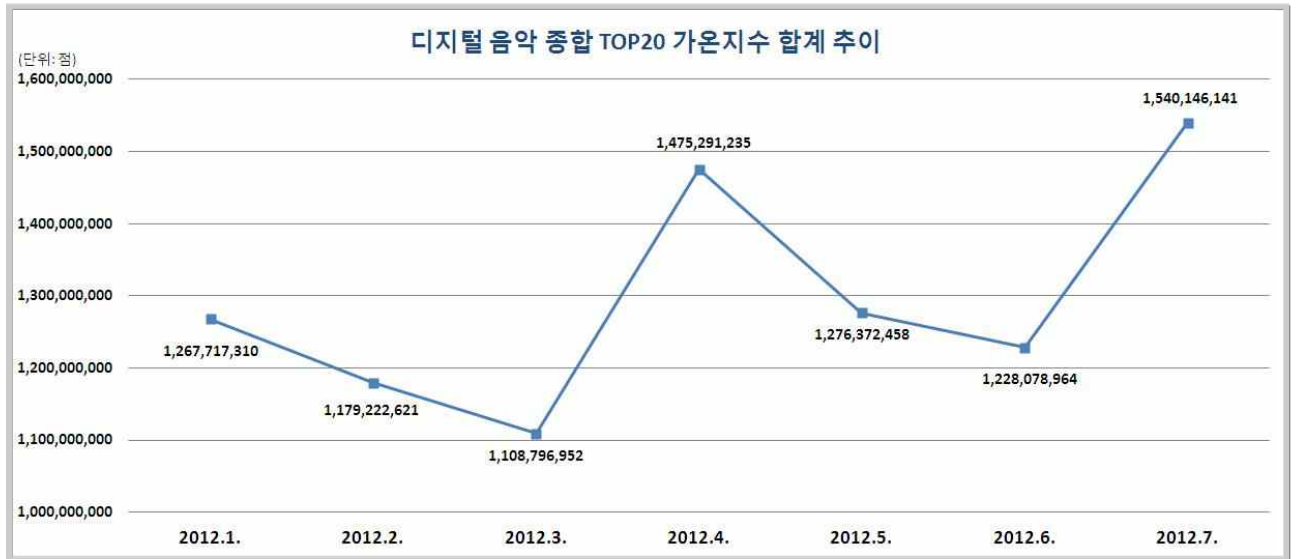
11 지식정보

1~7월 디지털 음악 종합차트 추이를 살펴보면 4월 이후 하락하던 지수가 7월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다. 7월은 6월과 비교해 312,067,177점이 상승하였으며, 이는 해당 기간 중 가장 높은 점수이다.

1월에서 7월까지 디지털 음악 종합 TOP3를 살펴보면 15곡을 순위에 올린 아이돌 그룹의 강세를 확인할 수 있다. 린의 '시간을 거슬러'는 드라마 해를 품은 달의 인기와 함께 2월 높은 순위를 기록했고, 슈퍼스타 K를 통해 데뷔한 버스커버스커는 4월 TOP 3에 두 곡을 올리며 많은 사랑을 받았다.

▶ 디지털 음악 종합 TOP 20 가온지수 합계 추이 (2012. 1. ~ 2012. 7.)

구분	2012. 1.	2012. 2.	2012. 3.	2012. 4.	2012. 5.	2012. 6.	2012. 7.
가온지수	1,267,717,310	1,179,222,621	1,108,796,952	1,475,291,235	1,276,372,458	1,228,078,964	1,540,146,141



▶ 2012년 디지털 음악 종합 TOP 3 (2012. 1. ~ 2012. 7.)

구분	1위	2위	3위
2012. 1.	티아라 / Lovey-Dovey	다이내믹 듀오 / 거기서거기	10cm / 애상
2012. 2.	빅뱅 / BLUE	린 / 시간을 거슬러	F.T Island / 지독하게
2012. 3.	빅뱅 / FANTASTIC BABY	2AM / 너도 나처럼	빅뱅 / BLUE
2012. 4.	버스커 버스커 / 벚꽃 엔딩	씨스타 / 나혼자	버스커버스커 / 첫사랑
2012. 5.	소녀시대-태티서 / Twinkle	아이유 / 하루 끝	백지영 / 목소리(Feat. 개리 of 리쌍)
2012. 6.	원더걸스 / Like this	빅뱅 / MONSTER	f(x) / Electric Shock
2012. 7.	2NE1 / I Love You	티아라 / DAY BY DAY	씨스타 / Loving U

* 출처 : 가온차트 (www.gaonchart.co.kr), 한국콘텐츠진흥원 채구성



7월 오프라인 앨범 차트에서는 7월 1일에 발매된 슈퍼주니어의 6집 〈Sexy, Free & Single〉이 약 33만 5천장의 판매량을 기록하며 1위를 차지했다. 〈Sexy, Free & Single〉은 빅뱅의 〈ALIVE〉 앨범을 제치고 2012년 7월까지의 단일 앨범 판매량 1위에도 올랐다. 비스트의 〈Midnight Sun〉은 2위를 차지했으나 약 6만 7천장을 판매한 것으로 집계되어 1위와는 큰 격차가 있다. 남성 아이돌 그룹 2pm의 멤버인 장우영의 솔로앨범 〈23, Male, Single〉은 5만 2천장의 판매량으로 3위를 차지했다. 6월에 비해 7월에는 전체적으로 오프라인 앨범 판매량이 고르게 증가했으며 이는 슈퍼주니어, 비스트, 싸이, 보아 등 대형 아티스트의 앨범 발매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파악된다. 상위 15개 앨범 판매량 합계는 667,052장으로 289,579장을 기록한 6월에 비해 두 배 이상 상승했다.

15위권에 오른 음반 유통사를 분석해 보면, 'KMP홀딩스'(SM, YG, JYP, 미디어라인, 스타제국, 유니온캔, 뮤직팩토리)로 구성)가 7개의 앨범에서 562,527장을 판매해 가장 많은 앨범을 발매하고 판매했다. 뒤를 이어 로엔엔터테인먼트가 6개의 앨범으로 216,913장을 판매했고, 'Universal Music'과 '에이엔지모즈'는 각각 한 장의 앨범에서 67,835장과 13,178장의 판매량을 기록했다.

▶ 오프라인 앨범 판매 TOP 15 (7월)

순위	변동	앨범명	아티스트	유통사	발매일	판매량	누적판매량
1	New	6집 Sexy, Free & Single	슈퍼주니어	KMP 홀딩스	2012.07.01	335,744	335,744
2	New	Midnight Sun	비스트	Universal Music	2012.07.22	67,835	67,835
3	New	23, Male, Single	장우영	KMP 홀딩스	2012.07.08	47,956	47,956
4	New	DAY BY DAY	티아라	로엔엔터테인먼트	2012.07.03	34,181	34,181
5	New	싸이6甲 Part.1	싸이	KMP 홀딩스	2012.07.15	29,875	29,875
6	New	7집 Only One	보아	KMP 홀딩스	2012.07.22	28,576	28,576
7	New	No Mercy	B.A.P	로엔엔터테인먼트	2012.07.19	18,090	18,090
8	New	Action	뉴이스트(Nu'est)	로엔엔터테인먼트	2012.07.11	15,564	15,564
9	New	2집 SPECTACULAR	제국의아이들	KMP 홀딩스	2012.07.04	14,986	14,986
10	▽5	Infinitize	인피니트	로엔엔터테인먼트	2012.05.15	14,169	122,808
11	New	닥터 진 OST	Various Artists	로엔엔터테인먼트	2012.07.13	13,299	13,299
12	New	4집 Supersonic	윤하	에이엔지모즈	2012.07.03	13,178	13,178
13	New	Summer Special 'Loving U'	씨스타	로엔엔터테인먼트	2012.06.28	12,971	12,971
14	▽13	'MAMA' EXO-K The 1st Mini Album	EXO-K	KMP 홀딩스	2012.04.09	10,468	95,230
15	New	'Electric Shock' The 2nd Mini Album	f(x)	KMP 홀딩스	2012.06.10	10,160	10,160
합계						667,052	860,453

* 앨범 순위집계 : 제작사 출고단위 도매 수량

* 출처 : 가온차트 (www.gaonchart.co.kr)

01 출판

02 만화

03 음악

04 공연

05 게임

06 영화

07 애니메이션

08 캐릭터

09 방송

10 광고

11 지식 정보



01 출판

02 만화

03 음악

04 공연

05 게임

06 영화

07 애니메이션

08 캐릭터

09 방송

10 광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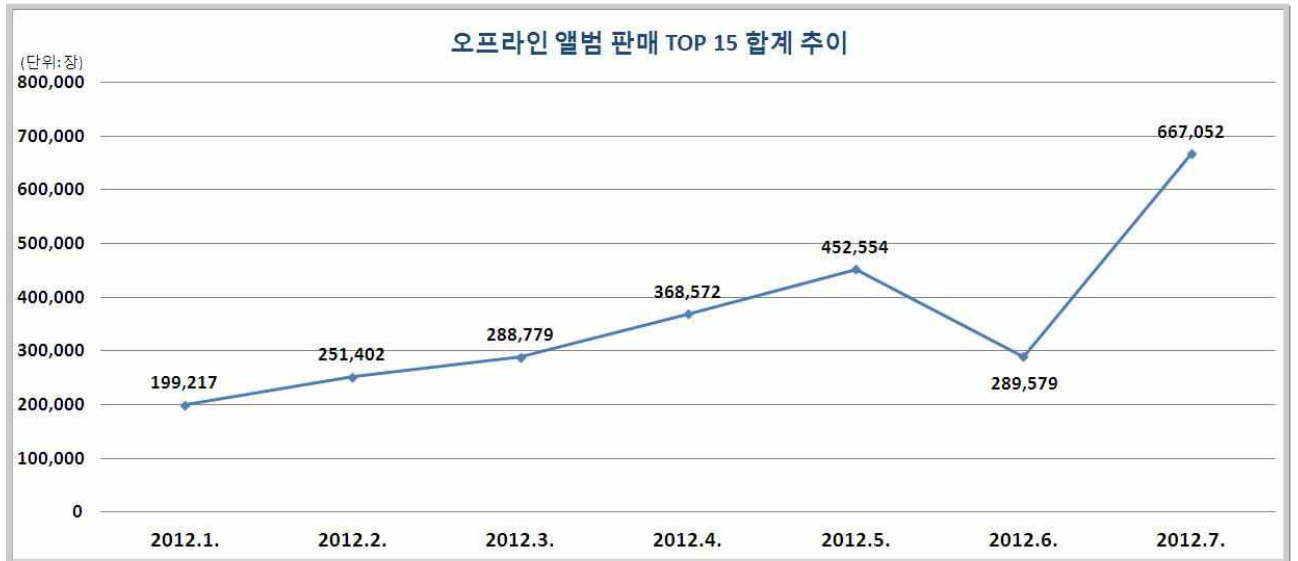
11 지식정보

오프라인 앨범판매 추이를 살펴보면 6월을 제외하면 1월부터 7월까지 앨범 판매량이 꾸준히 상승했다. 특히 5월 소녀시대-태티서와 XIA, 7월 슈퍼주니어 등 인기 아이돌 그룹의 활동이 앨범 판매량과 직결되는 모습이다.

오프라인 앨범차트 TOP3는 4월을 제외한 모든 달의 순위를 아이돌 그룹이 차지했다. 이는 앨범 판매량이 아이돌 그룹의 팬덤에 의해 좌우되는 경향을 반영한 것이다. 버스커버스커는 비 아이돌 그룹으로는 유일하게 4월 3위를 차지하며 순위에 들었다.

▶▶ 2012년 오프라인 앨범 판매 TOP 15 합계 추이 (2012. 1. ~ 2012. 7.)

구분	2012. 1.	2012. 2.	2012. 3.	2012. 4.	2012. 5.	2012. 6.	2012. 7.
판매량	199,217	251,402	288,779	368,572	452,554	289,579	667,052



▶▶ 2012년 오프라인 앨범 판매 TOP 3 (2012. 1. ~ 2012. 7.)

구분	1위	2위	3위
2012. 1.	엠블랙 / MBLAQ 4th Mini Album '100%Ver.'	티아라 / Funky Town (EP)	F.T Island / GROWN-UP (EP)
2012. 2.	빅뱅 / 5집 ALIVE	박재범 / New Breed	샤이니 / THE 1st ASIA TOUR CONCERT ALBUM 'SHINee'
2012. 3.	샤이니 / 'Sherlock' SHINee The 4th Mini Album	씨엔블루 / 3rd Mini Album Ear Fun	빅뱅 / 5집 ALIVE
2012. 4.	EXO-K / 'MAMA' EXO-K The 1st Mini Album	씨엔블루 / 3rd Mini Album Ear Fun	버스커버스커 / 버스커버스커 정규 1집
2012. 5.	소녀시대-태티서 / 'Twinkle' Mini Album	XIA / Tarantallegra	인피니트 / Infinitize
2012. 6.	빅뱅 / BIGBANG SPECIAL EDITION 'STILL ALIVE'	f(x) / 'Electric Shock' The 2nd Mini Album	틴 탑 / aRtist
2012. 7.	슈퍼주니어 / 6집 Sexy, Free & Single	비스트 / Midnight Sun	장우영 / 23, Male, Single

* 출처 : 가온차트 (www.gaonchart.co.kr), 한국콘텐츠진흥원 재구성



서비스별 음원 차트에서는 씨스타와 2NE1의 신곡들이 상위권을 차지했다. 스트리밍과 벨소리 순위에서는 씨스타의 'Loving U'가 1위에 올랐고, 다운로드와 BGM TOP 10에서는 2NE1의 'I Love You'가 1위를 차지했다. 이적과 유재석의 프로젝트 그룹 처진 달팽이의 '방구석 날라리'는 다운로드 차트 6위에 오른 반면, 슈퍼주니어의 'Sexy, Free & Single'은 벨소리 차트 5위에 올라 팬 층의 성향에 따라 음원 순위에서 각각 다른 모습을 보여줬다.

▶ 서비스별 음원 차트

1. 스트리밍 음원 TOP 10 (7월)

순위	변동	곡명	아티스트
1	HOT	Loving U	씨스타
2	New	I Love You	2NE1
3	New	DAY BY DAY	티아라
4	△14	정말로 사랑한다면	버스커 버스커
5	△28	가슴이 시린 게	이현(8Eight)
6	New	강남스타일	싸이
7	▽4	Electric Shock	f(x)
8	△68	한사람	여각
9	△19	그댈 마주하는건 힘들어 (그마힘)	버스커 버스커
10	△36	충분히 예뻐	버벌진트

2. 다운로드 음원 TOP 10 (7월)

순위	변동	곡명	아티스트
1	New	I Love You	2NE1
2	New	DAY BY DAY	티아라
3	New	강남스타일	싸이
4	△47	Loving U	씨스타
5	New	내 사랑아	이종현
6	New	방구석 날라리	처진 달팽이
7	▽1	정말로 사랑한다면	버스커 버스커
8	△8	가슴이 시린 게	이현(8Eight)
9	△48	illa illa (일라 일라)	주니엘
10	New	Midnight (별 헤는 밤)	비스트

3. BGM 음원 TOP 10 (7월)

순위	변동	곡명	아티스트
1	New	I Love You	2NE1
2	New	강남스타일	싸이
3	△37	Loving U	씨스타
4	New	내 사랑아	이종현
5	△1	illa illa (일라 일라)	주니엘
6	New	Midnight (별 헤는 밤)	비스트
7	△1	충분히 예뻐	버벌진트
8	New	DAY BY DAY	티아라
9	New	아름다운 밤이야	비스트
10	▽5	정말로 사랑한다면	버스커 버스커

4. 벨소리 음원 TOP 10 (7월)

순위	변동	곡명	아티스트
1	△28	Loving U	씨스타
2	New	내 사랑아	이종현
3	New	DAY BY DAY	티아라
4	△3	가슴이 시린 게	이현(8Eight)
5	New	Sexy, Free & Single	슈퍼주니어
6	△34	illa illa (일라 일라)	주니엘
7	New	강남스타일	싸이
8	New	I Love You	2NE1
9	▽7	나 혼자 (Alone)	씨스타
10	△31	아름다운 밤	울랄라세션

* 출처 : 가온차트 (www.gaonchart.co.kr)

01 출판

02 만화

03 음악

04 공연

05 게임

06 영화

07 애니메이션

08 캐릭터

09 방송

10 광고

11 지식 정보



01
출판

02
만화

03
음악

04
공연

05
게임

06
영화

07
애니메이션

08
캐릭터

09
방송

10
광고

11
지식정보

인디음반 판매 차트에서는 에피톤 프로젝트의 2집 앨범 <낮선 도시에서의 하루>가 6월에 이어 4주 연속 1위를 차지했다. 선공개한 노래 '굿모닝(feat. 권정열)'으로 6월 BGM 차트 1위를 기록한 버벌진트의 새 앨범 '10년동안의 오독 1'과 자신들의 히트곡을 새롭게 레코딩한 브로콜리 너마저의 '골든-히트 모음집'은 새롭게 차트에 진입했다. KBS2 'Top밴드' 출연으로 이름을 알린 게이트 플라워즈와 MBC '나는 가수다'에 출연 중인 국카스텐도 꾸준히 인기를 얻고 있다.

▶▶ 인디음반 판매 TOP 10 (6. 26. ~ 7. 10.)

순위	변동	아티스트	앨범명	제작사	유통사
1	-	에피톤 프로젝트	(2집) 낮선 도시에서의 하루	파스텔뮤직	KT뮤직
2	-	에피톤 프로젝트	(1집) 유실물 보관소	파스텔뮤직	브라운엔터테인먼트
3	New	버벌진트	(5집) 10년동안의 오독 1	브랜뉴뮤직	유니버설뮤직코리아
4	New	Beenzino(빈지노)	(EP) 24:26	ILLIONAIRE RECORDS	제뉴인뮤직
5	New	가을방학	(EP) 실내악 외출	루오바팩토리	루오바팩토리
6	▽3	국카스텐	(1집) Guckkasten	루비살롱/루비레코드	미러볼뮤직
7	▽1	게이트 플라워즈	(1집) Times	에코브리드	포니캐년 코리아
8	▽3	페퍼톤즈	(4집) Beginner's Luck	안테나 뮤직	CJ E&M
9	New	THE KOXX(락스)	(EP) bon voyage	해피로봇레코드	해피로봇레코드
10	New	고찬용	(2집) Look Back	푸른곰팡이	하나음악그룹

* 출처 : 인디고차트50 (<http://music.daum.net/musicbar/>)

▶▶ 인디음반 판매 TOP 10 (7. 11. ~ 7. 25.)

순위	변동	아티스트	앨범명	제작사	유통사
1	-	에피톤 프로젝트	(2집) 낮선 도시에서의 하루	파스텔뮤직	KT뮤직
2	New	브로콜리너마저	골든-히트 모음집[앵콜요청금지]	스튜디오 브로콜리	미러볼뮤직
3	▽1	에피톤 프로젝트	(1집) 유실물 보관소	파스텔뮤직	브라운엔터테인먼트
4	△2	국카스텐	(1집) Guckkasten	루비살롱/루비레코드	미러볼뮤직
5	▽2	버벌진트	(5집) 10년동안의 오독 1	브랜뉴뮤직	유니버설뮤직코리아
6	▽1	가을방학	(EP) 실내악 외출	루오바팩토리	루오바팩토리
7	▽3	Beenzino(빈지노)	(EP) 24:26	ILLIONAIRE RECORDS	제뉴인뮤직
8	-	게이트 플라워즈	(1집) Times	에코브리드	포니캐년 코리아
9	New	가을방학	가을방학	루오바팩토리	루오바팩토리
10	New	에피톤 프로젝트	긴 여행의 시작	파스텔뮤직	브라운엔터테인먼트

* 출처 : 인디고차트50 (<http://music.daum.net/musicbar/>)



7월 노래연습장 차트에서는 6월 3위를 기록했던 울랄라세션의 ‘아름다운 밤’이 1위에 올랐다. 5, 6월에 1위였던 버스커 버스커의 ‘벚꽃 엔딩’과 6월에 2위였던 소녀시대-태티서의 ‘Twinkle’은 각각 한 단계씩 하락하며 2, 3위를 기록했다. 임재범의 ‘너를 위해’(4위), 이은미의 ‘애인...있어요’(8위), 빅마마의 ‘체념’(11위)은 노래방 애창곡으로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다. 신인가수 주니엘의 ‘illa illa(일라일라)’와 신사의 품격 OST ‘가슴이 시린 게’는 각각 5위와 7위라는 높은 순위로 차트에 진입했다.

▶ 노래연습장 TOP 15 (7월)

순위	변동	곡명	앨범명	아티스트	발매일
1	△2	아름다운 밤	ULALA SENSATION	울랄라세션	2012.05.10
2	▽1	벚꽃 엔딩	버스커 버스커	버스커 버스커	2012.03.29
3	▽1	Twinkle	Twinkle	소녀시대-태티서	2012.04.30
4	△1	너를 위해	Story Of Two Years	임재범	2000.05.16
5	HOT	illa illa (일라 일라)	My First June	주니엘	2012.06.07
6	-	나를 사랑했던 사람아	LACRIMOSO	허각	2012.04.03
7	New	가슴이 시린 게	신사의 품격 Part 3	이현(8eight)	2012.05.14
8	△1	애인... 있어요	Ma Non Tanto	이은미	2005.10.24
9	△1	애상	윤일상 작곡가 21주년 기념 앨범 I'm 21	십센치(10cm)	2012.01.05
10	New	정말로 사랑한다면	버스커 버스커 1집 마무리	버스커 버스커	2012.06.21
11	-	체념	Like The Bible	빅마마(Big Mama)	2003.02.06
12	△56	Like This	Wonder Party	원더걸스	2012.06.03
13	New	Loving U	Summer Special `Loving U`	씨스타	2012.06.28
14	▽10	나혼자(Alone)	ALONE	씨스타(Sistar)	2012.04.12
15	HOT	Electric Shock	`Electric Shock` The 2nd Mini Album	f(x)	2012.06.10

* 출처 : 가온차트 (www.gaonchart.co.kr)

01 출판

02 만화

03 음악

04 공연

05 게임

06 영화

07 애니메이션

08 캐릭터

09 방송

10 광고

11 지식 정보



7월 음악 관련 프로그램 중에서는 KBS의 '가요무대'가 60대 이상의 시청자 층에서 높은 시청률을 보이며 10%대의 시청률을 기록했다. KBS는 이밖에도 '유희열의 스케치북', '콘서트7080'등 공중파 방송국 중 가장 많은 6개의 음악 관련 프로그램을 방송하고 있다. 8월 10일 방송이 종료된 Mnet의 '쇼미더머니'가 0.3% 대의 시청률을 기록하였으나 케이블 TV는 공중파에 비해 상대적으로 시청률이 낮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또한 음악과 무대에 집중한 프로그램보다는 MBC의 '나는 가수다 시즌2'와 KBS '불후의 명곡'처럼 버라이어티가 가미된 음악 프로그램이 높은 시청률을 기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음악 관련 프로그램 시청률 (7월)

프로그램명	방송사	방영시간	시청률(%)					
			가구	남자	여자	13-18	19+	60+
가요무대	KBS	월/ 오후 10:00	10.416	3.275	3.743	0.239	4.302	12.997
아름다운 콘서트	MBC	화/ 오후 5:00	0.927	0.244	0.435	0.321	0.367	0.395
뮤직뱅크	KBS	금/ 오후 6:10	3.689	1.056	2.217	2.965	1.436	0.876
유희열의 스케치북	KBS	금/ 밤 12:15	2.248	0.725	1.120	0.693	1.046	0.723
쇼! 음악중심	MBC	토/ 오후 4:00	3.843	1.100	2.217	2.841	1.574	0.904
불후의 명곡	KBS	토/ 오후 6:15	8.911	3.018	4.713	3.099	4.190	5.205
TOP밴드2	KBS	토/ 오후 11:25	2.033	0.878	1.098	0.584	1.107	0.944
나는 가수다 시즌2	MBC	일/ 오후 6:20	6.281	2.487	3.005	1.083	3.093	3.348
SBS 인기가요	SBS	일/ 오후 3:40	4.816	1.596	2.715	3.006	2.104	1.412
정재형 이효리의 유&아이	SBS	일/ 밤 12:00	0.027	0.005	0.008	0.013	0.007	0.016
콘서트7080	KBS	일/ 오후 11:20	4.572	1.552	1.997	0.353	2.108	2.893
M! COUNTDOWN	Mnet	목/ 오후 6:00	0.071	0.019	0.040	0.078	0.024	0.009
윤도현의 MUST	Mnet	토/ 밤 12:00	0.092	0.018	0.081	0.001	0.061	0.020
쇼미더머니 (Show Me The Money)	Mnet	금/ 오후 11:00	0.296	0.105	0.188	0.164	0.156	0.017
쇼! 챔피언	MBC MUSIC	화/ 오후 7:00	0.054	0.013	0.030	0.042	0.020	0.012
더 쇼 : 올뉴 케이팝	SBS MTV	금/ 오후 8:00	0.012	0.003	0.008	0.002	0.006	0.002

* 출처: AGB닐슨 미디어리서치(본방 기준)

01 출판

02 만화

03 음악

04 공연

05 게임

06 영화

07 애니메이션

08 캐릭터

09 방송

10 광고

11 지식 정보



7월 유튜브 K-POP 조회수 순위에서는 싸이의 ‘강남스타일’이 1,537만 회의 조회수를 기록하며 1위에 올랐다. ‘강남스타일’은 CNN을 비롯한 해외 방송에 소개되고, 각종 패러디 영상으로 재생산되면서 큰 인기를 얻어 8월 말 현재 조회수 6,500만을 돌파했다. 2위는 2NE1의 ‘I LOVE YOU’ 뮤직비디오가 926만 회의 조회수를 기록했다. ‘I LOVE YOU’는 뮤직비디오뿐만 아니라 댄스 연습, 무대 영상 등이 순위에 올랐으며 세 개 영상의 총 조회수는 1,550만 회에 달했다.

K-POP 누적 조회수에서는 소녀시대의 ‘Gee’가 8,127만 회의 조회수로 1위를 유지했다. 빅뱅의 ‘FANTASTIC BABY’는 3,609만 회의 조회수를 기록하며 11위로 순위권에 진입했다.

▶▶ K-POP 유튜브 조회수 TOP 15 (7월)

순위	곡명	아티스트	종류	업로더	등록일자	조회수
1	강남스타일	싸이	뮤직비디오	officialpsy	7. 15.	15,374,986
2	I LOVE YOU	2NE1	뮤직비디오	2NE1	7. 06.	9,266,471
3	Only One	BoA	뮤직비디오	SMTOWN	7. 21.	4,448,548
4	아름다운 밤이야	BEAST	뮤직비디오	beastofficial	7. 21.	3,570,012
5	I LOVE YOU	2NE1	댄스 연습	2NE1	7. 10.	3,166,528
6	강남스타일	싸이	무대 영상	officialpsy	7. 15.	2,273,598
7	SEXY LADY	장우영	뮤직비디오	2pm	7. 07.	2,149,363
8	Day By Day	티아라	뮤직비디오	LOENENT	7. 08.	2,071,666
9	NO MERCY	B.A.P	뮤직비디오	TSENT2008	7. 18.	1,921,362
10	I LOVE YOU	2NE1	무대 영상	2NE1	7. 08.	1,780,480
11	별 헤는 밤	BEAST	뮤직비디오	beastofficial	7. 14.	1,638,703
12	SPY	슈퍼 주니어	뮤직비디오 티저	SMTOWN	8. 03.	1,313,364
13	I LOVE YOU	2NE1	무대 영상	2NE1	7. 15.	1,287,838
14	I Have Nothing	소향	무대 영상	재민 서	7. 08.	1,219,082
15	Action	NU'EST	뮤직비디오	LOENENT	7. 10.	1,184,030

* 출처 : Youtube(www.youtube.com), 8월 6일 기준(7월 7일 ~ 8월 6일 등록 동영상)

▶▶ K-POP 유튜브 누적 조회수 TOP 15 (8월 6일 기준)

순위	변동	곡명	아티스트	종류	업로더	등록일자	조회수	변동(7.6대비)
1	-	Gee	소녀시대	뮤직비디오	sment	2009.06.08	81,278,390	2,460,657
2	-	Nobody	원더걸스	뮤직비디오	Mnet	2008.11.18	57,841,496	262,081
3	-	Oh!	소녀시대	뮤직비디오	sment	2010.01.26	53,546,542	1,112,351
4	-	THE BOYS	소녀시대	뮤직비디오	SMTOWN	2011.10.18	53,289,399	2,587,710
5	-	Mr. Simple	슈퍼주니어	뮤직비디오	SMTOWN	2011.08.03	50,526,689	1,815,905
6	-	내가 제일 잘 나가	2NE1	뮤직비디오	2NE1	2011.06.27	49,107,397	2,586,698
7	-	BONAMANA(미인아)	슈퍼주니어	뮤직비디오	sment	2010.05.11	41,124,764	872,983
8	-	Run Devil Run(런데빌런)	소녀시대	뮤직비디오	sment	2010.03.16	40,219,973	817,300
9	-	SORRY, SORRY	슈퍼주니어	뮤직비디오	sment	2009.06.07	38,829,256	697,827
10	-	LOLLIPOP	BIGBANG & 2NE1	뮤직비디오	YGEntertainment	2009.05.15	37,360,883	2,939,742
11	New	FANTASTIC BABY	BIGBANG	뮤직비디오	BIGBANG	2012.03.06	36,098,303	-
12	▽1	LUCIFER	SHINee(샤이니)	뮤직비디오	sment	2010.07.19	35,186,147	2,320,987
13	▽1	STEP	KARA	뮤직비디오	DSPKara	2011.09.05	34,437,230	2,091,858
14	▽1	Ring Ding Dong(링딩동)	SHINee(샤이니)	뮤직비디오	sment	2009.10.16	34,315,968	4,284,520
15	▽1	Ma Boy	SISTAR19	댄스 연습	mirrorHD	2011.05.12	31,632,581	4,298,181

* 출처 : Youtube(www.youtube.com), 8월 6일 기준

01 출판

02 만화

03 음악

04 공연

05 게임

06 영화

07 애니메이션

08 캐릭터

09 방송

10 광고

11 지식 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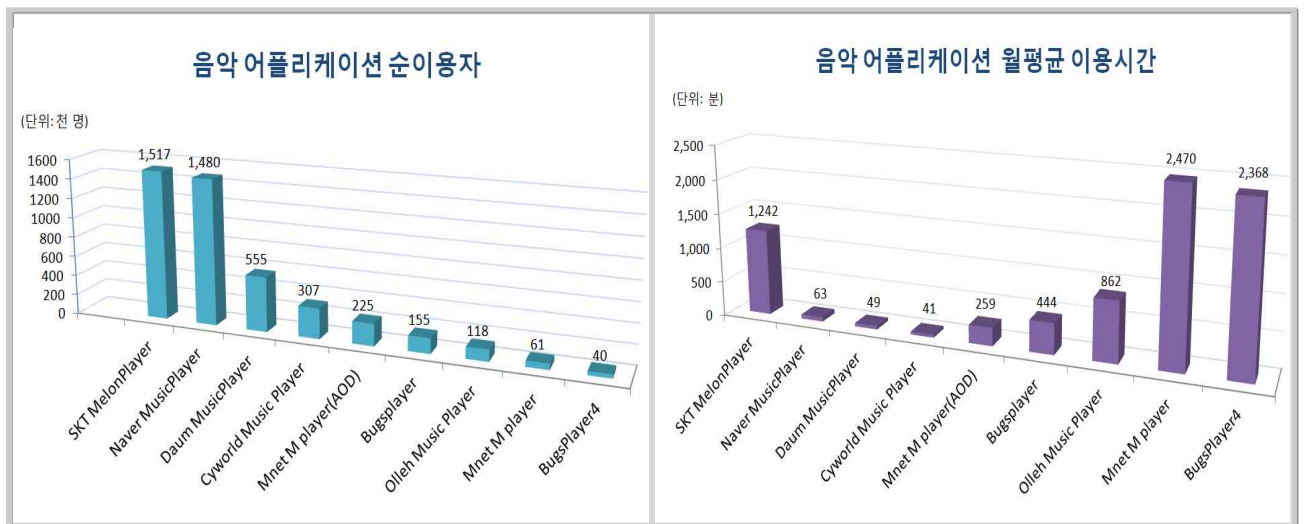
7월 음악 어플리케이션 이용 현황에 따르면, ‘멜론’이 151만 명으로 가장 많은 순이용자수를 기록했고 ‘네이버 뮤직’이 148만 명으로 2위에 올랐지만 월평균이용시간에서는 멜론이 1,242분을 기록하며 ‘네이버 뮤직’(63분)과 큰 차이를 보였다. 3위부터는 순이용자가 60만 명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집계되었으나, ‘앳넷’과 ‘벅스’는 낮은 순이용자수에 불구하고 2,000분이 넘는 월평균이용시간을 기록하며 높은 이용률을 보였다.

▶ 음악 어플리케이션 서비스 (PC)

1. 음악 어플리케이션 이용 현황 (7월)

순위	공급자	어플리케이션	순이용자 ⁶⁾	일평균이용자 ⁷⁾	도달률(% ⁸⁾	월평균이용시간(분) ⁹⁾	평균재방문일수(일) ¹⁰⁾	순방문자증감률(%)
1	Melon	SKT MelonPlayer	1,516,627	232,353.03	4.52	1,242.26	4.69	3.95
2	Naver	Naver MusicPlayer	1,480,219	73,172.87	4.41	63.36	1.55	-10.98
3	Daum	Daum MusicPlayer	555,181	24,449.39	1.65	49.05	1.35	-20.69
4	Cyworld	Cyworld Music Player	306,771	17,256.23	0.91	40.83	1.76	-5.33
5	Mnet	Mnet M player(AOD)	224,853	19,711.06	0.67	259.46	2.78	0.18
6	Bugs	Bugsplayer	154,777	11,493.81	0.46	443.91	2.31	-15.29
7	Ollehmusic	Olleh Music Player	117,891	13,540.52	0.35	861.95	3.61	-21.78
8	Mnet	Mnet M player	60,987	13,097.52	0.18	2,469.72	6.19	-1.49
9	Bugs	BugsPlayer4	39,659	10,617.68	0.12	2,367.72	7.73	-37.29

* 본 데이터는 패널로 선출된 국내 인터넷 사용자의 PC에 설치된 소프트웨어를 통해 집계되는 통계적 추정치로써 오차가 발생할 수 있음
* 출처 : 닐슨 코리아클릭, KOCCA 재구성



- 6) 순이용자 : Application을 사용하는 중복되지 않은 인터넷 사용자의 수
- 7) 일평균이용자 : 개별 App.의 일 평균 이용자 규모를 의미
- 8) 도달률 : 국내 인터넷 사용자 중 Application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중복되지 않은 이용자의 비율 (App. 이용자 / 국내 인터넷 사용자 수)
- 9) 월평균이용시간 : 한 달 동안 Application을 이용한 평균 시간
- 10) 평균재방문일수 : 전체 인터넷 사용자 중 해당 App.를 쓰고 있는 이용자가 한 달 동안 1인 평균 App.을 이용하는 일수

- 01 출판
- 02 만화
- 03 음악
- 04 공연
- 05 게임
- 06 영화
- 07 애니메이션
- 08 캐릭터
- 09 방송
- 10 광고
- 11 지식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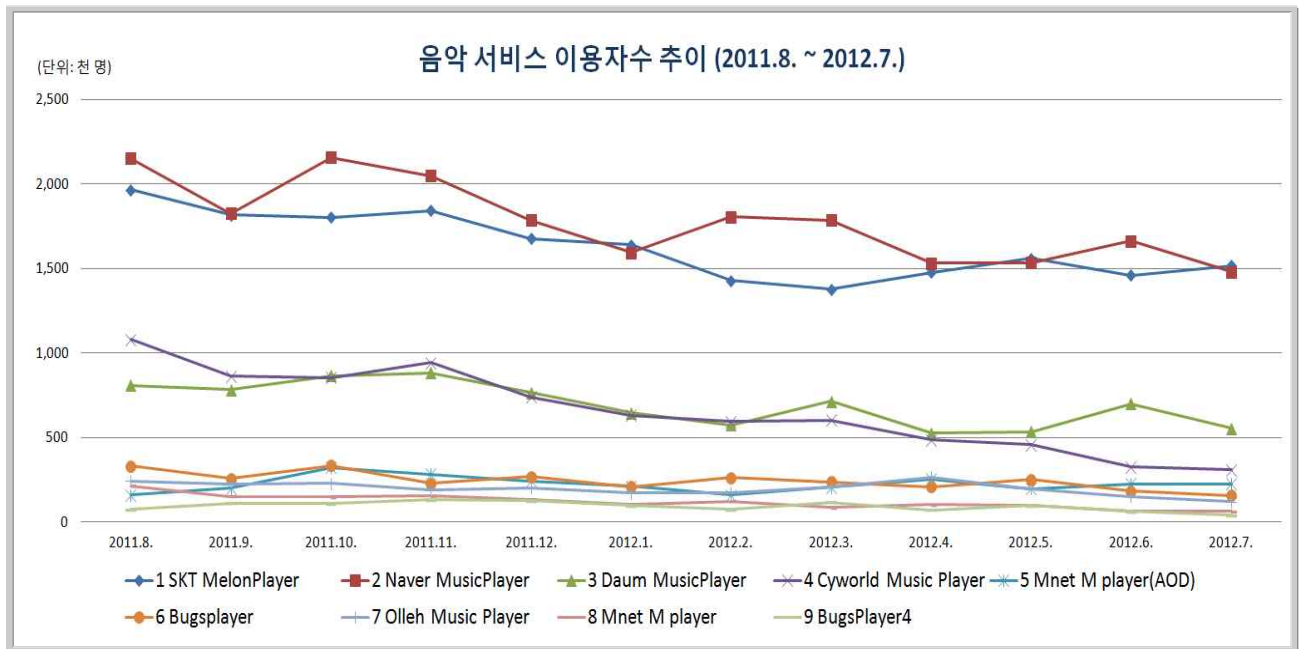
음악 이용자 어플리케이션 이용자수 추이를 살펴보면, 6월과 비교하여 전체적으로 이용자수가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멜론과 Mnet의 이용자가 각각 4%, 0.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도에 비해 음악 어플리케이션 이용자수는 감소하고 있는 추세인데, 이는 PC보다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여 음악을 듣는 인구 증가의 영향으로 파악된다.

2. 음악 어플리케이션 이용자수 추이 (2011. 8. ~ 2012. 7.)

(단위: 천 명)

순위	어플리케이션	2011. 8.	2011. 9.	2011.10.	2011. 11.	2011.12.	2012. 1.	2012. 2.	2012. 3.	2012. 4.	2012. 5.	2012. 6.	2012. 7.
1	SKT MelonPlayer	1,965	1,817	1,803	1,843	1,677	1,640	1,428	1,377	1,478	1,559	1,459	1,517
2	Naver MusicPlayer	2,153	1,826	2,157	2,049	1,787	1,595	1,807	1,785	1,532	1,534	1,663	1,480
3	Daum MusicPlayer	808	783	865	882	765	645	575	714	525	533	700	555
4	Cyworld Music Player	1,081	862	853	943	740	630	593	601	485	458	324	307
5	Mnet M player(AOD)	160	199	321	282	242	211	159	205	255	197	224	225
6	Bugsplayer	331	256	335	229	267	208	261	237	208	250	183	155
7	Olleh Music Player	241	223	228	189	203	171	171	208	266	195	151	118
8	Mnet M player	213	152	147	154	134	103	122	84	102	99	62	61
9	BugsPlayer4	73	112	109	132	124	97	73	115	72	96	63	40

* 이용자수가 줄어드는 현상은 스마트폰을 통한 음악 어플리케이션 이용이 증가하기 때문으로 추정됨(위 데이터는 PC 이용 현황임)
 * 출처 : 닐슨 코리아클릭, KOCCA 재구성



01 출판

02 만화

03 음악

04 공연

05 게임

06 영화

07 애니메이션

08 캐릭터

09 방송

10 광고

11 지식 정보



01 출판

02 만화

03 음악

04 공연

05 게임

06 영화

07 애니메이션

08 캐릭터

09 방송

10 광고

11 지식 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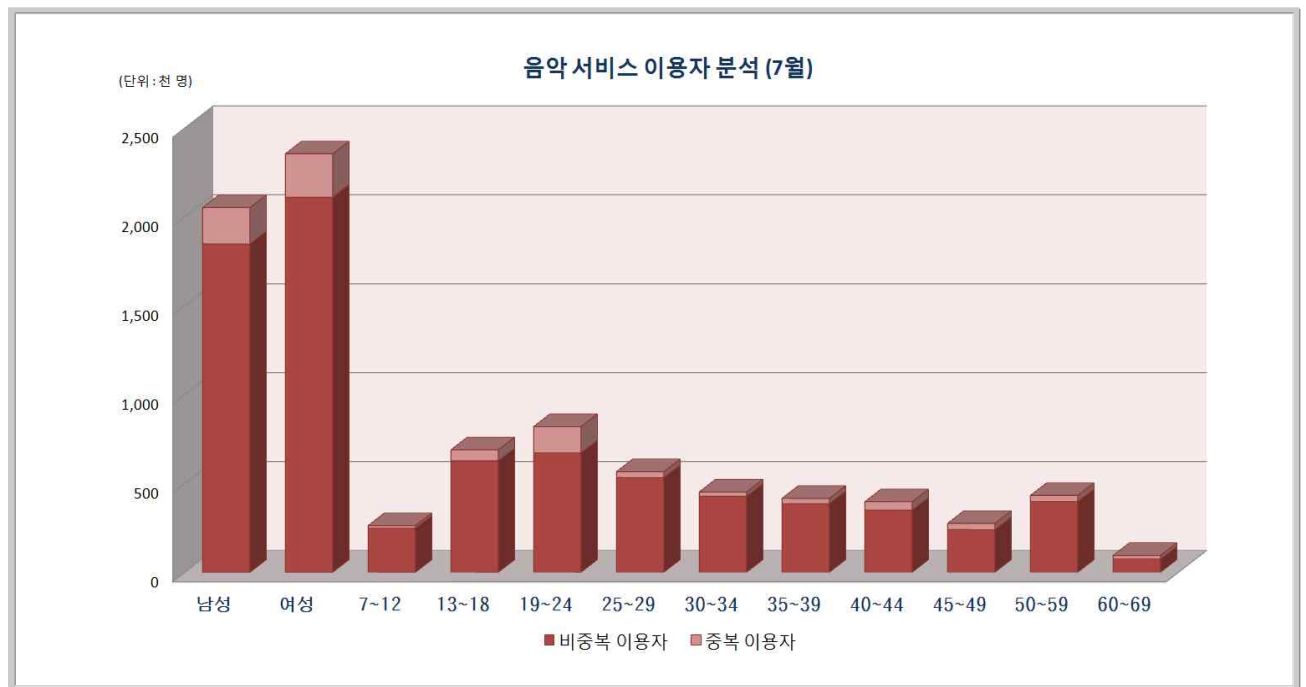
음악 어플리케이션 이용자는 446만 명으로 추정되었다. 이 중 396만 명은 하나의 어플리케이션만 사용했고, 45만 명은 2개 이상의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19~24세가 82만 명으로 가장 높은 이용자수를 기록했고, 13~18세가 그 뒤를 이었다. 10대와 20대가 음악 어플리케이션의 주이용자로 파악되는 가운데 의외로 50~59세의 이용자수 또한 높게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성 185만 명, 여성 211만 명으로, 여성 이용자의 수가 26만 명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3. 음악 어플리케이션 이용자 분석 (7월)

(단위: 천 명)

구분	순이용자	도달률(%)	남성	여성	7~12	13~18	19~24	25~29	30~34	35~39	40~44	45~49	50~59	60~69
비중복 이용자	3,957	11.79	1,847	2,110	248	627	672	533	428	386	350	240	398	75
중복 이용자	448	1.33	204	244	15	62	148	33	24	30	47	35	34	20
총 이용자	4,457	13.28	2,071	2,386	264	701	826	566	460	418	407	289	432	96

* 출처 : 닐슨 코리안클릭, KOCCA 재구성





7월에 방송심의를 받은 앨범은 233개이고 곡 수로는 740곡에 달한다. 방송심의를 받은 앨범과 곡 수 모두 6월에 비해 소폭 상승했다. 7월에 심의를 받은 앨범들을 장르별로 구분하면 댄스가 68장으로 29%를, 트롯(트로트)가 45장으로 19%를 차지했으며 32장의 발라드가 그 뒤를 이었다.

한편 7월 발매된 233장의 앨범 중 디지털 싱글로 발매된 앨범이 158장으로 67.8%를, 일반 형태로 발매된 앨범이 65장으로 28%를 차지했으며, 일반 싱글이 3.8%, 컴필레이션은 1% 미만의 비중을 차지했다.

▶ 음악 방송심의 통계

1. 월별 방송심의 건수 (2012. 1. ~ 2012. 7.)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합계
앨범	157	196	194	195	245	180	233	1,400
곡	548	607	657	673	890	659	740	4,77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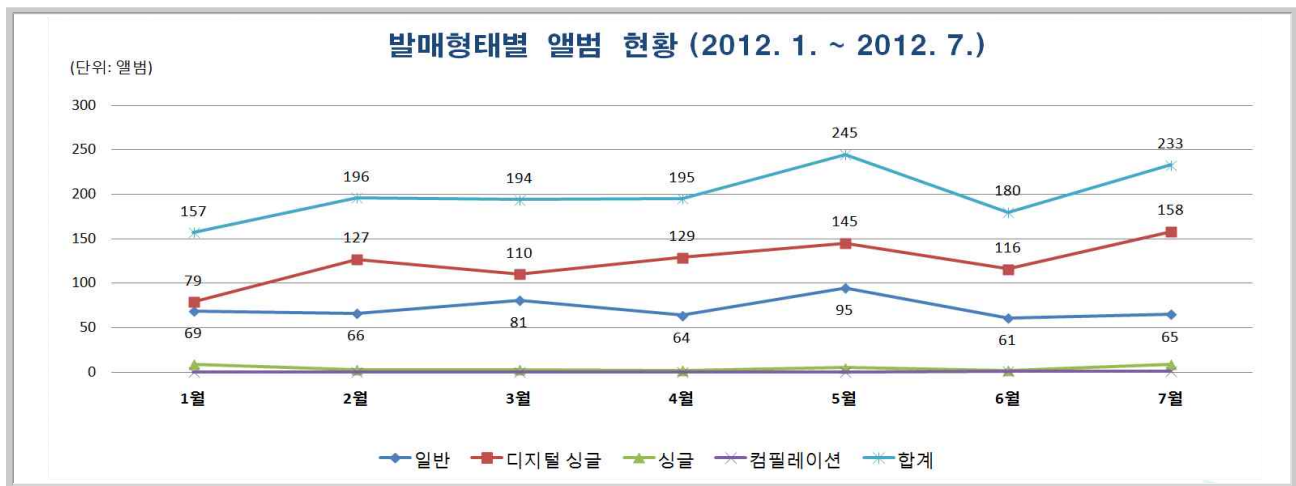
2. 장르별 방송심의 앨범 현황 (2012. 7.)

장르	댄스	발라드	트롯	힙합	락	락발라드	모던락	인디/메트로/디스코	재즈	포크	펑크	하우스	레게	크로스오버	팝페라	알앤비	소울	OST	클래식, 기타	미분류	일반가요	합계
곡	68	32	45	14	14	2	10	2	2	11	-	-	4	1	-	3	-	5	-	1	19	233
비율 (%)	29	14	19	6	6	1	4	1	1	5	-	-	2	0.5	-	1	-	2	-	0.5	8	100

3. 발매형태별 앨범 현황 (2012. 7.)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합계
일반	69	66	81	64	95	61	65	501
디지털 싱글	79	127	110	129	145	116	158	864
싱글	9	3	3	2	5	2	9	33
컴필레이션	-	-	-	-	-	1	1	2
합계	157	196	194	195	245	180	233	1,400

* 출처 : 한국음원제작자협회 (www.kapp.or.kr)



01 출판

02 만화

03 음악

04 공연

05 게임

06 영화

07 애니메이션

08 캐릭터

09 방송

10 광고

11 지식정보



04 공연

7월 공연시장 종합 순위에서는 방학을 맞아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뮤지컬이 대거 순위에 진입한 것이 특징적이었다. EBS 모여라 덩동댕 뮤지컬 '번개맨의 비밀'이 판매 점유율 9.0%로 1위를 차지했고, '로보카 폴리'(7위), '파워레인저 미라클 포스 에피소드 2: 최후의 전투'(14위), 'NEW 어린이 난타'(18위)가 순위권에 들었다.

한편, 7월 20일 공연이 시작된 뮤지컬 '잭더리퍼'가 5.7%의 점유율로 2위에 올랐고, '오즈의 마법사'를 각색한 뮤지컬 '위키드'의 오리지널 내한공연은 4.2%의 점유율로 3위를 기록했다. 2005년 국내 초연 이후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는 뮤지컬 '헤드윅'과 추리소설의 여왕 아가사 크리스티 원작 소설을 연극화한 '쥐뿔'은 8월 공연을 앞두고 새롭게 순위권에 올랐다.

공연시장 종합 20위권 내에는 뮤지컬 14편(창작 뮤지컬 6편), 연극 6편이 포함되었고, 콘서트·클래식·오페라·국악·무용 공연은 포함되지 못했다. 이는 6월과 같은 구성비이지만, 창작 뮤지컬의 비중은 7편에서 6편으로 한 작품이 감소했다.

▶ 공연시장 종합 TOP 20 (7월)

순위	변동	공연명	공연장	점유율	장르	공연기간
1	△6	EBS 모여라 덩동댕 번개맨의 비밀	어린이대공원 내 돔아트홀	9.0%	창작 뮤지컬	2012.07.27. ~ 2012.08.26.
2	△6	뮤지컬 <잭더리퍼>	국립극장 해오름극장	5.7%	라이선스 뮤지컬	2012.07.20. ~ 2012.08.25.
3	▽2	뮤지컬 <위키드> 오리지널 내한공연	블루스퀘어 삼성전자홀	5.3%	오리지널 뮤지컬	2012.05.29. ~ 2012.10.07.
4	▽2	뮤지컬 <시카고>	디큐브아트센터	4.8%	라이선스 뮤지컬	2012.06.09. ~ 2012.10.07.
5	-	뮤지컬 <모차르트>	세종문화회관 대극장	4.7%	라이선스 뮤지컬	2012.07.10. ~ 2012.08.04.
6	△5	뮤지컬 <라카지>	LG아트센터	3.6%	라이선스 뮤지컬	2012.07.04. ~ 2012.09.04.
7	New	초특급 애니 뮤지컬 <로보카 폴리>	올림픽공원 우리금융아트홀	2.8%	창작 뮤지컬	2012.07.04. ~ 2012.08.26.
8	▽5	옥탑방고양이 - 대학로	대학로 틴틴홀	2.8%	창작 연극	2010.04.06. ~ 2012.12.31.
9	▽5	뮤지컬 <맨 오브 라만차>	샤롯데씨어터	2.6%	라이선스 뮤지컬	2012.06.19. ~ 2012.10.07.
10	△8	광화문연가	부산 센텀시티 뮤지컬전용관	2.4%	창작 뮤지컬	2012.07.20. ~ 2012.08.05.
11	△4	뮤지컬 <헤어스프레이>	충무아트홀 대극장	2.1%	라이선스 뮤지컬	2012.06.13. ~ 2012.08.05.
12	△6	뮤지컬 <형제는 용감했다>	코엑스아트יום 현대아트홀	2.1%	창작 뮤지컬	2012.06.26. ~ 2012.10.01.
13	New	쥐뿔	대학로 SH아트홀	1.7%	라이선스 연극	2012.08.02. ~ 2012.10.31.
14	New	파워레인저 미라클포스 에피소드 최후의 전투	이화여자대학교 삼성홀	1.7%	창작 뮤지컬	2012.07.21. ~ 2012.08.19.
15	▽9	라이어 1탄 - 대학로	해피씨어터	1.4%	창작 연극	2012.03.12. ~ 2012.09.16.
16	New	뮤지컬 <헤드윅>	KT&G 상상아트홀	1.0%	라이선스 뮤지컬	2012.08.11. ~ 2012.10.21.
17	▽1	뉴보잉보잉 1탄	대학로 두레홀 3관	0.9%	창작 연극	2009.01.01. ~ 2012.08.31.
18	New	NEW 송승환의 어린이난타	예림당 아트홀	0.9%	창작 뮤지컬	2012.04.20. ~ 2012.12.30.
19	▽9	블링블링	대학로 키득키득아트홀 신관	0.9%	창작 연극	2011.06.01. ~ 2012.08.31.
20	▽8	연애지침서 연극 <옥탑방고양이> - 강남	강남 동양아트홀	0.8%	창작 연극	2012.03.02. ~ 2012.12.31.

* 출처 : 인터파크 티켓 (순위 집계: 7. 7. ~ 8. 6. 판매매수 기준)



뮤지컬 분야에서는 EBS의 인기프로그램 모여라 덩동땡을 뮤지컬화한 ‘번개맨의 비밀’이 1위를 차지했다. 같은 방송국에서 방영중인 애니메이션 ‘로보카 폴리’의 뮤지컬도 7위에 올라 라이선스 뮤지컬의 홍수 속에서 창작 어린이 뮤지컬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2위는 국립극장 해오름극장에서 공연되는 뮤지컬 <잭더리퍼>가 차지했으며 브로드웨이 오리지널 팀이 내한하는 뮤지컬 <위키드>가 뒤를 이었다.

연극 분야에서는 5, 6월에 이어 ‘옥탑방고양이(대학로)’가 3개월 연속 1위를 유지했다. 2010년 대한민국 국회대상을 수상했던 ‘옥탑방 고양이’는 작품성과 흥행성을 인정받으며 롱런하고 있다. 초연 60주년을 맞이해 대학로 SH아트홀에서 공연되는 ‘쥐뿔’이 연극 티켓 판매 2위에 올랐으며, 올해 3월 12일부터 공연 중인 인기 연극 ‘라이어’가 3위를 차지했다.

▶ 공연시장 분야별 TOP 10 (7월)

1. 뮤지컬

순위	변동	공연명	공연장	구분	점유율	공연기간
1	△4	EBS 모여라 덩동땡 <번개맨의 비밀>	어린이대공원 내 돔아트홀	창작	13.0%	2012.07.27. ~ 2012.08.26.
2	△4	뮤지컬 <잭더리퍼>	국립극장 해오름극장	라이선스	8.3%	2012.07.20. ~ 2012.08.25.
3	▽2	뮤지컬 <위키드> 오리지널 내한공연	블루스퀘어 삼성전자홀	오리지널	7.6%	2012.05.29. ~ 2012.10.07.
4	▽2	뮤지컬 <시카고>	디큐브아트센터	라이선스	6.9%	2012.06.09. ~ 2012.10.07.
5	▽1	뮤지컬 <모차르트!>	세종문화회관 대극장	라이선스	6.7%	2012.07.10. ~ 2012.08.04.
6	△2	뮤지컬 <라카지> - Musical Lacage	LG아트센터	라이선스	5.1%	2012.07.04. ~ 2012.09.04.
7	New	초특급 애니 뮤지컬 <로보카 폴리>	올림픽공원 우리금융아트홀	창작	4.0%	2012.07.04. ~ 2012.08.26.
8	▽5	뮤지컬 <맨 오브 라만차>	샤롯데씨어터	라이선스	3.8%	2012.06.19. ~ 2012.10.07.
9	△4	광학문연가	센텀시티 소향아트센터	창작	3.4%	2012.07.20. ~ 2012.08.05.
10	△1	뮤지컬 <헤어스프레이>	충무아트홀 대극장	라이선스	3.1%	2012.06.13. ~ 2012.08.05.

* 출처 : 인터파크 티켓 (순위 집계: 7. 1. ~ 7. 31. 판매매수 기준)

2. 연극

순위	변동	공연명	공연장	점유율	공연기간
1	-	옥탑방고양이-대학로	대학로 토티홀	12.9%	2010.04.06. ~ 2012.12.31.
2	New	쥐뿔	대학로 SH아트홀	6.3%	2012.08.02. ~ 2012.10.31.
3	▽1	라이어 1탄	해피씨어터	6.3%	2012.03.12. ~ 2012.09.16.
4	△1	뉴보잉보잉 1탄	대학로 두레홀 3관	4.2%	2009.01.01. ~ 2012.08.31.
5	▽2	블링블링	대학로 키득키득아트홀 신관	4.1%	2011.06.01. ~ 2012.08.31.
6	▽2	연애지침서 연극 옥탑방고양이 - 강남	강남 동양아트홀	3.7%	2012.03.02. ~ 2012.12.31.
7	▽1	라이어1탄 <강남코엑스>	코엑스아트홀	3.7%	2012.01.06. ~ 2012.09.02.
8	△1	장진의 <서툰 사람들>	대학로 아트원씨어터 2관	3.4%	2012.06.05. ~ 2012.10.03.
9	New	대학로 코믹연극 <너와 함께라면>	대학로 소리아트홀 1관	2.6%	2012.07.06. ~ 2012.09.02.
10	▽2	리얼 버라이어티 코믹극 배꼽 - 강남역	강남역 강남아트홀 1관	2.5%	2010.08.08. ~ 2012.08.31.

* 출처 : 인터파크 티켓 (순위 집계: 7. 1. ~ 7. 31. 판매매수 기준)

01 출판

02 만화

03 음악

04 공연

05 게임

06 영화

07 애니메이션

08 캐릭터

09 방송

10 광고

11 지식정보



01 출판

02 만화

03 음악

04 공연

05 게임

06 영화

07 애니메이션

08 캐릭터

09 방송

10 광고

11 지식정보

콘서트 티켓판매 순위에서는 9월 15일에 잠실종합운동장 보조경기장에서 열리는 Maroon 5의 내한공연이 14.8%의 점유율로 1위에 올랐다. 서울 공연 전날인 14일에 펼쳐지는 같은 밴드의 부산 공연도 4위에 올라왔다. 새 앨범을 발매하고 활동 중인 싸이의 '휠씬 THE 흠뻑쇼'는 10.4%의 점유율을 기록하며 2위를 차지했다. 5일에 걸쳐 진행되는 인기 아이돌 그룹 인피니트의 단독콘서트 '그 해 여름'은 점유율 6.4%로 3위에 올랐다.

클래식/오페라 분야에서는 정명훈이 지휘를 맡고 안젤라 게오르규와 비토리오 그리골로가 출연하는 야외 오페라 '라보엠'이 1위를 차지했다. 9월 8일 올림픽공원 88마당 야외무대에서 펼쳐지는 '2012 파크 콘서트 Piano Paradiso'는 3.7%의 점유율로 2위에 올랐다. Piano Paradiso는 뉴에이지 피아니스트인 유키 구라모토, 스티브 바라캇, 이루마가 출연하는 야외 콘서트이다. 8월 4일 개최된 '아시아 필하모닉 오케스트라(APO)와 유니세프가 함께하는 북한 어린이를 위한 자선음악회'는 3위에 올랐다.

3. 콘서트

순위	변동	공연명	공연장	점유율	공연기간
1	New	2012 Maroon 5 LIVE IN SEOUL 내한공연	잠실종합운동장 보조경기장	14.8%	2012.09.15.
2	△1	SAMUNGCARD SELECT 07 싸이의 휠씬 THE 흠뻑쇼	잠실종합운동장 보조경기장	10.4%	2012.08.11.
3	New	2012 INFINITE CONCERT "그 해 여름"	AX-KOREA(악스 코리아)	6.4%	2012.08.08. ~ 2012.08.12.
4	New	2012 Maroon 5 LIVE IN BUSAN	부산 사직실내체육관	4.8%	2012.09.14.
5	▽3	Heineken presents sensation	일산 킨텍스(KINTEX)	3.5%	2012.07.21.
6	-	지산밸리룩페스티벌	지산 포레스트 리조트	3.0%	2012.07.27. ~ 2012.07.29.
7	▽2	컬투쇼 홀.랑.적.SHOW!	성균관대학교 새천년홀	2.8%	2012.07.20. ~ 2012.08.19.
8	△15	슈퍼! 소닉 2012	올림픽공원	2.5%	2012.08.14. ~ 2012.08.15.
9	New	올림픽세션 첫번째 5대도시 투어 콘서트 <THE BEGINNING>	올림픽공원 내 올림픽홀	1.8%	2012.08.25. ~ 2012.08.26.
10	△17	2012 인천 펜타포트 락 페스티벌	경인아라뱃길 인천터미널 (정서진)	1.7%	2012.08.10. ~ 2012.08.12.

* 출처 : 인터파크 티켓 (순위 집계: 7. 1. ~ 7. 30. 판매매수 기준)

4. 클래식/오페라

순위	변동	공연명	공연장	점유율	공연기간
1	New	마에스트로 정명훈과 안젤라 게오르규와 비토리오 그리골로의 <라보엠>	연세대학교 노천극장	6.8%	2012.08.28. ~ 2012.09.02.
2	New	2012 파크 콘서트 Piano Paradiso	올림픽공원 88마당 야외무대	3.7%	2012.09.08.
3	New	2012 아시아필하모닉오케스트라 APO (마에스트로 정명훈)	연세대학교 노천극장	2.8%	2012.08.04.
4	New	서울시합창단 제 129회 정기연주회	세종문화회관 대극장	2.6%	2012.08.18.
5	New	유키구라모토내한공연 Fall in Love - 안산	안산문화예술의전당 해돋이극장	2.4%	2012.09.13.
6	▽1	막심 므라비차 내한공연 - 대전	대전문화예술의전당 아트홀	2.1%	2012.07.14.
7	▽5	제9회 대관령국제음악제	알펜시아 콘서트홀	1.9%	2012.07.26. ~ 2012.08.05.
8	New	유키구라모토 내한공연 'Fall' in Love - 이천	이천아트홀 대공연장	1.7%	2012.09.15.
9	New	2012 수원국제음악제	경기도문화의전당 행복한대극장	1.6%	2012.08.23. ~ 2012.08.24.
10	△7	2012 장한나의 애플루트 클래식 IV - CONCERT II	성남아트센터 오페라하우스	1.6%	2012.08.25.

* 출처 : 인터파크 티켓 (순위 집계: 7. 1. ~ 7. 31. 판매매수 기준)



국악/무용 분야에서는 한국인 발레리나 서희가 수석무용수로 활동하고 있는 아메리칸발레시어터(ABT)의 '지젤' 내한공연이 1위에 올랐다. 슈투트가르트 발레단의 프리마돈나인 강수진의 발레 갈라 쇼 '강수진과 친구들'의 전주 공연이 2위에 올랐으며 유니버설발레단의 '로미오와 줄리엣'은 9.1%로 3위를 차지했다.

5. 국악/무용

순위	변동	공연명	공연장	점유율	공연기간
1	△4	2012 ABT 지젤 in Korea	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	16.9%	2012.07.18. ~ 2012.07.22.
2	△5	월드발레스타 갈라 <강수진과 친구들> - 전주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모악당	10.0%	2012.07.21.
3	▽1	유니버설발레단 <로미오와 줄리엣>	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	9.1%	2012.07.07. ~ 2012.07.14.
4	-	월드 발레스타 갈라 <강수진과 친구들>-대전	대전문화예술의전당 아트홀	8.0%	2012.07.17. ~ 2012.07.18.
5	New	경기도립국악단 기획공연 '청소년 국악여행 - 우리음악 스낵십'	경기도문화의전당 아늑한소극장	7.5%	2012.08.11. ~ 2012.08.12.
6	New	2012 별빛달빛콘서트	서울남산국악당	6.7%	2012.08.08. ~ 2012.08.12.
7	New	KDB대우증권 창립42주년 마린스키 발레 <백조의 호수>	세종문화회관 대극장	5.1%	2012.11.12. ~ 2012.11.13.
8	△2	백조의 호수	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	4.6%	2012.07.26. ~ 2012.07.29.
9	New	여름방학 특별기획 청소년음악회 "2012 Cldn 국악 속으로"	세종문화회관 대극장	4.2%	2012.08.16.
10	New	국립발레단 -백조의 호수-	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	3.9%	2012.12.07. ~ 2012.12.12.

* 출처 : 인터파크 티켓 (순위 집계: 7. 1. ~ 7. 31. 판매매수 기준)

01 출판

02 만화

03 음악

04 공연

05 게임

06 영화

07 애니메이션

08 캐릭터

09 방송

10 광고

11 지식 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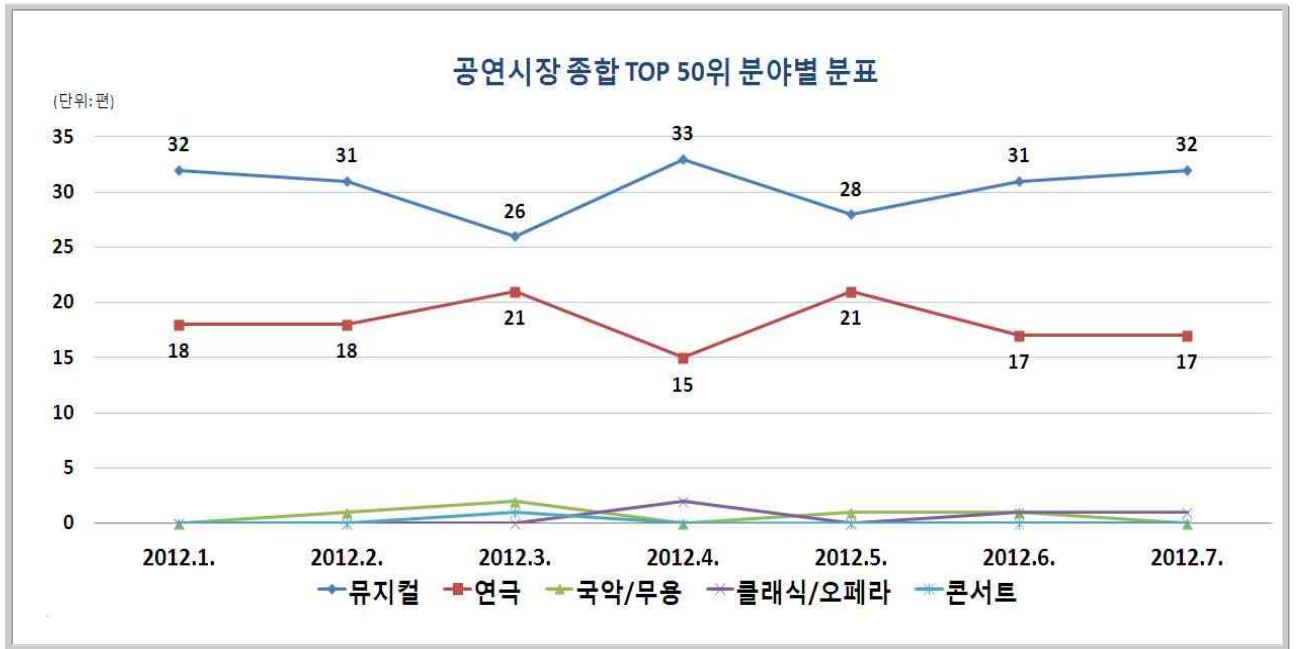


7월 공연시장 종합 50위를 분야별 분포로 살펴보면 뮤지컬이 32개로 1위를 차지했다. 뮤지컬은 매월 순위 중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1월부터 7월까지 총 213편(60.9%)을 순위권에 올리며 공연시장을 이끈 것으로 집계됐다. 뮤지컬에 이어 17개 공연이 50위권에 오른 연극이 2위를 차지했고 국악/무용, 클래식/오페라, 콘서트는 아주 적은 수의 공연만이 순위권에 올랐다. 이는 장기간에 걸쳐 공연하는 뮤지컬, 연극에 비해 콘서트나 공연은 1회나 수회에 그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 공연시장 종합 TOP 50위 분야별 분포 (2012. 1. ~ 2012. 7.)

순위	분야	2012. 1.	2012. 2.	2012. 3.	2012. 4.	2012. 5.	2012. 6.	2012. 7.
1	뮤지컬	32	31	26	33	28	31	32
2	연극	18	18	21	15	21	17	17
3	국악/무용	0	1	2	0	1	1	0
4	클래식/오페라	0	0	0	2	0	1	1
5	콘서트	0	0	1	0	0	0	0

* 출처: 인터파크 티켓, 한국콘텐츠진흥원 채구성



01 출판

02 만화

03 음악

04 공연

05 게임

06 영화

07 애니메이션

08 캐릭터

09 방송

10 광고

11 지식 정보



05 게임

7월 온라인게임 순위에서는 6월 21일에 출시된 ‘블레이드 & 소울’이 1위를 차지했다. ‘블레이드 & 소울’은 상용화에 이어 한 달 만에 ‘3막 수월평원’을 업데이트하며 유저들의 이목을 붙잡는데 성공했다. 또한 8월 16일 중국에서의 포커스 그룹 테스트를 앞두고 있어 중국시장에서의 반응도 기대된다. 차세대 e-Sports 주자로 떠오르고 있는 리그 오브 레전드는 6월에 이어 2위에 올랐다. 온게임넷을 통해 방송된 Lol the Champions Spring 대회 결승전이 동시간대 시청률 2위를 기록하고, Summer 대회가 진행되는 등 당분간 리그 오브 레전드의 인기는 계속될 전망이다. ‘디아블로 3’는 전월대비 50%에 가까운 큰 폭의 이용시간 하락을 보이며 3위로 내려갔다. 2.0 업데이트와 함께 인기 아이돌 그룹 miss A의 수지를 광고 모델로 내세운 서든어택은 4위를 유지했고, ‘피파온라인2’는 사용시간이 20.4% 증가하며 5위로 1단계 상승했다. 신규 월드와 신규 직업 등 대형 업데이트를 단행한 메이플 스토리는 전월대비 160%가 넘는 높은 증가율을 보이며 8위에 올랐다.

TOP 20 중 국내 개발사의 게임은 14개로 지난달과 동일하였으나 6월 52%였던 국내 개발사 게임 점유율은 7월 65%로 상승하여 국산 게임의 강세가 더욱 두드러졌다. 6개의 해외 개발사 게임 중 블리자드 게임이 5개나 포함되어 국내 시장에서 블리자드 게임에 대한 높은 인기를 알 수 있다. TOP 20위 게임의 사용시간 합계는 6월(6,014,049)에 비해 7월(6,514,253)에 소폭 상승했다. 이는 많은 게임사들이 여름방학을 맞이한 학생들을 겨냥하여 대규모 업데이트 및 이벤트를 진행한 효과로 풀이된다.

한편, 하반기에는 상반기 ‘디아블로 3’와 ‘블레이드 & 소울’을 피해 출시를 미룬 다채로운 신작 게임들의 출시가 이어질 예정이며 그 중에서도 ‘피파온라인3’, ‘워닝일레븐 온라인’ 등 대형 스포츠 게임의 발매가 기대된다.

▶ 온라인게임 종합 TOP 20 (7월)

순위	변동	게임명	장르	이용시간(시간)	이용시간 점유율(%)	전월대비 증감율(%)	평균체류 시간(분)	개발사	유통사
1	△5	블레이드 & 소울	RPG	1,297,547	17.10%	10.96%p	143	엔씨소프트	엔씨소프트
2	-	리그 오브 레전드	RTS	1,235,536	16.28%	1.60%p	118	라이엇 게임즈	라이엇 게임즈
3	▼2	디아블로 3	RPG	907,831	11.96%	-14.64%p	134	블리자드	블리자드
4	-	서든어택	FPS	581,585	7.66%	1.12%p	69	게임하이	CJ E&M/넥슨
5	-	피파온라인2	스포츠	516,571	6.81%	0.72%p	49	EA/네오위즈게임즈	네오위즈게임즈
6	▼3	아이온	RPG	397,660	5.24%	-1.40%p	161	엔씨소프트	엔씨소프트
7	-	스타크래프트	RTS	268,158	3.53%	0.09%p	68	블리자드	블리자드
8	△4	메이플 스토리	RPG	237,330	3.13%	1.84%p	61	넥슨	넥슨
9	▼1	워크래프트 3	RTS	218,924	2.88%	0.06%p	74	블리자드	블리자드
10	▼1	리니지	RPG	159,149	2.10%	0.06%p	116	엔씨소프트	엔씨소프트
11	△2	던전앤파이터	RPG	121,574	1.60%	0.33%p	76	네오플	넥슨
12	▼1	사이퍼즈	RPG	99,299	1.31%	-0.05%p	114	네오플	넥슨
13	▼3	리니지 2	RPG	87,466	1.15%	-0.20%p	172	엔씨소프트	엔씨소프트
14	△1	카트라이더	레이싱	78,169	1.03%	0.15%p	41	넥슨	넥슨
15	▼1	스페셜포스	FPS	68,690	0.91%	-0.04%p	92	드래곤플라이	네오위즈게임즈
16	△1	한게임 로우바독이	포커	51,448	0.68%	-0.06%p	36	NHN	NHN
17	△2	스타크래프트2	RTS	48,016	0.63%	0.04%p	74	블리자드	블리자드
18	▼2	테라	RPG	47,843	0.63%	-0.19%p	110	블루홀 스튜디오	NHN
19	△3	카운터스트라이크온라인	FPS	47,469	0.63%	0.13%p	59	넥슨	넥슨
20	▼2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RPG	43,988	0.58%	-0.04%p	105	블리자드	블리자드

* 출처: 게임트릭스 (www.gametrics.com)

01 출판

02 만화

03 음악

04 공연

05 게임

06 영화

07 애니메이션

08 캐릭터

09 방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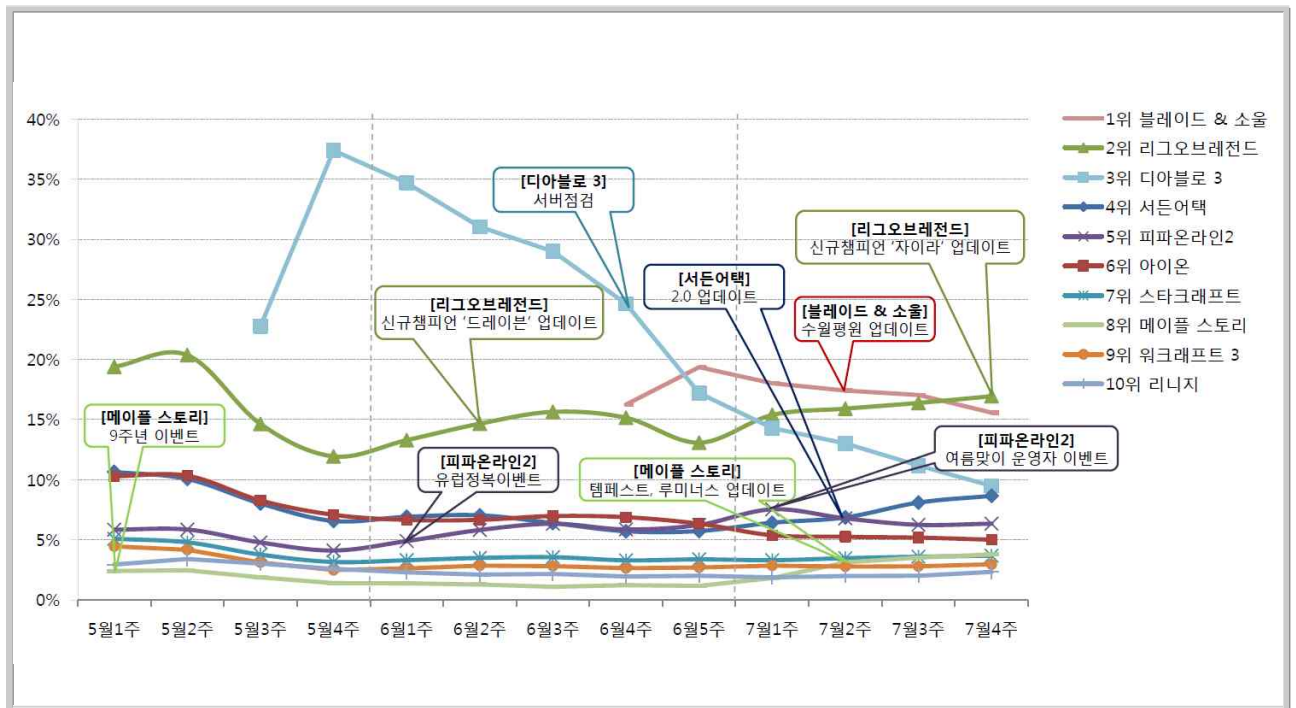
10 광고

11 지식정보



7월 온라인게임 점유율의 추이는 '블레이드 & 소울'과 '리그 오브 레전드'의 경합이었다. 두 게임은 7월 내내 1, 2위를 다투었다. 종합순위에서는 '블레이드 & 소울'이 1위를 차지했으나 마지막 주에는 '리그 오브 레전드'가 1위에 올랐다. '디아블로 3'는 6월부터 떨어지기 시작한 점유율이 7월에도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3위에 그쳤다. 이는 경쟁작인 '블레이드 & 소울'의 출시뿐만 아니라 즐길 수 있는 콘텐츠가 한정되어 있다는 패키지 게임의 한계에서 비롯된 것으로 파악된다. 반면 2.0 업데이트를 통해 그래픽, 효과, 사운드를 대폭 개선하고 신규 게임 모드와 아이템을 추가한 '서든어택'은 '디아블로 3'와의 격차를 좁히며 4위를 기록했다.

▶ 온라인게임 점유율 추이 (2012. 5. ~ 2012. 7.)



* 출처: 게임트릭스 (www.gametrics.com)



7월 온라인게임 장르별 현황에서는 5월과 6월 상승했던 RPG 장르의 점유율이 3.6%p 하락하며 50% 이하로 떨어졌다. '블레이드 & 소울'의 점유율이 높아졌으나 '디아블로 3'와 '아이온' 등 다른 RPG 게임의 점유율이 전반적으로 하락한 것이 원인이다. RPG의 뒤를 이어 2위를 기록한 RTS(실시간전략게임)는 전월 대비 1.8%p 상승한 23.8%를 기록했다. '서든어택'과 '카운터 스트라이크'의 선전에 힘입어 FPS(1인칭슈팅게임)는 1.2%p 상승한 10.4%로 3위에 올랐다. 9.3%(0.5%p 상승)의 점유율을 차지한 스포츠가 4위를 기록했고, 아케이드·포커·보드·레이싱·고스톱 등의 장르는 모두 3% 미만에 머물렀다.

2011년 2분기와 2012년 7월의 장르별 점유율을 비교하면, RPG가 43.40%에서 47.43%로 상승했고, RTS가 15.95%에서 23.77%로 크게 상승한 반면, 다른 장르들은 소폭 하락했다. 2011년 2분기 59.35%였던 RPG와 RTS의 점유율 합계는 2012년 7월에 71.20%로 크게 상승하였다. 이는 '블레이드 & 소울', '리그 오브 레전드', '디아블로3'의 출시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생각된다.

▶ 온라인게임 장르별 현황

1. 장르별 이용 현황 (7월)

장르명	사용시간 (시간)	점유율(%)		기간대비 등록현황(개)				PC방당 사용시간(분)	평균체류 시간(분)	평균이용 횟수(회)	일간평균 접속자수	일간최대 접속자수
		점유율	증감률	전체	상승	하락	보합					
RPG	3,599,643	47.43%	-3.55%	184	75	93	12	1,252	123	1,759,659	4,659,232	9,112,131
RTS	1,803,618	23.77%	1.81%	8	0	2	5	1,631	99	1,096,834	2,330,859	4,406,567
보드	114,069	1.50%	0%	32	5	5	21	127	63	107,944	147,602	273,827
레이싱	103,019	1.36%	0.24%	6	0	0	6	243	42	146,916	133,270	336,796
FPS	791,905	10.44%	1.16%	25	3	4	18	685	70	680,685	1,023,554	2,418,798
아케이드	192,589	2.54%	0.05%	37	8	9	20	173	54	214,584	249,010	616,782
스포츠	703,655	9.27%	0.53%	21	4	5	12	575	51	822,428	908,387	2,032,640
고스톱	108,887	1.43%	-0.06%	32	8	6	18	126	39	167,746	140,862	264,899
포커	171,478	2.26%	-0.18%	24	2	3	18	138	29	351,897	221,519	384,880

* 출처: 게임트릭스 (www.gametrics.com)

2. 장르별 점유율 추이 (2011. 1Q ~ 2012. 7)

장르명	2011. 1Q	2011. 2Q	2011. 3Q	2011. 4Q	2012. 1Q	2012. 2Q	2012. 4.	2012. 5.	2012. 6.	2012. 7.
RPG	47.85%	43.40%	41.33%	40.14%	36.77%	44.20%	34.81%	44.95%	50.95%	47.43%
RTS	13.09%	15.95%	16.60%	17.36%	22.49%	24.74%	28.41%	24.59%	21.97%	23.77%
FPS	15.56%	14.44%	16.46%	15.46%	16.87%	11.89%	15.00%	12.00%	9.30%	10.44%
스포츠	9.37%	11.62%	11.87%	13.40%	10.83%	8.70%	9.05%	8.34%	8.77%	9.27%
아케이드	3.73%	3.83%	3.97%	3.97%	3.56%	2.88%	3.42%	2.84%	2.49%	2.54%
포커	4.04%	4.32%	3.75%	3.87%	3.80%	2.98%	3.79%	2.87%	2.43%	2.26%
고스톱	2.52%	2.61%	2.29%	2.14%	2.02%	1.70%	2.07%	1.62%	1.48%	1.43%
레이싱	2.03%	1.87%	1.93%	1.86%	1.84%	1.32%	1.58%	1.31%	1.12%	1.36%
보드	1.81%	1.95%	1.81%	1.80%	1.82%	1.59%	1.86%	1.47%	1.49%	1.50%

* 출처: 게임트릭스 (www.gametrics.com)

01 출판

02 만화

03 음악

04 공연

05 게임

06 영화

07 애니메이션

08 캐릭터

09 방송

10 광고

11 지식정보



7월 게임 제작사별 점유율에서는 ‘블레이드 & 소울’의 인기로 힘입어 엔씨소프트가 25.81%의 점유율로 1위에 올랐다. 엔씨소프트의 점유율이 6월보다 9.58%p 증가한데 반해 블리자드는 14.57%p 하락하며 2위로 내려앉았다. 넥슨과 네오위즈게임즈는 각각 13.26%와 10.03%의 점유율로 3, 4위를 기록했다. 엔씨소프트와 넥슨의 합산 점유율은 40%에 육박하고 상위 5개 업체의 합산 점유율이 75%를 차지해 대형 게임회사의 시장 지배력이 커졌음을 알 수 있다.

▶ 게임 제작사별 점유율 (7월)

순위	게임사명 (사용시간 기준 정렬)	사용시간 (시간)	점유율		전월 대비 보유게임 등락현황 (개)			
			점유율	증감률	전체	상승	하락	보합
1	엔씨소프트	1,953,824	25.81%	9.58%p	9	4	5	0
2	블리자드	1,486,924	19.65%	-14.57%p	6	1	4	1
3	넥슨	1,003,375	13.26%	3.12%p	26	19	5	2
4	네오위즈게임즈	758,825	10.03%	0.58%p	38	13	21	4
5	CJ E&M	491,966	6.50%	0.46%p	44	21	21	2
6	NHN	273,406	3.61%	-0.39%p	31	11	15	5
7	JCE	88,580	1.17%	-0.11%p	6	1	5	0
8	예당온라인	30,240	0.40%	-0.05%p	5	3	2	0
9	원디소프트	27,761	0.37%	0.03%p	4	1	3	0
10	엠게임	27,641	0.37%	-0.02%p	32	23	9	0
11	웹젠	14,669	0.19%	-0.02%p	3	1	2	0
12	게임하이	9,185	0.12%	0.01%p	2	2	0	0
13	YNK코리아	8,267	0.11%	-0.01%p	1	0	1	0
14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	7,842	0.10%	-0.01%p	9	4	5	0
15	한빛소프트	7,452	0.10%	-0.02%p	9	2	7	0
16	KTH	7,077	0.09%	0.02%p	5	2	3	0
17	라이브플렉스	5,657	0.07%	-0.03%p	5	2	3	0
18	이스트소프트	5,240	0.07%	-0.02%p	2	1	1	0
19	그라비티	2,902	0.04%	-0.02%p	6	1	3	2
20	액토즈소프트	2,596	0.03%	-	5	3	1	1
21	엔플루토	886	0.01%	-	1	1	0	0
22	바른손게임즈	269	0.00%	-	2	2	0	0

* 출처: 게임트릭스 (www.gametrics.com)

- 01 출판
- 02 만화
- 03 음악
- 04 공연
- 05 게임
- 06 영화
- 07 애니메이션
- 08 캐릭터
- 09 방송
- 10 광고
- 11 지식 정보



7월은 게임로프트의 구, 신작이 전 스토어에서 다수 순위권 안에 들며 변함없는 인기를 유지했다. 영화의 감동을 그대로 느낄 수 있는 ‘어메이징 스파이더맨’, 디테일해진 그래픽과 다양한 차량을 앞세운 자동차경주 게임 ‘아스팔트 7 : 히트’는 유저들의 호평이 이어지며 주목받았다. <구글플레이>에서는 ‘아스팔트7 : 히트’가 아직 출시되지 않아 구작인 ‘아스팔트 6 : 아드레날린’이 1위를 차지했다. 앵그리버드를 개발한 로비오의 신작 ‘Amazing Alex’도 앱스토어 2위에 안착했다. ‘Amazing Alex’는 각종 도구를 활용해 공을 정해진 장소로 옮기는 퍼즐게임이다. 무료 게임 차트에서는 ‘카트라이더 러쉬+’가 <구글플레이>와 <T스토어>에서 상위권에 오르며 인기를 모았다. PC온라인게임 카트라이더를 완벽하게 이식한 ‘카트라이더 러쉬+’는 기존 버전에서 단점으로 꼽았던 네트워크 플레이를 개선한 것이 특징이다.

➤ 모바일 게임 TOP 5 (7월)

1. 구글플레이

순위	유료 APP.			무료 APP.	
1	아스팔트 6 : 아드레날린	자동차 경주	₩1,000	카트라이더 러쉬+	자동차 경주
2	팔라독	아케이드 게임	₩3,000	한게임 사천성	두뇌게임 및 퍼즐
3	Where's My Water?	두뇌게임 및 퍼즐	₩1,122	타이니팜	캐주얼 게임
4	Minecraft - Pocket Edition	아케이드 게임	₩6,420	Temple Run	아케이드 게임
5	어메이징 스파이더맨	아케이드 게임	₩5,000	Smurfs' Village	캐주얼 게임

2. 앱스토어

순위	유료 APP.			무료 APP.	
1	아스팔트 7 : 히트	레이싱	\$ 0.99	Hit Tennis	스포츠
2	Amazing Alex	퍼즐	\$ 0.99	King of Math	퍼즐
3	Wannabat PLUS	스포츠	\$ 1.99	Tap Tap Revenge Tour	음악
4	엑시티움	어드벤처	\$ 2.99	A Secret Letter from my Father	어드벤처
5	Infinity Blade	액션	\$ 5.99	GUN ZOMBIE : HELL GATE	액션

3. 티스토어

순위	유료 APP.			무료 APP.	
1	어메이징 스파이더맨	액션	₩5,000	몬스터워로드	RPG
2	WinningEleven 2012	스포츠	₩5,000	레전더리히어로즈	RPG
3	팔라독	액션	₩3,000	AV월드스타맛고	퍼즐/보드
4	드래곤나이트4 PLUS	RPG	₩5,000	가자 신대륙	시뮬레이션
5	강철손의 낚시여행4	RPG	₩4,000	카트라이더 러쉬+	스포츠

* 출처: <월간 앱스토리 8월호>, 7월 한 달간의 다운로드 수치 집계

01 출판

02 만화

03 음악

04 공연

05 게임

06 영화

07 애니메이션

08 캐릭터

09 방송

10 광고

11 지식 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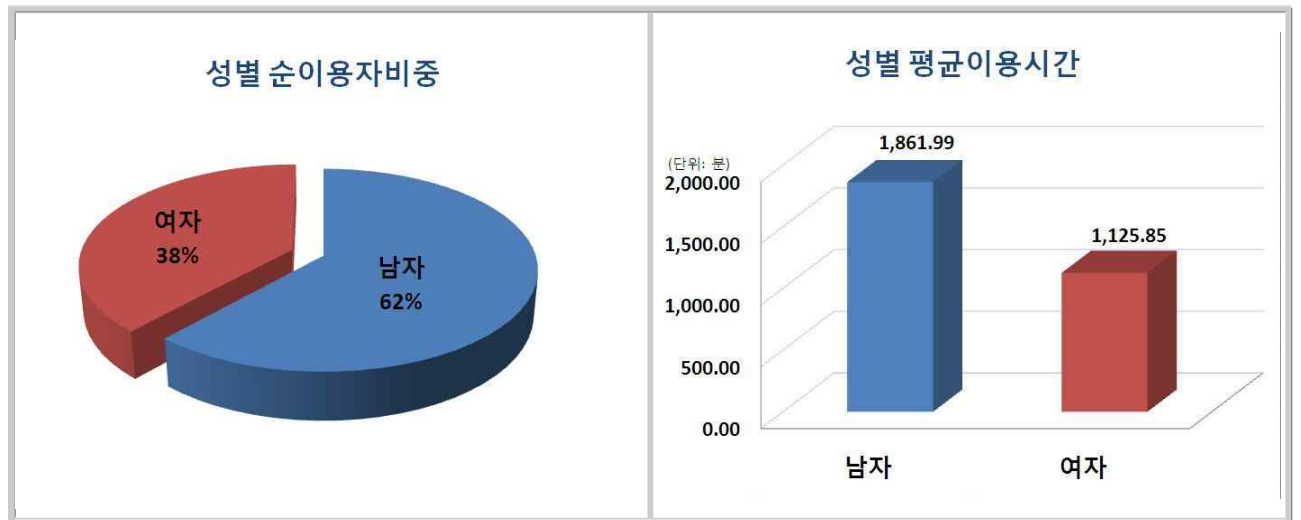
7월 게임 이용자 통계에 따르면 온라인게임 순이용자는 남자 671만 명과 여자 418만 명으로, 6월 통계와 비교했을 때 남자 순이용자는 30만 명, 여자 순이용자는 40만 명 가량 증가했다. 이에 따라 남녀 순이용자비중은 여자 순이용자비중이 1% 가량 상승한 62% 대 38%로 나타났다. 월간 평균재방문일수는 남자(11.34일)가 여자(8.08일)보다 3일 많은 것으로 집계되었고, 월간 이용시간도 남자(1,861분)가 여자(1,125분)보다 736분 긴 것으로 나타났다.

▶ 온라인게임 이용자 통계

1. 성별 이용 행태 (7월)

분류	순이용자 ¹⁾	도달률(%) ¹²⁾	순이용자비중(%) ¹³⁾	평균게임이용개수 ¹⁴⁾	평균재방문일수(일) ¹⁵⁾	평균이용시간(분) ¹⁶⁾
남자	6,715,622	20.00	61.63	2.06	11.34	1,861.99
여자	4,180,269	12.45	38.37	1.86	8.08	1,125.85
합계	10,895,891	32.46	100.00	1.98	10.09	1,579.57

* 본 데이터는 패널로 선출된 국내 인터넷 사용자의 PC에 설치된 소프트웨어를 통해 집계되는 통계적 추정치로써 오차가 발생할 수 있음
 * 출처: 닐슨 코리아클릭 (www.koreanclick.com)



- 11) 순이용자: 해당 기간 동안 게임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한 중복되지 않은 인터넷 이용자
- 12) 도달률: 전체 인터넷 사용자 중 측정 기간 동안 게임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한 순이용자수의 비중
- 13) 순이용자비중: 게임 애플리케이션 이용자 수를 100으로 가정할 때 특정 세그먼트가 게임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한 비중
- 14) 평균게임이용개수: 한 달간 이용자 1인당 평균 게임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한 개수
- 15) 평균재방문일수: 전체 인터넷 사용자 중 해당 App.을 쓰고 있는 이용자가 한 달 동안 App.을 이용하는 일수
- 16) 평균이용시간: 한 달간 App.을 이용한 평균 시간을 의미

- 01 출판
- 02 만화
- 03 음악
- 04 공연
- 05 게임
- 06 영화
- 07 애니메이션
- 08 캐릭터
- 09 방송
- 10 광고
- 11 지식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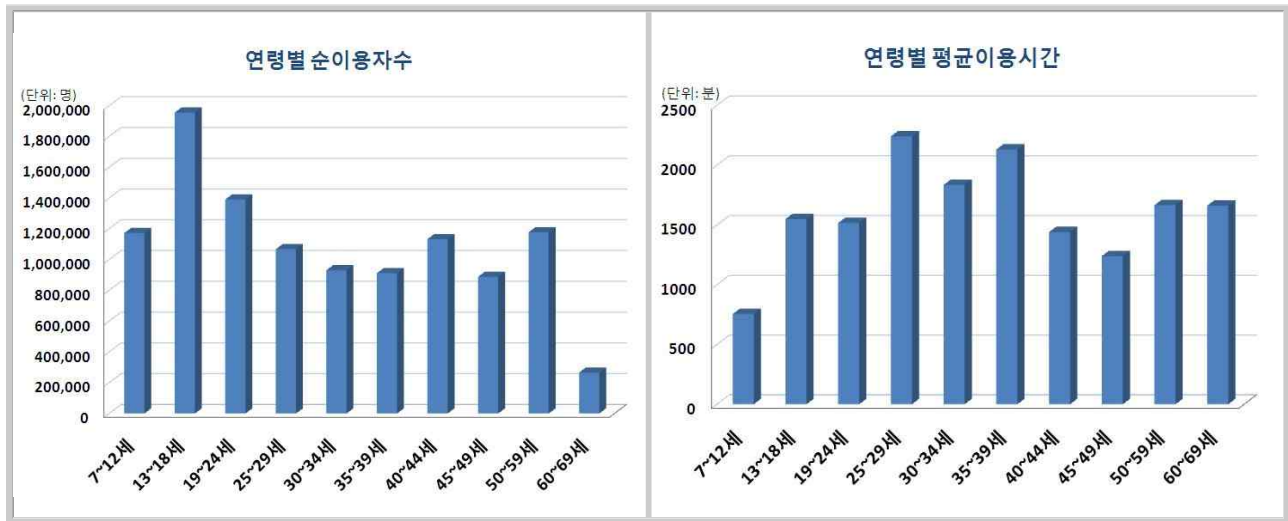


연령별로는 순이용자수 및 도달률, 평균게임이용개수, 평균재방문일수에서 13~18세가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25~29세는 평균 2,242분을 사용하여 평균이용시간이 가장 높은 연령대로 나타났고, 2,131분을 기록한 35~39세가 그 뒤를 이었다. 6월 통계와 비교했을 때 7세~12세부터 25~29세까지의 연령대에서 순이용자와 평균이용시간이 고르게 증가했는데 이는 여름방학의 영향으로 파악된다.

2. 연령별 이용 행태 (7월)

분류	순이용자	도달률(%)	순이용자비중(%)	평균게임이용개수	평균재방문일수(일)	평균이용시간(분)
7~12세	1,172,724	3.49	10.76	2.10	8.55	754.67
13~18세	1,955,901	5.83	17.95	2.38	12.20	1,549.52
19~24세	1,390,833	4.14	12.76	1.97	8.43	1,516.85
25~29세	1,068,169	3.18	9.80	1.86	11.42	2,242.17
30~34세	930,870	2.77	8.54	1.94	9.34	1,834.99
35~39세	912,237	2.72	8.37	1.74	9.03	2,131.53
40~44세	1,133,159	3.38	10.4	1.81	8.60	1,441.07
45~49세	888,013	2.65	8.15	1.82	9.07	1,239.46
50~59세	1,177,783	3.51	10.81	1.90	12.17	1,665.58
60~69세	266,202	0.79	2.44	1.75	11.65	1,662.07

* 본 데이터는 패널로 선출된 국내 인터넷 사용자의 PC에 설치된 소프트웨어를 통해 집계되는 통계적 추정치로써 오차가 발생할 수 있음
 * 출처: 닐슨 코리아클릭 (www.koreanclick.com)



01 출판

02 만화

03 음악

04 공연

05 게임

06 영화

07 애니메이션

08 캐릭터

09 방송

10 광고

11 지식 정보



01 출판

02 만화

03 음악

04 공연

05 게임

06 영화

07 애니메이션

08 캐릭터

09 방송

10 광고

11 지식 정보

직업별 이용 행태에서는 6월에 이어 학생이 순이용자수(4,601명) 및 도달률(13.7%)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이용시간에서는 무직/기타(2,590분)가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되었고 생산직(2,291분)이 뒤를 잇고 있다. 전업주부는 949분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를 기록했으나 6월에 비해 130분 상승하여 학생에 이어 평균이용시간이 두 번째로 많이 상승한 직업군으로 집계됐다.

가구소득별 특성은 300만원~500만원의 게임 순이용자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이용시간은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많아졌으며 500만원 이상의 이용시간이 가장 많았다.

3. 직업별 이용 행태 (7월)

분류	순이용자	도달률(%)	순이용자비중(%)	평균게임이용개수	평균재방문일수(일)	평균이용시간(분)
사무직	3,269,177	9.74	30	1.8	9.72	1,608.31
생산직	926,764	2.76	8.51	2.04	9.8	2,291.62
자영업	636,792	1.9	5.84	2.06	12.67	1,751.15
학생	4,601,131	13.71	42.23	2.15	10.27	1,419.90
전업주부	979,213	2.92	8.99	1.75	8.58	949.86
무직/기타	482,814	1.44	4.43	1.85	11.17	2,590.54

4. 가구소득별 이용 행태 (7월)

분류	순이용자	도달률(%)	순이용자비중(%)	평균게임이용개수	평균재방문일수(일)	평균이용시간(분)
100만원 미만	405,202	1.21	3.72	2.26	8.99	1,476.35
100만원~300만원	2,801,562	8.35	25.71	2.05	10.14	1,508.28
300만원~500만원	4,673,775	13.92	42.89	1.93	10.14	1,594.23
500만원 이상	3,015,352	8.98	27.67	1.96	10.12	1,636.94

* 본 데이터는 패널로 선출된 국내 인터넷 사용자의 PC에 설치된 소프트웨어를 통해 집계되는 통계적 추정치로써 오차가 발생할 수 있음
* 출처: 님스 코리아클릭 (www.koreanclick.com)





7월 게임물 등급분류 결정 현황(게임물등급위원회)에 따르면 226건의 게임에 대한 등급분류 심의가 이루어져 그 중 189건에 대한 등급이 확정되었다. 이중 '전체 이용가'가 99건(43.8%)으로 가장 많았고 '청소년 이용불가'가 66건(29.2%), '12세 이용가'가 17건(7.5%), '15세 이용가'가 7건(3.1%)로 나타났다. 등급분류가 거부된 게임은 총 37건이었는데 모두가 '아케이드 게임'이었다.

장르별 분류에서는 '보드게임(베테징)'이 35건(18.5%)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퍼즐', '캐주얼', '액션' 등의 장르가 순서대로 그 뒤를 이었다. 플랫폼별 분류로는 'PC·온라인게임'이 66건으로 가장 많았고 '아케이드 게임'과 '모바일 게임'이 각각 48건, 43건을 기록했다.

▶ 게임물 등급분류 결정

1. 플랫폼별 등급분류 결정 현황 (7월)

구분	아케이드	PC·온라인	비디오콘솔	모바일(오픈마켓)	합계	비율(%)
전체 이용가	38	35	15	11(8)	99	43.8
12세 이용가	-	9	5	3(3)	17	7.5
15세 이용가	-	1	5	1	7	3.1
청소년 이용불가	10[10]	21	7	28(23)	66	29.2
등급분류 소계	48	66	32	43(34)	189	83.6
등급분류 거부	37[10]	-	-	-	37	16.4
합계	85[20]	66	32	43(34)	226	100.0

2. 장르별 등급분류 결정 현황 (7월)

구분	아케이드	PC·온라인	비디오콘솔	모바일	합계	비율(%)
보드게임(베테징)	10[10]	10	-	15(13)	35	18.5
퍼즐	19	6	-	5(5)	30	15.9
캐주얼	-	16	3	5(2)	24	12.7
액션	-	2	14	2(1)	18	9.5
FPS [1인칭슈팅]	8	3	2	2(1)	15	8.0
시뮬레이션	-	8	-	4(4)	12	6.4
스포츠	3	4	-	2(2)	9	4.8
기타	7	-	1	1(1)	9	4.8
전략시뮬레이션	-	3	4	1(1)	8	4.2
롤플레이	-	4	3	1(1)	8	4.2
보드게임	-	2	-	5(3)	7	3.7
MMORPG	-	5	-	-	5	2.6
어드벤처	-	2	2	-	4	2.1
격투게임	-	-	3	-	3	1.6
레이싱	-	1	-	-	1	0.5
교육용	1	-	-	-	1	0.5
합계	48[10]	66	32	43(34)	189	100

* []안의 숫자는 청소년이용불가 아케이드 게임물임

* 출처: 게임물등급위원회(<http://www.grb.or.kr>)

01 출판

02 만화

03 음악

04 공연

05 게임

06 영화

07 애니메이션

08 캐릭터

09 방송

10 광고

11 지식 정보



06 영화

01 출판

02 만화

03 음악

04 공연

05 게임

06 영화

07 애니메이션

08 캐릭터

09 방송

10 광고

11 지식정보

7월 박스오피스 순위에서는 7월 19일 개봉한 '다크 나이트 라이즈'가 매출액 339억 원, 관객수 459만 명을 동원하며 1위를 차지했다. 7월 5일 개봉한 김명민, 문정희 주연의 재난 드라마 '연가시'가 445만 명의 관객을 동원하며 2위를 기록했고, 7월 마지막 주에 개봉한 '도둑들'이 1주일만에 386만 명을 기록하며 3위에 올랐다. '어메이징 스파이더맨', '아이스 에이지 4: 대륙 이동설!'이 각각 관객수 366만 명, 69만 명을 기록하며 그 뒤를 이었다.

전통적으로 월별 관객 수가 많은 7월이긴 하지만 월 관객 350만 명이 넘는 영화가 4편이나 나왔다. 이는 10대 학생만이 아니라 30·40대들에게도 관심을 불러일으킬만한 할리우드 블록버스터 영화와 한국의 주요 투자배급사들이 전략적으로 기획한 흥행 대작들이 대거 개봉했기 때문이다.

한편 박스오피스 상위 15위 영화의 제작 국가는 한국 7편, 미국 6편, 일본 2편을 각각 기록했다.

▶ 박스오피스 순위 TOP 15 (7월)

순위	제목	배급사	제작	개봉일	스크린수	매출액 (백만원)	관객수 (천 명)	누적관객수 (천 명)
1	다크 나이트 라이즈	위너브러더스코리아(주)	미국	2012-07-19	1,210	33,899	4,590	4,590
2	연가시	씨제이이엔엠 주식회사	한국	2012-07-05	756	31,713	4,449	4,452
3	도둑들	쇼박스(주)미디어플렉스	한국	2012-07-25	1,073	27,674	3,858	3,858
4	어메이징 스파이더맨	한국소니픽쳐스릴리징 브에나비스타영화(주)	미국	2012-06-28	1,102	30,483	3,655	4,845
5	아이스 에이지 4: 대륙 이동설	이십세기폭스코리아(주)	미국	2012-07-25	501	5,315	693	693
6	두 개의 달	롯데쇼핑(주)롯데엔터테인먼트	한국	2012-07-12	347	2,940	425	426
7	명탐정 코난: 11번째 스트라이커	씨제이이엔엠 주식회사	일본	2012-07-19	350	2,381	371	371
8	미드나잇 인 파리	(주)나이너스엔터테인먼트	미국	2012-07-05	189	2,177	295	299
9	모모와 다락방의 수상한 요괴들	타임스토리그룹(주)	일본	2012-07-05	252	1,953	294	299
10	내 아내의 모든 것	(주)넥스트엔터테인먼트월드(NEW)	한국	2012-05-17	246	1,702	238	4,588
11	마다가스카3 : 이번엔 서커스다!	씨제이이엔엠 주식회사	미국	2012-06-06	397	1,641	234	1,623
12	나는 공무원이다	(주)넥스트엔터테인먼트월드(NEW)	한국	2012-07-12	278	1,535	217	217
13	후궁 : 제왕의 첩	롯데쇼핑(주)롯데엔터테인먼트	한국	2012-06-06	315	1,514	212	2,630
14	무서운 이야기	롯데쇼핑(주)롯데엔터테인먼트	한국	2012-07-25	274	1,398	190	190
15	더 레이븐	롯데쇼핑(주)롯데엔터테인먼트	미국	2012-07-05	264	1,122	153	153

* 출처: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



01 출판

02 만화

03 음악

04 공연

05 게임

06 영화

07 애니메이션

08 캐릭터

09 방송

10 광고

11 지식정보

7월까지의 연간 누적 박스오피스 매출액은 작년 같은 시기에 비해 약 1,043억 원(15.1%) 증가한 7,938억 원으로 집계되었다. 관객 수도 작년 동기 대비 약 1,700만 명(19.6%)이 증가한 1억 375만 명을 기록했다. 개봉편수에서는 한국영화 개봉이 작년 동기에 비해 1편이 늘어난 79편이었으며, 관객수는 1,549만 명이 증가했다. 외국영화는 11편 증가한 178편이 개봉했고, 관객수는 약 151만 명이 늘었다.

누적 관객 점유율(7월)에서는 한국영화가 52.3%를 기록하며 외국영화 점유율(47.7%)을 앞섰는데, 6월 누적 수치 대비 다소 하락하기는 했지만 전년 동기 한국영화(44.7%)의 점유율이 외국영화(55.3%)에 11% 뒤졌던 것과 비교하면 한국영화의 강세가 지속되고 있다.

월별 관객 점유율을 보면, 작년 7월 한국영화 점유율이 32.4%였는데 반해 올해 7월은 47.9%로 작년에 비하여 점유율이 크게 향상되었다. 전년대비 한국영화 점유율이 21.1%p 증가했던 6월에 이어 7월에도 15.5%p 상승했다.

▶▶ 연간 누적 박스오피스 현황

구분	2012. 1. ~ 2012. 7.					2011. 1. ~ 2011. 7.				
	개봉편수	상영편수	매출액 (백만 원)	관객수 (천 명)	점유율	개봉편수	상영편수	매출액 (백만 원)	관객수 (천 명)	점유율
한국	79	856	401,753	54,250	52.3%	78	601	285,321	38,759	44.7%
외국	178	1,688	392,071	49,499	47.7%	167	1,137	404,163	47,993	55.3%
전체	257	2,544	793,825	103,750	100.0%	245	1,738	689,485	86,753	100.0%

* 출처: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 한국콘텐츠진흥원 재구성

▶▶ 월별 관객 동원 추이 (2011. 7. ~ 2012. 7.)

구분	개봉편수			상영편수			관객수 (천 명)			점유율 (%)	
	한국	외국	전체	한국	외국	전체	한국	외국	전체	한국	외국
2011. 07.	9	24	33	91	222	313	5,944	12,389	18,334	32.4	67.6
2011. 08.	11	25	36	114	287	401	13,844	6,218	20,062	69.0	31.0
2011. 09.	17	20	37	144	221	365	9,821	3,596	13,417	73.2	26.8
2011. 10.	10	25	35	133	282	415	8,423	3,985	12,409	67.9	32.1
2011. 11.	20	25	45	124	208	332	5,757	4,564	10,321	55.8	44.2
2011. 12.	14	27	41	146	229	375	6,262	10,566	16,829	37.2	62.8
2012. 01.	8	22	30	56	191	247	8,177	8,276	16,454	49.7	50.3
2012. 02.	8	35	43	54	190	244	9,808	3,111	12,919	75.9	24.1
2012. 03.	18	20	38	128	217	345	6,795	4,538	11,333	60.0	40.0
2012. 04.	10	28	38	69	200	269	5,052	6,919	11,972	42.2	57.8
2012. 05.	15	29	44	110	234	344	6,736	9,199	15,935	42.3	57.7
2012. 06.	7	16	24	224	168	392	7,641	6,538	14,179	53.9	46.1
2012. 07.	12	28	40	215	488	703	10,039	10,916	20,955	47.9	52.1

* 출처: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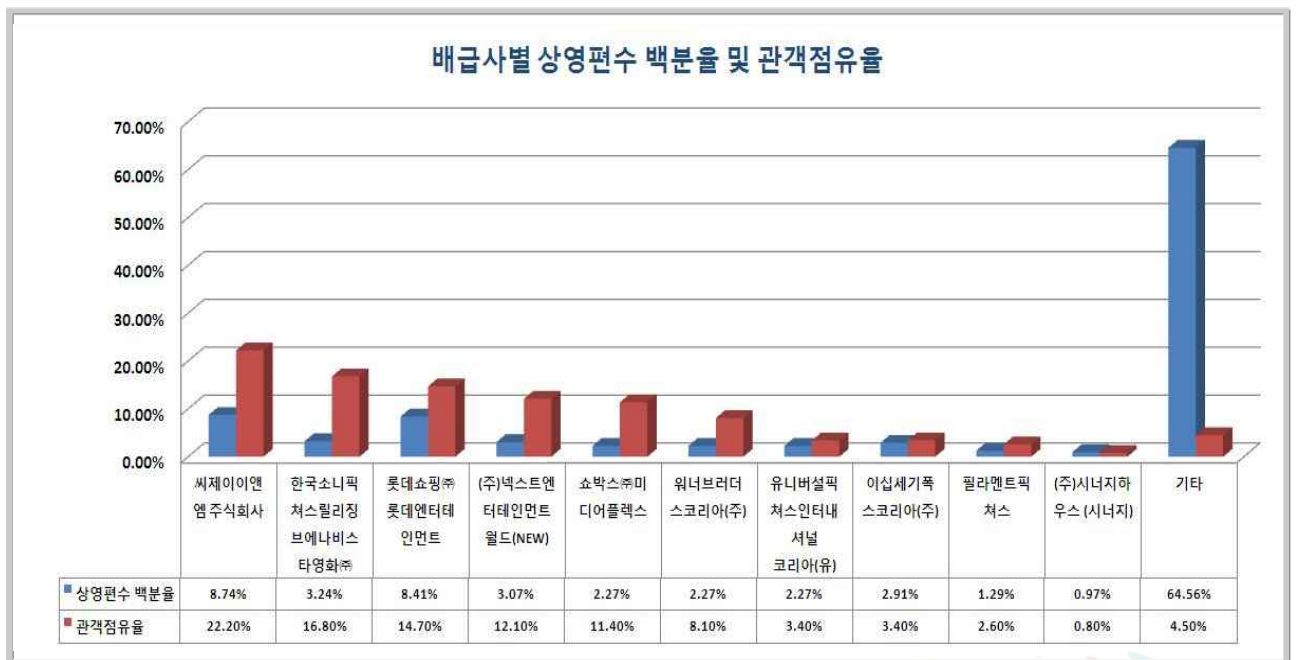


7월까지 가장 높은 점유율을 기록한 배급사는 7월 박스오피스 2위를 기록한 <연가시>를 배급한 'CJ E&M'으로, 총 관객 2,275만 명을 동원하며 22.2%의 점유율을 기록했다. '어벤져스', '맨 인 블랙', '어메이징 스파이더맨' 등 할리우드 대작을 배급한 '한국소니픽처스릴리징브에나비스타영화(주)'는 점유율 16.8%로 2위를 차지했다. 6월까지 점유율 2위를 기록하였던 '롯데쇼핑(주)롯데엔터테인먼트'는 6월부터 상영하고 있는 '후궁: 제왕의 첩'의 급격한 관객 감소와 7월 배급 영화 <두 개의 달> 등의 흥행부진으로 인해 전월 대비 점유율이 2.2%가 감소한 14.7%를 기록하며 3위로 한 단계 하락했다.

▶▶ 배급사별 점유율 TOP 10 (2012. 1. ~ 2012. 7.)

순위	배급사	상영편수	관객		매출	
			관객수(천 명)	점유율	매출액(백만 원)	점유율
1	씨제이이엔엠 주식회사	27	22,752	22.2%	171,684	21.9%
2	한국소니픽처스릴리징브에나비스타영화(주)	10	17,237	16.8%	144,363	18.5%
3	롯데쇼핑(주)롯데엔터테인먼트	26	15,069	14.7%	109,807	14.0%
4	(주)넥스트엔터테인먼트월드(NEW)	9.5	12,347	12.1%	92,170	11.8%
5	쇼박스(주)미디어플렉스	7	11,640	11.4%	86,512	11.1%
6	위너브러더스코리아(주)	7	8,325	8.1%	64,056	8.2%
7	유니버설픽처스인터내셔널 코리아(유)	7	3,435	3.4%	25,243	3.2%
8	이십세기폭스코리아(주)	9	3,520	3.4%	27,884	3.6%
9	필라멘트픽처스	4	2,639	2.6%	19,991	2.6%
10	(주)시너지하우스 (시너지)	3	861	0.8%	6,454	0.8%
-	기타	199.5	4,682	4.5%	34,291	4.3%
합 계		309	102,511	100.0%	782,460	100.0%

- * 순위는 관객 수(점유율)로 집계
- * 두 개 배급사가 공동으로 배급한 작품은 각 편수, 관객수, 매출액 모두 각 배급사에 절반씩 나누어 집계
- * 출처: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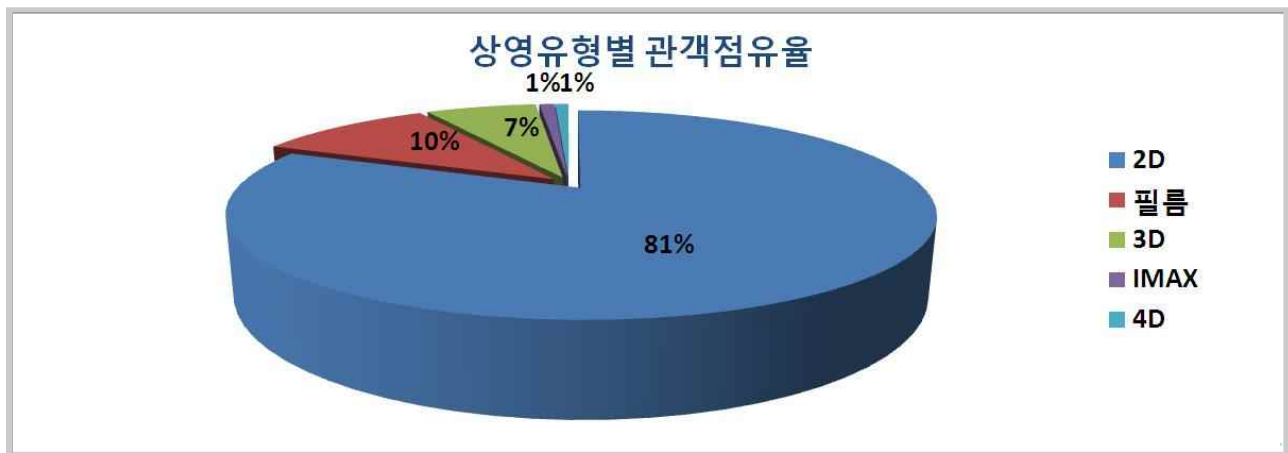


1월에서 7월까지의 상영유형별 관객점유율에서는 2D영화(디지털)가 81.3%, 아날로그 필름이 10.4%, 3D가 6.6%를 기록했고, IMAX와 4D는 1% 미만으로 나타났다. 멀티플렉스 체인회사들이 다른 영상미디어와 차별화 및 고급화 차원에서 IMAX와 4D 상영관을 늘리고 있으나, 아날로그나 2D로 상영하는 스크린에 비하여 이들 스크린의 입장요금이 5,000원(55.6%) 이상 비싸, 관객점유율이 1% 미만에 머물고 있다. 또한 할리우드 6대 메이저 회사들은 3D영화 제작 및 기존 영화의 3D 전환을 통한 상영을 늘리고 있는 반면에, 국내의 경우 관객들의 요금 저항(2D 영화에 비하여 3D 상영관이 4,000원 비쌌)으로 인해, 극장들도 전년에 비하여 3D 상영비율을 줄이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전년 동기 대비 3D 관객점유율은 6.5% 감소했다.

상영유형별 점유율 (2012. 1. ~ 2012. 7.)

순위	분류	개봉편수	상영편수	관객		매출	
				관객수(천 명)	점유율	매출액(백만 원)	점유율
1	2D	257	493	83,678	81.3%	614,959	78.1%
	디지털	221	443	79,266	77.1%	585,825	74.4%
	디지털더빙	23	31	4,398	4.3%	29,034	3.7%
	디지털 영문자막	8	12	10	0.0%	78	0.0%
	디지털 한글자막	4	5	3	0.0%	19	0.0%
	디지털 일본자막	1	2	0.2	0.0%	2	0.0%
2	필름	245	1,456	10,658	10.4%	74,508	9.5%
	일반	227	1,429	10,011	9.7%	70,412	8.9%
	더빙	14	21	646	0.6%	4,092	0.5%
	영문자막	4	6	0.5	0.0%	4	0.0%
3	3D	34	49	6,748	6.6%	74,978	9.5%
	3D디지털	22	31	4,878	4.7%	55,729	7.1%
	3D더빙	12	18	1,869	1.8%	19,248	2.4%
4	IMAX	13	15	963	0.9%	13,742	1.7%
	IMAX	9	10	658	0.6%	10,195	1.3%
	IMAX 3D	4	5	304	0.3%	3,546	0.5%
5	4D	17	21	829	0.8%	9,529	1.2%
	4D	14	18	746	0.7%	8,646	1.1%
	4D더빙	3	3	82	0.1%	883	0.1%
합계		566	2,034	102,877	100.0%	787,718	100.0%

* 출처: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



01 출판

02 만화

03 음악

04 공연

05 게임

06 영화

07 애니메이션

08 캐릭터

09 방송

10 광고

11 지식 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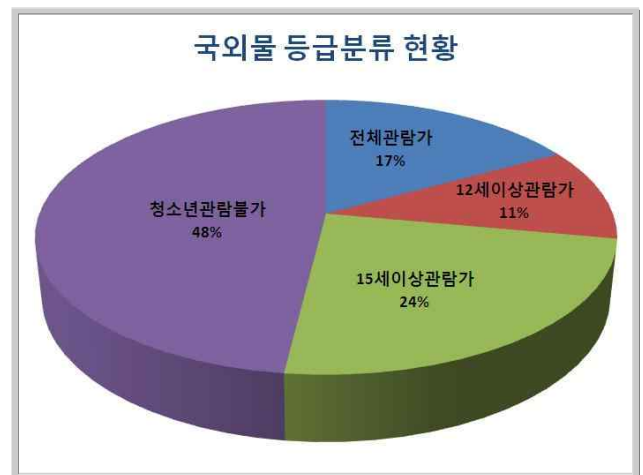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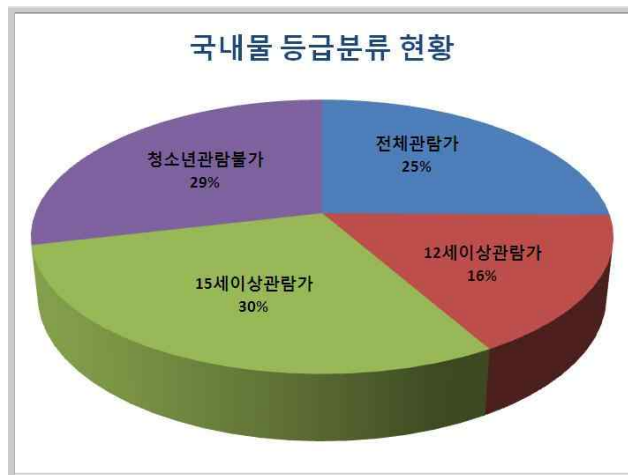


2012년 들어 7개월간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 등급분류를 진행한 영상물은 533개였고, 이중 국내물이 118개, 국외물이 415개로 집계되어 국외물이 국내물보다 3.5배 많았다. 등급별로는 국내물은 '15세 이상 관람가' 등급이 34개(29%), '청소년 관람불가' 등급이 33개(28%) 순으로 많았고 국외물은 '청소년 관람불가' 등급이 198개(47%), '15세 이상 관람가' 등급이 99개(24%) 순으로 많았다. 3번째로 많은 등급은 국내의 모두 '전체 관람가' 등급이었다.

▶▶ 등급분류 현황 (2012. 1. ~ 2012. 7.)

구분	등급						불가	보류	속행	자료 제출	합계
	전체 관람가	12세이상 관람가	15세이상 관람가	청소년 관람불가	제한	합계					
국내물	29	19	34	33	3	118 (22.1%)	0	0	0	0	118
국외물	70	45	99	198	3	415 (77.9%)	0	0	1	1	415
합계	99	64	133	231	6	533 (100%)	0	0	1	1	533

* 출처: 영상물등급위원회 (<http://www.kmrb.or.kr>)



01 출판

02 만화

03 음악

04 공연

05 게임

06 영화

07 애니메이션

08 캐릭터

09 방송

10 광고

11 지식 정보



영화 DVD·블루레이 판매 순위에서는 판매처별로 다양한 작품들이 인기를 얻었다. YES24는 ‘블루레이 파수꾼’이 1위, 알라딘은 ‘블루레이 죠스 한정판 스틸북’이 1위를 차지했고, 인터파크는 ‘노팅 힐’이 1위를 기록하였다. 핫트랙스의 경우 블루레이 부문 1위는 ‘배트맨 비긴즈+다크나이트’였으며, DVD는 ‘노팅 힐’이 1위였다. 6월 영화 DVD, 블루레이 판매순위와 비교하면, ‘노팅 힐’이 4곳의 판매처에서 비교적 꾸준히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YES24의 경우 2위를 기록한 ‘노팅 힐’과 ‘사운드 오브 뮤직’을 제외한 8편의 블루레이 타이틀이 10위 내에 있으며, 알라딘의 경우에도 판매 1위인 ‘블루레이’ 죠스 한정판 스틸북’을 포함하여 5편이 등록되어 TV의 고화질·대형화 추세에 맞는 미디어를 소장용으로 구입하고자 하는 경향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 영화 DVD / 블루레이 판매 TOP 10 (7월)

순위	YES24			알라딘		
	제목	발매일	판매가	제목	발매일	판매가
1	파수꾼 : 블루레이	2012-06-14	29,700	[블루레이] 죠스 : 한정판 스틸북	2012-08-13	35,200
2	노팅 힐	2008-03-20	9,900	크리스토퍼 놀란 DVD 박스세트	2012-07-05	35,200
3	셀 위 댄스 [양장본+커피북 한정판] : 블루레이	2012-06-26	29,700	[블루레이] 봄날은 간다 : 한정판 오마주 컬렉션	2012-08-08	33,000
4	님은 먼 곳에 : 블루레이	2012-06-20	31,900	노팅 힐	2012-04-19	9,900
5	휴고 2D+3D 블루레이 스틸북	2012-06-21	35,600	다크 나이트	2008-12-19	9,900
6	미션 임파서블4 : 블루레이	2012-05-10	31,900	[블루레이] 배트맨 비긴즈 + 다크나이트	2012-07-05	55,000
7	크로니클 [극장판+확장판] : 블루레이	2012-06-05	31,900	배트맨 비긴즈 SE	2007-07-06	9,900
8	사운드 오브 뮤직	2010-06-15	8,800	[블루레이] 범죄와의 전쟁 : 나쁜놈들 전성시대	2012-07-11	31,900
9	우주전쟁 : 블루레이	2010-07-01	29,700	[3D 블루레이] 휴고: 2D+3D 겸용	2012-06-21	34,600
10	타인의 삶 : 블루레이	2012-03-29	22,000	해리포터와 죽음의 성물 2부 - 일반판	2011-11-25	19,800

순위	인터파크			핫트랙스	
	제목	발매일	판매가	블루레이	DVD
1	노팅힐	2012-04-18	9,900	배트맨비긴즈+다크나이트	노팅 힐
2	크리스토퍼 놀란 박스세트	2012-07-05	35,200	죠스: 한정스틸북	다크나이트: 일반판
3	만추 [초회한정 커피북]	2012-08-17	25,300	세이프 하우스: 초회한정 스틸북	배트맨 비긴즈 S.E
4	다크 나이트(2Disc)	2012-08-08	9,900	트랜스포머 3 [2D+3D 콤보 스틸북]	500일의 썸머
5	미션임파서블: 고스트 프로토콜	2012-05-10	22,000	아이언맨	맘마미아!
6	하이 스쿨 뮤지컬 Vol2	2010-03-10	14,800	어벤져스	이티: 20주년 기념판 S.E
7	하이 스쿨 뮤지컬 3: 졸업반	2009-05-20	22,000	인셉션	사운드 오브 뮤직: 40주년 특별 한정판
8	배트맨 비긴즈	2012-07-04	9,900	아티스트	크리스토퍼 놀란 박스세트
9	하이 스쿨 뮤지컬 Vol1	2010-03-10	14,800	퍼스트 어벤져: 2D+3D 콤보팩 일반판	스파이더맨 3 S.E
10	스파이더맨 3 SE	2012-06-13	9,900	미션 임파서블: 고스트 프로토콜 스틸북	만추: 초회한정 커피북

* 출처: YES24, 인터파크, 핫트랙스(이상 7월 기준), 알라딘(7월 5주 기준)

01 출판

02 만화

03 음악

04 공연

05 게임

06 영화

07 애니메이션

08 캐릭터

09 방송

10 광고

11 지식정보



영화 VOD 판매 순위는 DVD/블루레이와 달리 판매처별로 1위를 차지한 영화가 ‘후궁: 제왕의 첩’로 동일하였다. 2위를 기록한 영화도 네이버 N스토어(‘건축학개론’)를 제외한 다음 영화, 네이트 호핀, 티스토어는 ‘내 아내의 모든 것’으로 동일하였다. 일반적으로 극장 종영인정일 4주 이후 IPTV프리미엄 VOD서비스(요금: 4,000원)부터 시작하는데, 7월 박스오피스 순위 13위를 기록한 ‘후궁 : 제왕의 첩’이 불법복제 파일 유통과 같은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VOD 판매 1위를 기록하였다는 점은 국내에서 영화의 창구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홀드백 질서가 붕괴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 영화 VOD 이용 TOP 10 (7월)

순위	네이버 N스토어			다음 영화		
	제목	상영시간	판매가	제목	상영시간	판매가
1	후궁: 제왕의 첩	122분	3,500	후궁: 제왕의 첩	122분	3,500
2	건축학개론	118분	2,000	내 아내의 모든 것	121분	4,000
3	다크나이트(구매)	152분	3,000	차형사	110분	4,000
4	은교	129분	2,000	언터처블: 1%의 우정	112분	3,500
5	다크나이트(대여)	152분	1,000	건축학개론	118분	3,500
6	배트맨 비긴즈(대여)	139분	1,000	나는 공무원이다	101분	4,000
7	배트맨 비긴즈(구매)	139분	3,000	써니	135분	1,200
8	미확인 동영상 : 절대클릭금지	93분	3,500	은교	129분	3,500
9	언터처블: 1%의 우정	112분	3,500	부러진 화살	100분	2,000
10	코리아	127분	4,000	세 얼굴이	141분	2,000

순위	네이트 호핀			티스토어		
	제목	상영시간	판매가	제목	상영시간	판매가
1	후궁: 제왕의 첩	122분	3,500	후궁: 제왕의 첩	122분	3,500
2	내 아내의 모든 것	121분	4,000	내 아내의 모든 것	121분	4,000
3	차형사	110분	4,000	차형사	110분	4,000
4	배틀쉽	131분	3,500	AV아이돌	99분	10,000
5	건축학개론	118분	2,000	리미트리스	105분	10,000
6	다크나이트	152분	1,000	나는 공무원이다	101분	4,000
7	언더월드4: 어웨이크닝	88분	2,000	돈의 맛	115분	4,000
8	은교	129분	2,000	건축학개론	118분	2,000
9	금지된 섹스, 불륜(무삭제판)	60분	2,000	로스트 인 베이징	112분	3,500
10	서약	104분	2,000	코리아	127분	4,000

* 출처: 네이버 N스토어, 다음 영화, 네이트 호핀, 티스토어 (8월 7일 기준)

01 출판

02 만화

03 음악

04 공연

05 게임

06 영화

07 애니메이션

08 캐릭터

09 방송

10 광고

11 지식 정보



07

애니메이션

어린이/애니메이션 전문채널의 7월 방영 프로그램 중에서는 '아따맘마 극장판'이 0.92%로 가장 높은 시청률을 기록했다. '짱구는 못말려 11 스페셜'은 0.76%의 시청률로 2위에 올랐다. 3위에는 시청률 0.7%의 '명탐정 코난 극장판 천공의 난파선'이, 4위에는 시청률 0.69%를 기록한 '짱구는 못말려 12'가 올랐다. <아따맘마 시리즈>와 <짱구 시리즈>, <명탐정코난 시리즈>는 꾸준히 순위권에 머무르고 있다.

시청률 상위 35개 프로그램 중에서 국산 프로그램은 투니버스 제작의 '막이래쇼3', '막이래쇼 무작정탐험대', '와라 편의점 스페셜', '안녕 자두야' 4편으로 6월에 비해 1편 늘어났다.

▶ 어린이/애니메이션 전문채널 프로그램 TOP 35 (7월)

순위	프로그램	제작	방영회수	시청률 (%)
1	아따맘마 극장판	일본	2	0.92
2	짱구는 못말려 11 스페셜	일본	6	0.76
3	명탐정 코난 극장판 천공의 난파선	일본	6	0.70
4	짱구는 못말려 12	일본	61	0.69
5	명탐정 코난 시즌10	일본	2	0.67
6	짱구는 못말려 스페셜	일본	14	0.59
7	막이래쇼3	한국	26	0.58
8	명탐정 코난 스페셜	일본	14	0.58
9	명탐정 코난 극장판 14번째 표적	일본	6	0.56
10	돌아온 코난 VS 괴도키드	일본	11	0.56
11	아따맘마 스페셜	일본	6	0.54
12	극장판 짱구는 못말려 초시공 태풍을 부르는 나의 신부<재>	일본	1	0.54
13	아따맘마 극장판 엄마는 초능력자	일본	2	0.52
14	후덜덜 투니괴담	한국	6	0.51
15	아따맘마 7기	일본	4	0.47
16	침략 오징어 소녀 스페셜	일본	7	0.47
17	짱구는 못말려 부리부리 3분 대작전<재>	일본	2	0.45
18	와라 편의점 스페셜	한국	7	0.45
19	새미의 어드벤처	벨기에	2	0.45
20	막이래쇼 무작정탐험대	한국	1	0.43
21	명탐정 코난 극장판 시한장치의 마천루	일본	4	0.43
22	짱구는 못말려10	일본	57	0.42
23	극장판 포켓몬스터 비크티니아와 흑의 영웅 제크로무	일본	8	0.41
24	짱구는 못말려11	일본	32	0.41
25	썬더 일레븐 극장판 최강군단 오우거의 습격	일본	4	0.39
26	괴담 레스토랑	일본	6	0.38
27	썬더 일레븐 GO 극장판 궁극의 우정 그리폰	일본	6	0.38
28	안녕 자두야	한국	15	0.38
29	케로로 리턴즈	일본	9	0.37
30	아따맘마 5기	일본	13	0.37
31	짱구는 못말려 폭풍을 부르는 정글<재>	일본	1	0.36
32	닌자보이 란타로 극장판 시끌벅적 방학속제 대소동	일본	3	0.36
33	명탐정 코난 극장판 칠혹의 추적자	일본	2	0.35
34	명탐정 코난 극장판 침묵의 15분	일본	2	0.35
35	침략 오징어 소녀	일본	1	0.35

* 해당 수치는 어린이/애니메이션 전문채널(투니버스, 챔프, 카툰네트워크, 애니원, 애니박스, 어린이TV, 애니맥스, 채널TV, 니켈로디언, 디즈니주니어, 디즈니채널, 애니플러스, 육아방송, Kids talk talk, Kids Co, 대교플러스, 키즈원, 키즈TV, 에듀TV, 에듀키즈, KBS kids)에서 방영되는 모든 애니메이션의 시청률을 합한 값임

* 출처: AGB닐슨 미디어리서치

01

출판

02

만화

03

음악

04

공연

05

게임

06

영화

07

애니메이션

08

캐릭터

09

방송

10

광고

11

지식정보



어린이/애니메이션 전문채널별 프로그램 시청률 순위를 살펴보면 <투니버스>에서는 ‘아따맘마 극장판’이 1위를, <카툰네트워크>에서는 5월에 이어 ‘키테레츠 대백과’가 1위를 기록했다. <니켈로디언>에서는 애니메이션으로는 ‘마다가스카의 핑귄’이 1위를 차지했고 <챔프>, <대교어린이TV>, <재능TV>에서는 ‘극장판 짱구는 못말려 초시공 태풍을 부르는 나의 신부’, ‘변신자동차 토봇 진화의 시작’, ‘마법천자문 대마왕의 부활을 막아라’가 각각 가장 높은 시청률을 기록했다.

▶ 어린이/애니메이션 전문채널별 프로그램 시청률 순위 (7월)

투니버스			카툰네트워크		
1	아따맘마 극장판	0.92	1	키테레츠 대백과	0.20
2	짱구는 못말려 11 스페셜	0.76	2	통과 제리 테일즈	0.20
3	명탐정 코난 극장판 천공의 난파선	0.70	3	토리코	0.19
4	짱구는 못말려 12	0.69	4	루니툰 벅스버니와 대피덕	0.18
5	명탐정 코난 시즌 10	0.67	5	쾌걸 근육맨 2세	0.17
6	짱구는 못말려 스페셜	0.59	6	육가네 6쌍둥이	0.16
7	막이래쇼3	0.58	7	닌자고	0.16
8	명탐정 코난 스페셜	0.58	8	쌍둥이 맑음	0.15
9	명탐정 코난 극장판 14번째 표적	0.56	9	겅쟁이 강아지 커리지	0.15
10	돌아온 코난 VS 괴도키드	0.56	10	루니툰	0.14
니켈로디언			챔프		
1	런닝맨 BEST7	0.23	1	극장판 짱구는 못말려 초시공 태풍을 부르는 나의 신부	0.54
2	마다가스카의 핑귄	0.15	2	짱구는 못말려 부리부리 3분 대작전	0.45
3	네모바지 스폰지밥	0.14	3	짱구는 못말려 폭풍을 부르는 정글	0.36
4	콩푸팬더 전설의 마스터	0.13	4	짱구는 못말려 암흑마왕 대추적	0.34
5	아기공룡둘리	0.12	5	극장판 짱구는 못말려 포효하라 떡잎야생왕국	0.34
6	미술탐험대	0.12	6	짱구는 못말려 엄청난 태풍을 부르는 금창의 용사	0.34
7	웁스클럽	0.10	7	도라에몽 친구의 태양왕 전설	0.34
8	팀미의 못말리는 수호천사	0.09	8	극장판 도라에몽 친구와 철인군단 날아라 천사들	0.33
9	비밀요원 터프퍼피	0.09	9	짱구는 못말려 어른제국의 연습	0.32
10	아바타아양의 전설	0.09	10	짱구는 못말려 전설을 부르는 춤을 춰라	0.30
대교어린이TV			재능TV		
1	변신자동차 토봇 진화의 시작	0.09	1	마법천자문 대마왕의 부활을 막아라	0.31
2	변신자동차 토봇 또 하나의 토봇	0.07	2	말괄량이 삐삐	0.21
3	히어로 팩토리	0.07	3	닌자고	0.18
4	닌자고	0.06	4	톡톡박사 에디	0.16
5	포켓몬스터 DP 5	0.06	5	썬더 일레븐	0.16
6	포켓몬스터 극장판	0.05	6	포켓몬스터 DP 극장판	0.15
7	라이브온 카드리버	0.05	7	변신자동차 토봇 또 하나의 토봇	0.15
8	포켓몬스터 DP 극장판	0.05	8	썬더 일레븐 GO	0.13
9	포켓몬스터 DP 4	0.04	9	변신자동차 토봇 날아라 토봇	0.13
10	완소 퍼펙트 반장	0.04	10	레고시티	0.13

* 출처: AGB닐슨 미디어리서치



어린이/애니메이션 전문채널의 평균 가구시청률에서는 ‘짱구는 못말려’, ‘명탐정 코난’, ‘아빠맘마’ 등을 방영하는 <투니버스>가 0.28%로 1위에 올랐다. ‘뽀롱뽀롱 뽀로로’, ‘꼬마버스 타요’ 등을 방영하는 <카툰네트워크>는 0.096%의 시청률을 기록하며 2위로 한 단계 상승했고 ‘디지몬’, ‘도라에몽’, ‘포켓몬스터’ 등을 방영하는 <Champ>가 3위 (0.094%)를 차지했다. <투니버스>를 제외한 어린이/애니메이션 전문채널은 평균 시청률 0.1% 이하, 점유율 1% 미만에 머물렀으며 평균 시청시간도 2분 이하로 매우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 어린이/애니메이션 전문채널 평균 가구시청률 (7월)

순위	채널명	시청률	점유율	도달율	시청시간
1	투니버스	0.2864%	0.84%	9.67%	0:04:07
2	카툰네트워크	0.0966%	0.28%	3.89%	0:01:23
3	Champ	0.0940%	0.27%	4.60%	0:01:21
4	JTBC재능TV	0.0801%	0.23%	4.91%	0:01:09
5	Nickelodeon	0.0700%	0.20%	2.73%	0:01:00
6	Animax	0.0547%	0.16%	3.33%	0:00:47
7	어린이TV	0.0220%	0.06%	1.87%	0:00:19
8	Anibox	0.0196%	0.06%	1.54%	0:00:17
9	애니원	0.0195%	0.06%	0.86%	0:00:17
10	디즈니채널	0.0190%	0.06%	1.12%	0:00:16
11	육아방송	0.0118%	0.03%	1.28%	0:00:10
12	디즈니주니어	0.0102%	0.03%	0.54%	0:00:09
13	애니플러스	0.0081%	0.02%	0.82%	0:00:07
14	KBS Kids	0.0048%	0.01%	0.45%	0:00:04
15	에듀키즈TV	0.0022%	0.01%	0.18%	0:00:02
16	키즈원	0.0010%	0.00%	0.08%	0:00:01
17	Kids Talk Talk Plus	0.0003%	0.00%	0.05%	0:00:00
18	KidsCo	0.0001%	0.00%	0.03%	0:00:00
19	키즈TV	0.0001%	0.00%	0.04%	0:00:00
20	에듀TV	0.0000%	0.00%	0.00%	0:00:00
21	대교플러스	0.0000%	0.00%	0.00%	0:00:00

* 출처: AGB닐슨 미디어리서치

01 출판

02 만화

03 음악

04 공연

05 게임

06 영화

07 애니메이션

08 캐릭터

09 방송

10 광고

11 지식 정보



애니메이션 채널의 시간대별 평균 시청률을 분석한 결과, '60대 이상'을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18~20시에 가장 높은 평균 시청률을 나타냈다. '4~9세'는 '17시~20시'까지의 시청률이 평균 3%를 넘었고 아침 시간인 8~10시까지의 시청률도 평균 2% 이상을 기록했다. '4~9세'의 연령대는 취침시간을 제외한 모든 시간대에서 1%가 넘는 안정적인 시청률을 보여 애니메이션 채널의 주 소비층임을 짐작케 한다. '4~9세'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평균 시청률을 보인 '10대'는 18시~19시에 1%의 비교적 높은 시청률을 보였으며, 그 이상의 연령대에서는 애니메이션 시청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어린이/애니메이션 전문채널 시간대별 평균 시청률 (7월)

(단위: %)

시간	가구	개인	개인 4-9	개인 10대	개인 20대	개인 30대	개인 40대	개인 50대	개인 60+
2	0.0861	0.0303	0.0069	0.0206	0.0251	0.0397	0.0413	0.0249	0.0355
3	0.0467	0.0174	0.0159	0.0128	0.0163	0.0174	0.0244	0.0162	0.0165
4	0.0439	0.0156	0.0136	0.0063	0.0050	0.0180	0.0268	0.0150	0.0204
5	0.0624	0.0211	0.0253	0.0196	0.0042	0.0170	0.0381	0.0144	0.0285
6	0.1717	0.0644	0.2781	0.0637	0.0031	0.0485	0.0696	0.0411	0.0724
7	0.7028	0.2850	1.6849	0.3236	0.0241	0.2466	0.2428	0.1278	0.1738
8	0.9132	0.4098	2.2359	0.4262	0.0433	0.4879	0.3004	0.1356	0.3090
9	0.9474	0.4188	2.1710	0.5079	0.0578	0.5564	0.2831	0.1614	0.2180
10	0.9256	0.4153	2.0604	0.4913	0.0940	0.5485	0.2995	0.1590	0.2126
11	0.9388	0.4106	1.8117	0.5482	0.1244	0.5233	0.3336	0.1415	0.2044
12	0.9785	0.4309	1.6876	0.7066	0.1380	0.4951	0.3604	0.1678	0.2003
13	1.0296	0.4232	1.7565	0.7468	0.1403	0.4023	0.3438	0.1500	0.2246
14	1.0041	0.4096	1.8154	0.7133	0.1449	0.3775	0.2909	0.1512	0.2282
15	1.1300	0.4672	1.9578	0.9061	0.1484	0.4397	0.3203	0.1553	0.2549
16	1.1755	0.5071	2.4269	0.8299	0.1335	0.5279	0.3424	0.1638	0.2788
17	1.3599	0.5883	3.0451	0.9119	0.1345	0.6049	0.3893	0.1509	0.3543
18	1.6303	0.7206	3.7489	1.1383	0.2143	0.7226	0.4836	0.2099	0.3449
19	1.6498	0.7323	3.9568	1.0706	0.1973	0.7635	0.5208	0.2371	0.2995
20	1.4650	0.6409	3.3139	0.9890	0.1832	0.6662	0.4559	0.2061	0.2675
21	1.2296	0.5333	2.3327	0.8492	0.1563	0.5752	0.4396	0.1767	0.2678
22	0.7430	0.3083	0.9774	0.4385	0.0922	0.2963	0.3051	0.2041	0.2382
23	0.5345	0.2317	0.3270	0.3236	0.1149	0.2490	0.3202	0.1764	0.1457
24	0.2803	0.1185	0.0605	0.1330	0.1284	0.0840	0.1689	0.1153	0.1011
25	0.1617	0.0622	0.0187	0.0427	0.0722	0.0654	0.0787	0.0658	0.0616

* 해당 수치는 어린이/애니메이션 전문채널(투니버스, 챔프, 카툰네트워크, 애니원, 애니박스, 어린이TV, 애니맥스, 재능TV, 니켈로디언, 디즈니주니어, 디즈니채널, 애니플러스, 육아방송, Kids talk talk, Kids Co, 대교플러스, 키즈원, 키즈TV, 에듀TV, 예듀키즈, KBS kids)채널의 시청률을 합한 값임

* 출처: AGB닐슨 미디어리서치

01 출판

02 만화

03 음악

04 공연

05 게임

06 영화

07 애니메이션

08 캐릭터

09 방송

10 광고

11 지식정보



2012년 1월부터 8월 초까지 32편의 극장판 애니메이션이 개봉했고, 이중 1월에 개봉한 '장화신은 고양이'가 약 200만 명으로 가장 많은 관객 수를 동원했다. 2위는 약 160만명을 동원한 '마다가스카 3'가 차지했고 국산 애니메이션 중에서는 3D 애니메이션 '점박이 : 한반도의 공룡 3D'가 약 100만 관객을 동원하며 선전했다. 8월에는 인기 아이돌 아이유와 비스트의 이기광이 목소리 연기를 맡아 화제를 모으고 있는 '새미의 어드벤처 2'와 '빌리와 용감한 녀석들 3D'가 개봉했다.

▶ 2012년 애니메이션 극장 개봉 현황 (8월 7일 기준)

구분	제목	개봉일	스크린수	매출액 (백만 원)	관객수 (천명)	유형	관람등급	제작
1	치코와 리타	1월 05일	17	114	14	2D	15세관람가	스페인, 영국
2	코알라 키드: 영웅의 탄생	1월 12일	234	1,416	202	3D	전체관람가	한국, 미국
3	장화신은 고양이	1월 12일	593	17,373	2,051	3D	전체관람가	미국
4	요나 요나 핑귄	1월 12일	104	30	5	2D	전체관람가	일본, 프랑스
5	점박이 : 한반도의 공룡3D	1월 26일	455	9,041	976	3D	전체관람가	한국
6	원피스3D: 밀짚모자 체이스	1월 26일	112	92	13	3D	전체관람가	일본
7	강철의 연금술사: 마로스의 성스러운 별	1월 26일	36	23	3	2D	12세관람가	일본
8	해피피트 2	2월 02일	314	1,418	179	3D	전체관람가	호주
9	토르: 마법망치의 전설	2월 09일	382	4,609	631	3D	전체관람가	아이슬란드
10	레전드 오브 래빗	2월 22일	224	513	75	3D	전체관람가	중국
11	볼츠와 블립: 달나라 리그의 전투	2월 23일	60	140	13	3D	전체관람가	한국, 캐나다
12	나루토 질풍전 극장판: 블러드 프리즌	2월 23일	43	45	7	2D	전체관람가	일본
13	닌자보이 란타로 극장판: 시끌벅적 방학속제 대소동	2월 23일	64	51	8	2D	전체관람가	일본
14	밀림의 왕자 레오: 세상을 바꾸는 용기	2월 29일	45	14	2	2D	전체관람가	일본
15	온실이	3월 08일	1	1	0.1	2D	청소년관람불가	한국
16	스페이스 독	3월 22일	148	282	42	3D	전체관람가	러시아
17	짱구는 못말려 극장판: 태풍을 부르는 황금스파이 대작전	4월 26일	277	1,802	271	2D	전체관람가	일본
18	파리의 도둑 고양이	4월 26일	4	7	1	2D	12세관람가	프랑스
19	장화신은 고양이 디 오리지널	5월 03일	46	31	4	2D	전체관람가	프랑스
20	로렉스	5월 03일	462	2,150	298	3D	전체관람가	미국
21	컬러풀	5월 10일	13	32	4	2D	15세관람가	일본
22	극장판 썬더일레븐GO : 궁극의 우정 그리폰	5월 24일	242	574	84	3D	전체관람가	일본
23	마다가스카3 : 이번엔 서커스다!	6월 06일	561	12,468	1,621	3D	전체관람가	미국
24	뉴타입 히어로 앳타맨	6월 21일	38	13	2.2	2D	전체관람가	일본
25	모모와 다락방의 수상한 요괴들	7월 05일	252	1,953	294	2D	전체관람가	일본
26	명탐정 코난: 11번째 스트라이커	7월 19일	350	2,381	371	2D	전체관람가	일본
27	도니도니 삼형제와 아기늑대 침투작전	7월 19일	2	0.5	0.1	2D	전체관람가	미국
28	극장판 도라에몽: 친구와 가족의 섬 애니멀 어드벤처	7월 25일	184	590	92	2D	전체관람가	일본
29	아이스 에이지 4: 대륙 이동설	7월 25일	501	5,315	693	2D	전체관람가	미국
30	파닥파닥	7월 25일	50	51	7	2D	전체관람가	한국
31	새미의 어드벤처 2	8월 01일	440	50	4.5	3D	전체관람가	벨기에
32	빌리와 용감한 녀석들 3D	8월 08일	-	-	-	3D	전체관람가	독일

* 출처: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 8월 7일 기준

01 출판

02 만화

03 음악

04 공연

05 게임

06 영화

07 애니메이션

08 캐릭터

09 방송

10 광고

11 지식 정보



01 출판

02 만화

03 음악

04 공연

05 게임

06 영화

07 애니메이션

08 캐릭터

09 방송

10 광고

11 지식 정보

2012년 7월 애니메이션 DVD / 블루레이 판매 순위에서는 <알라딘>에서는 ‘천년여왕 Vol. 1+2’가 1위를 차지했고 <YES24>에서는 ‘디즈니DVD:10편 풀세트’가 6월에 이어 1위를 차지했다. ‘디즈니 베스트 애니메이션 12종’이 <인터파크>에서, ‘라이언 킹 D.E’가 <핫트랙스> 블루레이 순위에서 각각 1위를 기록하여 디즈니 애니메이션이 지속적으로 사랑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7월 판매 순위에서는 극장 애니메이션이 강세를 보인 가운데 ‘기동전사 검담 U.C’, ‘마법소녀 마도카 마기카’, ‘천년여왕’ 등 인기 TV 애니메이션의 판매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다.

▶ 애니메이션 DVD / 블루레이 판매 TOP 10 (7월)

순위	YES24			알라딘		
	제목	발매일	판매가	제목	발매일	판매가
1	3개국어(영,일,한) 디즈니DVD:10편 세트(10Disc)	2012-04-23	9,900	천년여왕 VOL. 1+2	2010-11-29	16,800
2	기동전사 검담 U.C(유니콘)VOL.4: 블루레이	2012-05-30	26,100	3개국어(영,일,한) 디즈니DVD : 10편 풀세트 (10disc)	2012-04-23	9,900
3	아이스 에이지3 : 공룡시대	2009-12-29	9,900	라이언 킹 DE	2011-10-05	20,500
4	천년여왕 VOL. 1+2	2010-11-29	16,800	아이스 에이지 2	2008-04-03	8,800
5	치코와 리트 : 블루레이	2012-06-28	29,700	프린스 앤 프린세스	2003-07-30	9,900
6	에반게리온: 파(破) 2.22 : 블루레이	2012-02-17	14,900	장화신은 고양이	2012-04-12	20,400
7	마법소녀 마도카 마기카LE VOL.2+특전CD 포함 한정판	2011-12-27	23,700	쿵푸팬더 2	2011-12-15	19,800
8	마법소녀 마도카 마기카LE VOL.3+특전CD 포함 한정판	2011-12-27	23,700	디즈니 고전명작 10종 세트 Vol.1 뉴패키지	2004-12-01	7,500
9	마법소녀 마도카 마기카LE VOL.1+특전CD 포함 한정판	2011-12-27	23,700	아이스 에이지 1	2008-04-03	8,800
10	카이유 뉴 스페셜 Full Set	2009-06-01	56,280	쿵푸팬더	2010-12-16	9,900

순위	인터파크			핫트랙스	
	제목	발매일	판매가	블루레이	DVD
1	디즈니 베스트 애니메이션 12종	2011-09-27	12,000	라이언 킹 D.E	토이 스토리 3
2	토이 스토리3	2010-10-19	14,800	슈퍼 배드 3D	마다가스카 2
3	아이스 에이지 3: 공룡시대	2012-07-17	9,900	토이스토리 3: 2D+3D 콤보팩	이웃집 토토로
4	마다가스카2	2011-03-24	9,900	치코와 리타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
5	쿵푸팬더	2011-12-28	9,900	로빈슨 가족: 2D+3D 콤보팩	마당을 나온 암탉
6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	2007-02-08	26,100	장화신은 고양이: 2D+3D 콤보팩	마다가스카
7	앨빈과 슈퍼밴드 3	2012-05-23	20,400	마당을 나온 암탉	하울의 움직이는 성
8	마당을 나온 암탉	2012-11-16	20,400	카2: 2D+3D 콤보팩	볼트
9	라퐁젤	2011-12-27	20,400	카2	토이 스토리 2 S.E
10	벤10 얼티메이트 에일리언 10종세트	2012-01-16	89,700	나는 친구가 적다 VOL.4	대국굴기: 보급판

* 출처: YES24, 인터파크, 핫트랙스: 7월 기준 / 알라딘: 7월 5주 기준



애니메이션 VOD 다운로드 차트에서는 서비스 업체별로 차이를 나타냈다. <네이버 N스토어>에서는 ‘로빈슨가족’이, <다음 영화>에서는 ‘새미의 어드벤처2’가 1위를 기록했다. 아동용 애니메이션 ‘내 친구 호비’는 <T스토어>에서 1위에 올랐고 <네이트 호핀> 1위는 일본 애니메이션 ‘천년여우’가 차지했다.

▶▶ 애니메이션 VOD 다운로드 TOP 10 (7월)

순위	네이버 영화			다음 영화		
	제목	상영시간	가격(원)	제목	상영시간	가격(원)
1	로빈슨 가족(더빙판) - 대여	101분	800	새미의 어드벤처 2	85분	1,000
2	라퐁젤(더빙판)	100분	5,500	마당을 나온 암탉	93분	2,000
3	컬러풀	126분	2,000	줄리의 유지 대모험	84분	1,500
4	장화신은 고양이 디 오리지널(더빙판)	80분	3,500	빨간모자의 진실 2	84분	1,500
5	카 2(더빙판)	113분	1,800	아스트로 보이	93분	2,000
6	업(더빙판)	101분	5,500	도니도니삼형제와 아기늑대침투작전	73분	1,500
7	토르 : 마법망치의 전설(더빙판)	83분	3,500	장화신은 고양이 디 오리지널	82분	2,000
8	로빈슨 가족(더빙판) - 구매	101분	2,800	노미오와 줄리엣 3D	84분	2,000
9	춤추는 곰들이 밴드(자막판)	80분	1,000	천년여우 여우비	85분	3,500
10	라따뚜이(더빙판)	115분	5,500	파리의 도둑고양이	70분	3,500

순위	T스토어			네이트 호핀		
	제목	다운로드	가격(원)	제목	상영시간	가격(원)
1	내 친구 호비	140,288	0	천년여우	87분	1,000
2	고 녀석 만나겠다	85,614	1,500	레고 히어로 팩토리:미지의 행성	44분	1,000
3	토르 : 마법망치의 전설	58,544	3,500	크리스마스의 악몽	76분	1,000
4	천년여우 여우비	46,037	1,000	장화신은 고양이	90분	2,000
5	돼지의 왕	44,829	3,500	컬러풀	126분	3,500
6	마당을 나온 암탉	42,032	2,000	토이 스토리 2(더빙)	92분	1,000
7	강철의 연금술사 : 미로스의 성스러운 별	22,852	2,000	도니도니삼형제와 아기늑대 침투작전	73분	3,500
8	콩푸 팬더 2	11,724	5,500	뉴타입 히어로 앳타맨	94분	3,500
9	청의 엑소시스트	11,341	500	가시나무 왕	109분	3,500
10	아기공룡 둘리	7,359	500	극장판 하늘의 유실물 : 세계 태엽의 엔젤로이드	96분	5,500

* 출처: 네이버 N스토어, 다음 영화, 네이트 호핀, 티스토어 (2012. 8. 7. 기준)

01 출판

02 만화

03 음악

04 공연

05 게임

06 영화

07 애니메이션

08 캐릭터

09 방송

10 광고

11 지식 정보



08 캐릭터

7월에도 애니메이션 캐릭터 완구들이 강세를 보였다. G마켓 캐릭터 상품 TOP 10에서는 ‘뽀로로’와 ‘로보카 폴리’, ‘꼬마버스 타요’처럼 애니메이션에서 파생된 완구 상품들이 대거 순위를 차지했으며, ‘스파이더맨’이나 ‘트랜스포머’같은 영화 캐릭터 완구도 순위에 올랐다. 특히 국산 애니메이션의 인기에 힘입어 국산 캐릭터 완구들이 꾸준히 인기를 끌고 있다.

▶ G마켓 캐릭터 상품 TOP 10 (7월)

순위	작동완구		캐릭터완구	
1	변신자동차 에블루션X 도트	영실업	로보카폴리 변신로봇 시리즈	아카데미과학
2	파워레인저 캡틴포스 DX캡틴킹	반다이	뽀로로 봉제인형	미미월드
3	꼬마버스 타요 씨투	미미월드	로보카폴리 무선조종 4종	아카데미과학
4	꼬마버스 타요 중앙차고지놀이	미미월드	파워레인저캡틴포스 모바일렛폰	반다이
5	로보카폴리 변신로봇 시리즈	아카데미과학	독특한 꼬마버스 타요	아이스쿨
6	KTE 3단 고속열차	아이다	트랜스포머 시리즈	하스브로
7	독특한 꼬마버스 타요	아이스쿨	폴리의 세차장 플레이세트	아카데미과학
8	뽀로로 어린이버스	구원	뽀로로 노래방	주영아이
9	모래놀이 자동차	브루더	타요 미니카	영진
10	어메이징 스파이더맨 시리즈	하스브로	뽀로로 EQIQ놀이상자	지나월드
순위	승용완구		신생아/영아완구	
1	뽀로로 뉴베스트 자전거	지나월드	다기능 아기체육관	아이존
2	C600	조코	발차기 아기체육관	진영토이
3	로보카폴리 브레이크 씽씽	야야토이즈	스위트 아일랜드	타이니러브
4	꼬마봉붕카	햇살토이	한글영어겸용 러닝홈	피셔
5	토마스/봉붕이 스쿠터	고나토이	친환경 치발이6종	베이비쥬
6	봉붕이/키티 스프링카	금보토이	피아노 오독이	인이
7	다기능 자전거	카고	오션원더 수드앤 그로우 잠자는 해마인형	피셔프라이스
8	베이비 뒤뚱뒤뚱 플레이	야하토이	에듀테이블	코니스
9	도라에몽 스프링카	금보	스위트 아일랜드 모빌	타이니러브
10	디맥스 키보드	토이원	클래식아기체육관	피셔프라이스
순위	캐릭터/패션인형		스포츠완구	
1	리틀미미 가방집	미미월드	핑키포키 트럼폴린	발레노스포츠
2	프린세스 베이비돌	디즈니	스마일 트럼폴린	발레노스포츠
3	윙클베어 인형	드림C&C	미스터 백곰 트럼폴린	발레노스포츠
4	리락쿠마 캐릭터인형	C&H크리에이티브	타요 편치백	디코랜드
5	똥 드레스룸	탑프로모션	파워레인저/토마스 편치백	원토이
6	뉴 뽀로로 병원놀이	미미월드	드림팀 다기능 높낮이 농구대	드림토이즈
7	행복한 우리집	도래장난감	동물모양 편치백	아하토이
8	체리 유리구두와 공주양산	원앤원	팬텀요요	신우사
9	똥이미니룸	탑프로모션	매버릭 스카이크궁	SBI
10	구름빵 인형 6종	토이트론	스탠드형 농구대	아하토이

* 출처: G마켓 (www.gmarket.co.kr)

01 출판

02 만화

03 음악

04 공연

05 게임

06 영화

07 애니메이션

08 캐릭터

09 방송

10 광고

11 지식정보



〈토이저러스〉에서 발표한 7월 캐릭터 상품 순위에서는 남아완구에서 ‘또봇 시리즈’가, 여아완구는 ‘미미 시리즈’가 상위권에 올랐다. 교육완구로는 ‘레고 시리즈’가 많이 판매되었고, 야외완구 중에서는 스마트 트라이크에서 나온 ‘쥬 시리즈’가 꾸준히 인기를 얻고 있다. 보드게임에서는 ‘아카데미과학 한밤의 유명사냥’이 1위를 차지했으며 모바일 게임인 앵그리버드의 보드게임이 두 개나 순위에 올랐다. 앵그리버드는 원작 게임의 인기에 힘입어 캐릭터, 완구 사업에도 진출하여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 토이저러스 캐릭터 상품 TOP 10 (7월)

순위	유아완구	여아완구
1	피셔 러닝홈(한글)	미미_나랑 함께걸는공주말티
2	브이텍) 3단계 변형 운전놀이 자전거	미미디카
3	클래식아기체육관(FP)	2757)볼 들어오는 이층집 4중세트
4	말하는 중앙 차고지 놀이	차밍메이커-디럭스세트
5	TFY 스트로컵 4pcs	엔젤이_노래하는 교복이
6	스스로 굴러가는 깜짝볼 브라이트	장난꾸러기 메롱~밀크
7	브이텍) 첫 걸음마	치키치카목욕돌돌이
8	복치는보로로	장난꾸러기 메롱~초코
9	에듀볼	미미_리틀미미 가방집
10	포그내입씨트폴세트(와인)	영실업_쥬쥬리본아트매니큐어
순위	남아완구	교육완구
1	캡틴 DX 캡틴킹	레고) 9449 울트라 소닉 전차
2	영실업) 또봇트라이탄	레고) 9446 마스터우의 드래곤 전함
3	영실업) 또봇Z	레고) 9450 에픽 드래곤 배트
4	바쿠간BC 크로스스드래곤	스핀짓주 배틀(9456)
5	또봇Y	레고) 9448 사무라이X의 연습
6	캡틴 모바일렛 폰	팡파에 스네이크 트럭의 공격(9445)
7	또봇X	레고)팡파에스네이크머신9455
8	스파이더맨 웹 슈터	IM)시티 센트럴 기차테이블
9	영실업 또봇폭풍스핀타이탄	제이의 스톰 파이터(9442)
10	미라클) DX얼티밋	래틀콥터(9443)
순위	야외완구	보드게임
1	2012년형 뉴스포츠 쿠페2	아카데미과학 한밤의 유명사냥
2	스마트트라이크) 쥬 레이디	앵그리버드 새들의 습격
3	스마트트라이크) 쥬 프로그	할리갈리 디럭스
4	스마트트라이크) 쥬 카우 화이트	부루마블게임
5	돌핀클럽)2인보트(195)	템블링 뽕키(한글판)
6	[STEP2] 돼지정리함	앵그리버드 빙하시대
7	폴리파라솔쥬션보행기	할리갈리
8	목욕놀이)오리와친구들	할리갈리 익스트림
9	보로로 오렌지 뉴베스트 자전거	아이스크림 쌓기 게임-더블콘
10	파워짱 물총	보로로 자동차도미노(3기)

* 출처: 토이저러스 (www.toysrus.co.kr)

01 출판

02 만화

03 음악

04 공연

05 게임

06 영화

07 애니메이션

08 캐릭터

09 방송

10 광고

11 지식정보



09

방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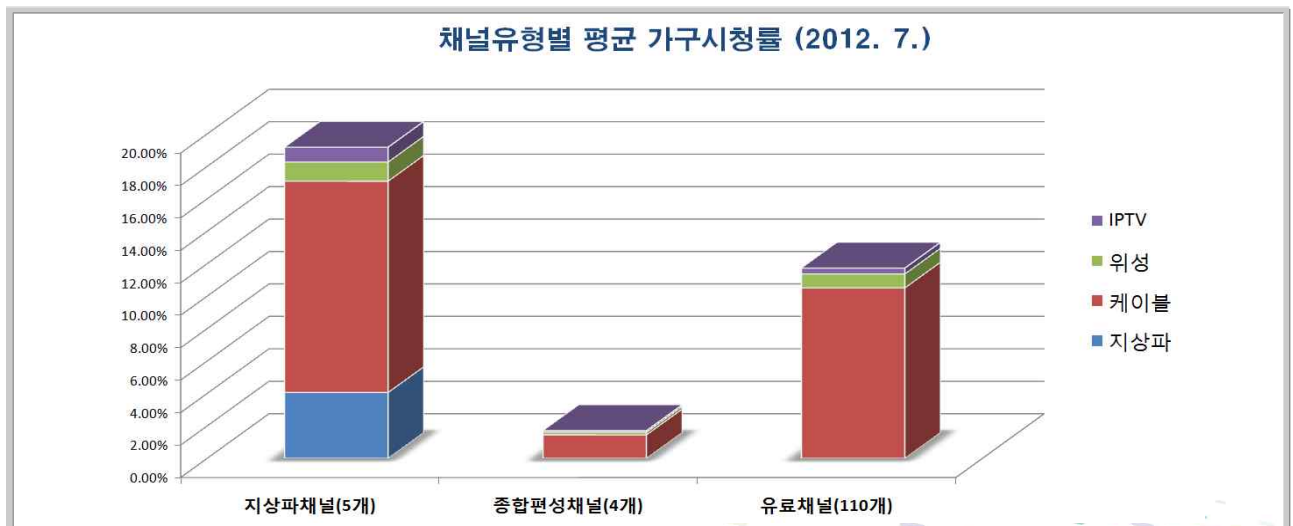
2012년 7월 채널유형별 평균 가구시청률에서는 지상파 채널이 19.17%(점유율 55.96%), 종합편성채널은 1.71%(점유율 4.98%), 유료채널(110개)이 11.74%(점유율 34.28%)를 기록했다. 이는 6월 시청률이 지상파 17.65% 종합편성채널 1.61% 유료채널 11.55%을 기록했던 것과 비교하면 소폭 상승한 수치이다.

시청 플랫폼별 집계에 의하면 지상파채널의 경우 케이블방송을 통한 시청률이 13.03%로 가장 높았고, 지상파 수신을 통한 시청비율이 4.06%, 위성방송(1.18%)과 IPTV(0.91%)가 그 뒤를 이었다. 종합편성채널 및 유료채널의 시청 플랫폼은 케이블방송을 이용한 시청비율이 가장 높았고, 위성방송과 IPTV의 순으로 나타났다.

▶ 채널유형별 평균 가구시청률 (7월)

구분	플랫폼	시청률	점유율	도달률	평균시청시간
지상파채널 (5개)	지상파	4.06%	-	15.98%	0:58:24
	케이블	13.03%	-	66.79%	3:07:35
	위성	1.18%	-	6.67%	0:16:58
	IPTV	0.91%	-	5.62%	0:13:09
	합계	19.17%	55.96%	91.34%	4:36:06
종합편성채널 (4개)	케이블	1.45%	-	38.38%	0:20:50
	위성	0.16%	-	3.88%	0:02:21
	IPTV	0.10%	-	2.83%	0:01:23
	합계	1.71%	4.98%	44.71%	0:24:34
유료채널 (110개)	케이블	10.51%	-	64.22%	2:31:19
	위성	0.86%	-	6.45%	0:12:23
	IPTV	0.36%	-	5.33%	0:05:12
	합계	11.74%	34.28%	75.03%	2:49:06
전체 시청률*	총계	34.26%	100.00%	94.45%	8:13:21

* 지상파채널: KBS1, KBS2, MBC, SBS, EBS / 종합편성채널: JTBC, MBN, 채널A, TV조선 / 유료채널: 케이블, 위성, IPTV에서 제공되는 채널
 * 시청률 수치는 각 채널별 전시간대 평균 가구시청률을 모두 합한 값임
 * '유료채널(110개) 시청률'은 전체 500여 개 유료채널 중에서 AGB닐슨에서 선정한 상위 110개 채널만을 집계한 값임
 * '전체 시청률'은 집계대상으로 선정된 110개 유료채널 뿐만 아니라 나머지 유료채널 모두를 포함하는 값임
 * 출처: AGB닐슨 미디어리서치



- 01 출판
- 02 만화
- 03 음악
- 04 공연
- 05 게임
- 06 영화
- 07 애니메이션
- 08 캐릭터
- 09 방송
- 10 광고
- 11 지식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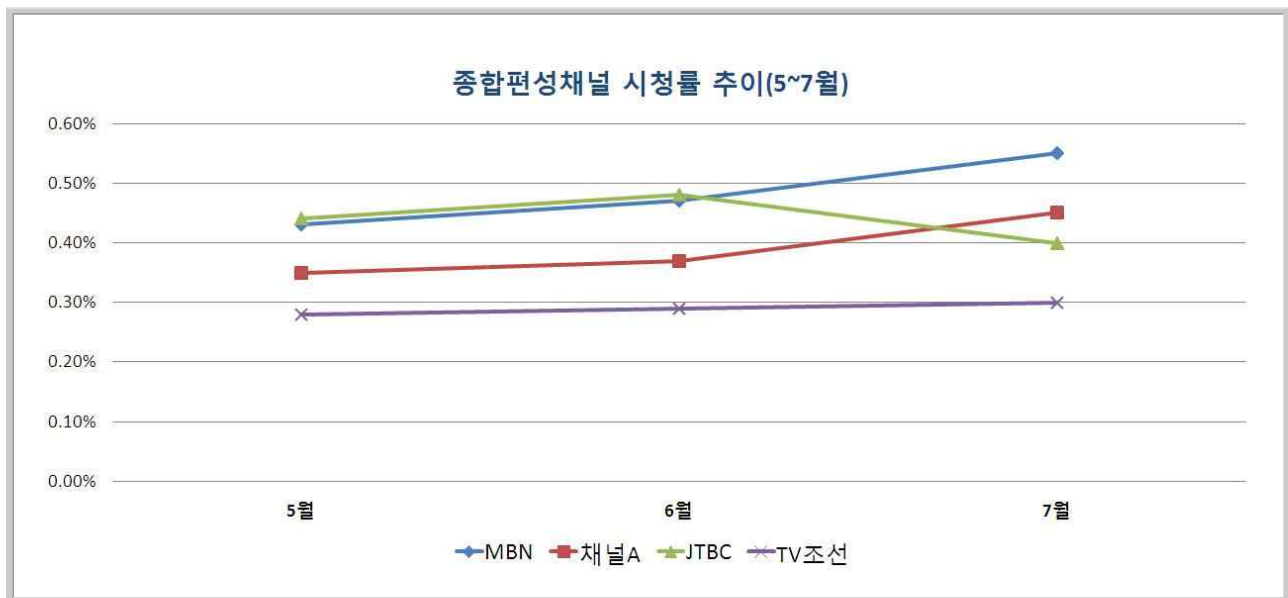


7월 채널별 가구시청률은 'KBS1'이 5.54%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이어서 'KBS2', 'SBS', 'MBC'의 순으로 시청률이 높은 것으로 집계되어 전월과 동일했다. EBS를 비롯한 나머지 채널들은 시청률 1% 이하를 기록했으며, 4개의 종합편성채널(JTBC, MBN, 채널A, TV조선) 중에서는 MBN이 0.55%로 가장 높은 시청률을, TV조선이 0.30%로 가장 낮은 시청률을 보였다. 5, 6월에 종합편성채널 중에서 가장 높은 시청률을 보였던 JTBC가 주춤한 가운데, MBN의 시청률이 꾸준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채널A의 상승세도 눈에 띄는 반면, TV조선은 계속해서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 채널별 평균 가구시청률 TOP 24 (7월)

순위	채널	시청률			순위	채널	시청률		
		5월	6월	7월			5월	6월	7월
1	KBS1	5.14%	5.10%	5.54%	13	JTBC	0.44%	0.48%	0.40%
2	KBS2	4.08%	4.35%	4.69%	14	MBC SPORTS+	0.39%	0.36%	0.32%
3	SBS	3.96%	4.11%	4.64%	15	OCN	0.34%	0.33%	0.32%
4	MBC	3.36%	3.26%	3.45%	16	코미디TV	0.23%	0.26%	0.31%
5	EBS	0.73%	0.68%	0.71%	17	KBSN스포츠	0.34%	0.45%	0.30%
6	YTN	0.59%	0.56%	0.65%	18	TV조선	0.28%	0.29%	0.30%
7	MBN	0.43%	0.47%	0.55%	19	newsY	0.28%	0.27%	0.30%
8	MBC드라마넷	0.48%	0.46%	0.51%	20	채널CGV	0.31%	0.29%	0.29%
9	KBS드라마	0.47%	0.48%	0.47%	21	SBS ESPN	0.30%	0.32%	0.29%
10	tvN	0.39%	0.45%	0.47%	22	투니버스	0.25%	0.24%	0.29%
11	채널A	0.35%	0.37%	0.45%	23	Dramax	0.33%	0.25%	0.25%
12	SBS플러스	0.49%	0.44%	0.43%	24	MBC every1	0.20%	0.20%	0.25%

* 출처: AGB닐슨 미디어리서치



01 출판

02 만화

03 음악

04 공연

05 게임

06 영화

07 애니메이션

08 캐릭터

09 방송

10 광고

11 지식정보



01 출판

02 만화

03 음악

04 공연

05 게임

06 영화

07 애니메이션

08 캐릭터

09 방송

10 광고

11 지식정보

전체 프로그램 가구시청률에서는 시청률 34.7%를 기록한 KBS2 주말연속극 '넝쿨째 굴러온 당신'이 5, 6월에 이어 계속해서 1위에 올랐고, SBS 드라마 '신사의 품격'이 22.9%로 2위를 기록했다. 뒤를 이어 KBS1의 일일연속극 '별도 달도 따줄게'가 22.8%로 3위에, '개그콘서트'가 19.5%로 4위에 올랐다.

인기 프로그램을 장르별로 살펴보면, 10위권 내에서 6개의 프로그램이 드라마였고, 상위 20개 프로그램 중에서는 드라마가 9편으로 45%를 점유했다. 5월에 12편의 드라마가 20위권 내에 들었던 것과 비교하면 드라마의 강세가 다소 약화되는 추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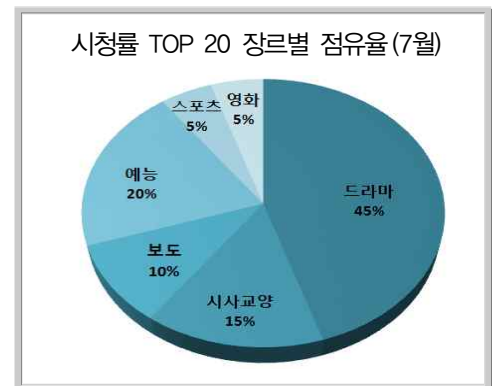
▶ 전체 프로그램 가구시청률 TOP 20 (7월)

순위	채널명	프로그램명	장르	방영횟수	시청률 (%)
1	KBS2	주말연속극 (넝쿨째 굴러온 당신)	드라마	9	34.7
2	SBS	특별기획 (신사의 품격)	드라마	7	22.9
3	KBS1	일일연속극 (별도 달도 따줄게)	드라마	22	22.8
4	KBS2	개그콘서트	예능	5	19.5
5	KBS1	KBS9시뉴스	보도	31	19.3
6	MBC	창사특별기획 (빛과 그림자)	드라마	2	18.6
7	SBS	SBS월화드라마 (추적자)	드라마	6	18.0
8	SBS	일요일이 좋다	예능	4	17.0
9	KBS2	특별기획드라마 (각시탈)	드라마	7	15.3
10	SBS	순간포착	시사/교양	4	14.6
11	KBS1	KBS뉴스광장	보도	1	14.3
12	KBS2	런던올림픽 축구	스포츠	2	14.2
13	SBS	드라마스페셜 (유령)	드라마	8	13.6
14	KBS1	전국노래자랑	음악	5	13.5
15	SBS	힐링캠프 기쁘지 아니한가	예능	4	12.9
16	KBS1	러브 인 아시아	시사/교양	5	12.8
17	KBS2	해피선데이	예능	5	12.6
18	MBC	MBC아침드라마 (천사의 선택)	드라마	22	12.6
19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시사/교양	3	12.4
20	MBC	주말특별기획드라마 (닥터 진)	드라마	9	12.2

* 출처: AGB닐슨 미디어리서치

▶ 전체 프로그램 시청률 TOP 20 장르별 점유율

장르	2012. 5.	2012. 6.	2012. 7.	점유율
드라마	12	10	9	45%
시사/교양	3	2	3	15%
보도	2	1	2	10%
예능	3	7	4	20%
스포츠	-	-	1	5%
음악	-	-	1	5%



* 출처: AGB닐슨 미디어리서치, 한국콘텐츠진흥원 재구성



7월 종합편성채널/유료채널 프로그램 중에서는 SBS ESPN에서 방영한 '2012 한일프로야구 레전드 매치<생방송>'이 2.1%의 시청률로 1위를 차지했고, JTBC '휴먼다큐 (당신의 이야기 스페셜)'이 2위에 올랐다. 채널A의 '이영돈 PD의 먹거리 X파일'는 1.85%의 시청률로 3위에 올랐다.

유료채널 시청률 상위 20개 프로그램을 장르별로 구분하면, 보도 프로그램이 5편으로 25%의 점유율을 보였고, 예능과 스포츠가 4편(20%), 시사교양이 3편(15%), 드라마와 영화가 2편(10%)을 기록했다. 그동안 종합편성채널에서 인지도 제고 차원에서 집중했던 드라마의 비중이 제작비 부담으로 인해 점차 줄어드는 추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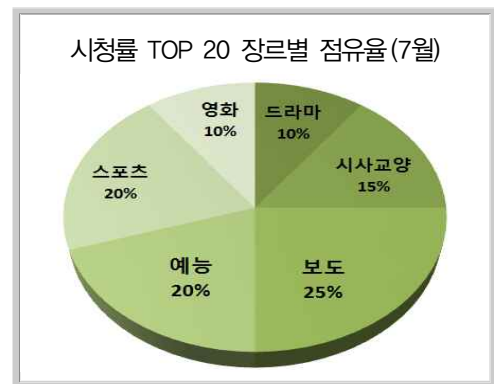
▶▶ 종합편성채널/유료채널 프로그램 가구시청률 TOP 20 (7월)

순위	채널명	프로그램명	장르	방영횟수	시청률 (%)
1	SBS ESPN	2012 한일프로야구 레전드 매치 <생>	스포츠	1	2.10
2	JTBC	휴먼다큐 (당신의 이야기 스페셜)	시사/교양	1	1.87
3	채널A	이영돈PD의 먹거리 X파일	시사/교양	4	1.85
4	JTBC	닥터의 승부	예능	5	1.45
5	MBN	고수의 비법 황금알	예능	5	1.43
6	KBSN스포츠	2012프로야구 올스타전 <생>	스포츠	2	1.42
7	JTBC	월화미니시리즈 (해피엔딩)	드라마	5	1.38
8	YTN	뉴스출발 2부	보도	25	1.35
9	KBSN스포츠	2012프로야구 <생>	스포츠	16	1.26
10	TV조선	TV조선특선영화 (조폭마누라3)	영화	2	1.22
11	MBN	민주통합당 대통령후보 예비경선 TV토론	보도	1	1.22
12	채널A	이산가족 감동 프로젝트 (이제 만나러 갑니다)	예능	5	1.21
13	YTN	YTN24 (06:00)	보도	5	1.21
14	SBS ESPN	2012 프로야구 <생>	스포츠	19	1.20
15	YTN	뉴스출발 3부	보도	25	1.17
16	채널CGV	솔트 - 2부	영화	3	1.17
17	KBS드라마	승승장구	예능	4	1.11
18	tvN	일일드라마 (노란복수초)	드라마	99	1.11
19	채널A	박종진의 쾌도난마	시사/교양	22	1.10
20	MBN	뉴스M 2부	보도	22	1.08

* 출처: AGB닐슨 미디어리서치

▶▶ 종합편성채널/유료채널 프로그램 시청률 TOP 20 장르별 점유율

장르	2012. 5.	2012. 6.	2012. 7.	7월 점유율
드라마	8	4	2	10%
시사/교양	3	3	3	15%
보도	4	3	5	25%
예능	2	4	4	20%
스포츠	3	6	4	20%
영화	-	-	2	10%



* 출처: AGB닐슨 미디어리서치, 한국콘텐츠진흥원 재구성

01 출판

02 만화

03 음악

04 공연

05 게임

06 영화

07 애니메이션

08 캐릭터

09 방송

10 광고

11 지식정보



7월 장르별 프로그램 시청률에서는 6월에 이어 KBS2의 주말연속극 ‘넝쿨째 굴러온 당신’이 드라마 부문에서 가장 높은 시청률을 보였고, 보도 부문에서는 시청률 19.29(5월 17.78%)를 기록한 ‘KBS 9시 뉴스’가 1위를 기록했다. 오락 부문에선 KBS2의 ‘개그콘서트’가 19.61%(5월 19.97%)를, 시사교양 부문에서는 SBS의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일이’가 12.60%(5월 12.96%)를 기록하며 각각 1위를 차지했다.

▶▶ 장르별 프로그램 시청률 (7월)

1. 드라마

순위	채널명	프로그램명	방영횟수	시청률 (%)
1	KBS2	주말연속극 (넝쿨째 굴러온 당신)	9	34.68
2	SBS	특별기획 (신사의 품격)	7	22.86
3	KBS1	일일연속극 (별도 달도 따줄게)	22	22.83
4	MBC	창사특별기획 (빛과 그림자)	2	18.59
5	SBS	SBS월화드라마 (추적자 THE CHASER)	6	18.04

2. 보도

순위	채널명	프로그램명	방영횟수	시청률 (%)
1	KBS1	KBS 9시뉴스	31	19.29
2	KBS1	KBS 뉴스광장	1	14.30
3	KBS1	KBS 뉴스7	22	10.03
4	KBS1	KBS 뉴스 (12:00)	9	9.36
5	KBS1	KBS 뉴스라인	22	7.57

3. 예능

순위	채널명	프로그램명	방영횟수	시청률 (%)
1	KBS2	개그콘서트	5	19.46
2	SBS	일요일이 좋다	4	17.03
3	SBS	힐링캠프 기쁘지 아니한가	4	12.93
4	KBS2	해피선데이	5	12.61
5	MBC	무한도전	2	12.15

4. 시사/교양

순위	채널명	프로그램명	방영횟수	시청률 (%)
1	SBS	순간포착	4	14.58
2	KBS1	러브 인 아시아	5	12.85
3	SBS	그것이 알고 싶다	3	12.38
4	KBS1	인간극장	22	11.21
5	KBS2	V특공대	3	11.16

* 출처: AGB닐슨 미디어리서치

- 01 출판
- 02 만화
- 03 음악
- 04 공연
- 05 게임
- 06 영화
- 07 애니메이션
- 08 캐릭터
- 09 방송
- 10 광고
- 11 지식 정보



성별 시청률 순위에서는 6월에 이어 남녀 모두 ‘넝쿨째 굴러온 당신’이 1위에 올랐다. 연령별 시청률 순위에서는 과업으로 인한 긴 휴식기를 마치고 7월 21일 제작이 재개된 ‘무한도전’이 13~18세에서 높은 시청률을 보였고, 19세 이상과 60세 이상 연령대에서는 ‘넝쿨째 굴러온 당신’이 1위에 올랐다. 전월과 마찬가지로 전반적으로 남자보다는 여자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 60세 이상의 시청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성별 / 연령별 프로그램 시청률 (7월)

1. 남자

순위	채널명	프로그램명	방영횟수	시청률 (%)
1	KBS2	주말연속극 (넝쿨째 굴러온 당신)	9	13.79
2	KBS2	개그콘서트	5	10.41
3	SBS	특별기획 (신사의 품격)	7	7.95
4	SBS	일요일이 좋다	4	7.80
5	KBS2	런던올림픽 축구	2	7.21

2. 여자

순위	채널명	프로그램명	방영횟수	시청률 (%)
1	KBS2	주말연속극 (넝쿨째 굴러온 당신)	9	19.79
2	SBS	특별기획(신사의 품격)	7	14.97
3	KBS2	개그콘서트	5	11.69
4	SBS	일요일이 좋다	4	10.05
5	KBS1	일일연속극 (별도 달도 따줄게)	22	9.61

3. 13 - 18세

순위	채널명	프로그램명	방영횟수	시청률 (%)
1	MBC	무한도전	2	10.48
2	KBS2	개그콘서트	5	10.38
3	SBS	일요일이 좋다	4	9.98
4	KBS2	주말연속극 (넝쿨째 굴러온 당신)	9	8.99
5	SBS	특별기획 (신사의 품격)	7	7.03

4. 개인 19+

순위	채널명	프로그램명	방영횟수	시청률 (%)
1	KBS2	주말연속극 (넝쿨째 굴러온 당신)	9	18.35
2	SBS	특별기획 (신사의 품격)	7	12.65
3	KBS2	개그콘서트	5	10.79
4	KBS1	일일연속극 (별도 달도 따줄게)	22	9.86
5	SBS	SBS월화드라마 (추적자 THE CHASER)	6	9.07

5. 개인 60+

순위	채널명	프로그램명	방영횟수	시청률 (%)
1	KBS1	일일연속극 (별도 달도 따줄게)	22	27.21
2	KBS2	주말연속극 (넝쿨째 굴러온 당신)	9	24.99
3	KBS1	KBS 9시뉴스	31	19.43
4	KBS1	전국노래자랑	5	16.51
5	KBS1	러브 인 아시아	5	15.27

* 출처: AGB닐슨 미디어리서치

01 출판

02 만화

03 음악

04 공연

05 게임

06 영화

07 애니메이션

08 캐릭터

09 방송

10 광고

11 지식 정보



케이블TV 가입자는 2012년 6월 말 기준으로 전국적으로 1,489만 가입자를 확보하고 있지만 그 수는 조금씩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통신사 결합 및 다양한 부가 서비스 이용이 용이한 IPTV 가입자가 점증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디지털 케이블TV의 가입자 수는 꾸준히 늘어나는 반면, 아날로그 케이블TV의 가입자는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297만 명, 경기도가 287만 명을 기록했고, 제주도가 19만 명으로 가장 적은 가입자수를 기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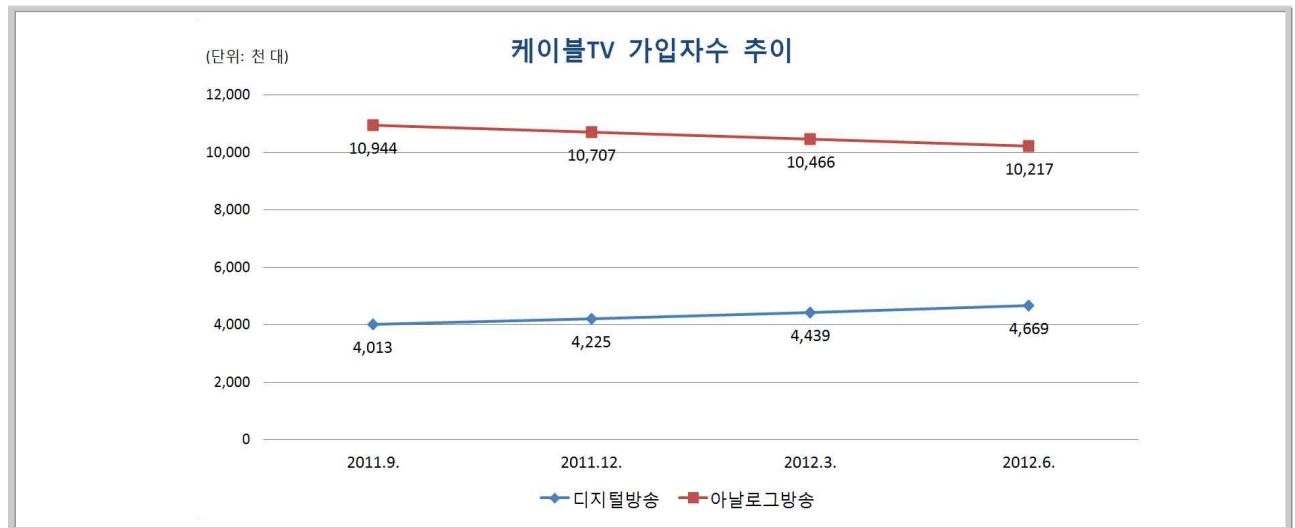
▶ 케이블TV / IPTV 가입자 현황

1. 케이블TV 지역별 가입자 (대수 기준)

(단위: 천 명)

지역	디지털방송				아날로그방송				합계			
	2011. 9.	2011.12.	2012. 3.	2012. 6.	2011. 9.	2011.12.	2012. 3.	2012. 6.	2011. 9.	2011.12.	2012. 3.	2012. 6.
서울	1,559	1,614	1,648	1,699	1,460	1,384	1,326	1,275	3,019	2,998	2,975	2,974
부산	347	362	382	404	871	849	828	805	1,218	1,212	1,211	1,209
대구	80	88	99	116	773	766	756	739	854	854	855	854
인천	272	285	296	310	442	420	402	384	715	706	699	694
광주	31	36	39	43	509	507	504	501	541	544	544	544
대전	22	21	23	26	471	499	501	501	493	521	524	527
울산	112	117	120	122	306	304	304	301	419	421	424	423
경기	805	845	890	950	2,118	2,057	1,986	1,917	2,923	2,903	2,877	2,867
강원	43	64	75	86	433	418	403	392	476	483	479	479
충북	86	90	94	102	326	321	316	310	412	411	411	412
충남	64	71	80	91	495	487	475	466	559	559	556	557
전북	37	40	44	48	428	423	419	417	466	463	464	465
전남	30	37	47	55	508	489	487	485	538	527	534	539
경북	120	128	142	161	788	780	764	752	909	909	907	913
경남	338	356	387	391	882	870	862	847	1,220	1,227	1,249	1,238
제주	60	62	63	65	127	125	125	125	187	188	188	190
합계	4,013	4,225	4,439	4,669	10,944	10,707	10,466	10,217	14,957	14,932	14,905	14,886
비율	26.8	28.3%	29.8%	31.40%	73.2%	71.7%	70.2%	68.60%	100.0%	100.0%	100.0%	100.00%

* 출처: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KCT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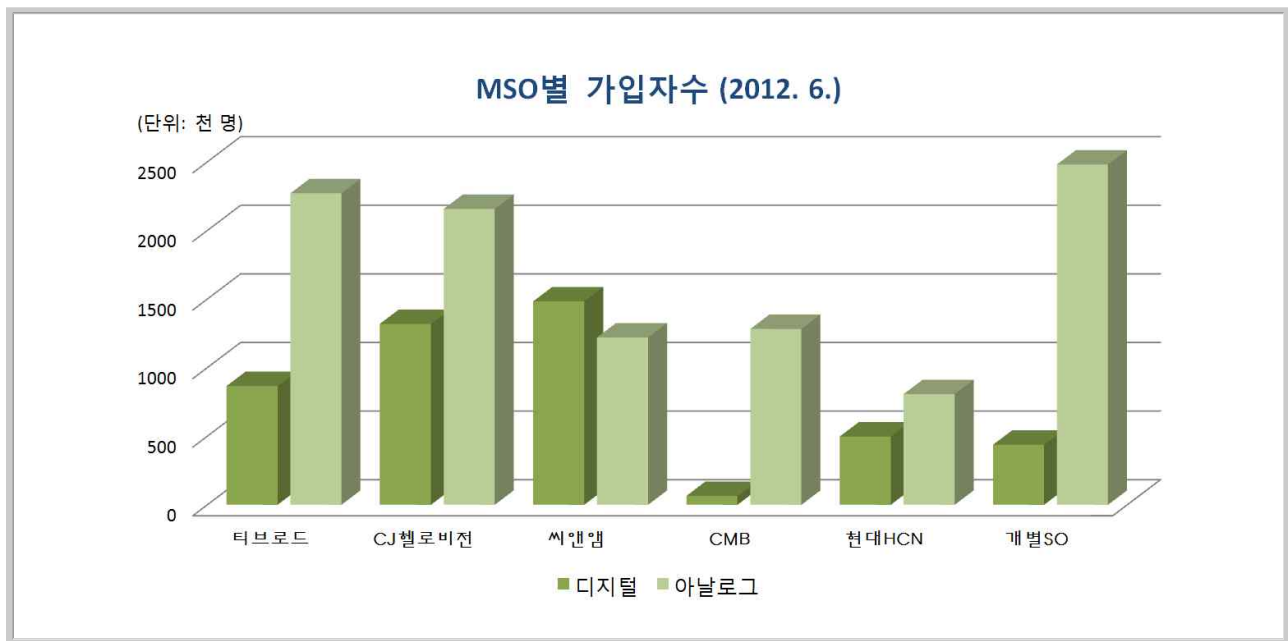
케이블TV MSO별 가입자 기준으로는 'CJ헬로비전'이 348만 명으로 가장 많은 가입자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디지털방송 가입자 수에서는 '씨앤엠(148만)'이, 아날로그방송 가입자 수는 '티브로드(227만)'가 가장 많았다. 씨앤엠은 다른 MSO와는 달리 디지털방송 가입자의 수가 아날로그방송 가입자 수보다 많았다.

2. 케이블TV MSO별 가입자 (대수 기준)

(단위: 천 명)

구분	SO수	디지털방송				아날로그방송				합계			
		2011. 9.	2011.12.	2012. 3.	2012. 6.	2011. 9.	2011.12.	2012. 3.	2012. 6.	2011. 9.	2011.12.	2012. 3.	2012. 6.
티브로드	22개사	716	757	809	866	2,509	2,427	2,338	2,271	3,226	3,185	3,147	3,137
CJ헬로비전	19개사	1,143	1,197	1,268	1,319	2,326	2,249	2,205	2,157	3,469	3,446	3,473	3,476
씨앤엠	18개사	1,344	1,394	1,427	1,483	1,364	1,317	1,271	1,220	2,709	2,712	2,699	2,703
CMB	9개사	48	51	56	65	1,268	1,293	1,289	1,282	1,316	1,344	1,345	1,347
현대HCN	8개사	433	448	469	498	893	869	842	807	1,327	1,318	1,311	1,305
소계	76개사	3,686	3,850	4,031	4,232	8,362	8,157	7,946	7,736	12,049	12,007	11,978	11,968
개별SO	18개사	326	375	407	438	2,581	2,549	2,519	2,481	2,908	2,924	2,927	2,919
합계	94개사	4,013	4,225	4,439	4,669	10,944	10,707	10,466	10,217	14,957	14,932	14,905	14,886

* 출처: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KCTA)



01 출판

02 만화

03 음악

04 공연

05 게임

06 영화

07 애니메이션

08 캐릭터

09 방송

10 광고

11 지식 정보



IPTV 가입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올해 1월 500만 가입자를 돌파했던 IPTV는 7월 말 현재 583만 명의 가입자를 확보했으며, 매월 10만 명 이상의 가입자 증가추이를 보이고 있다. 통신사별 가입자는 'olleh tv'가 364만 명으로 가장 많은 가입자를 확보하고 있고, BTV가 123만 명, U+TV가 96만 명의 가입자수를 기록하고 있다. 1위 사업자인 'olleh tv'는 빠른 속도로 가입자를 늘려가며 2, 3위와의 격차를 벌려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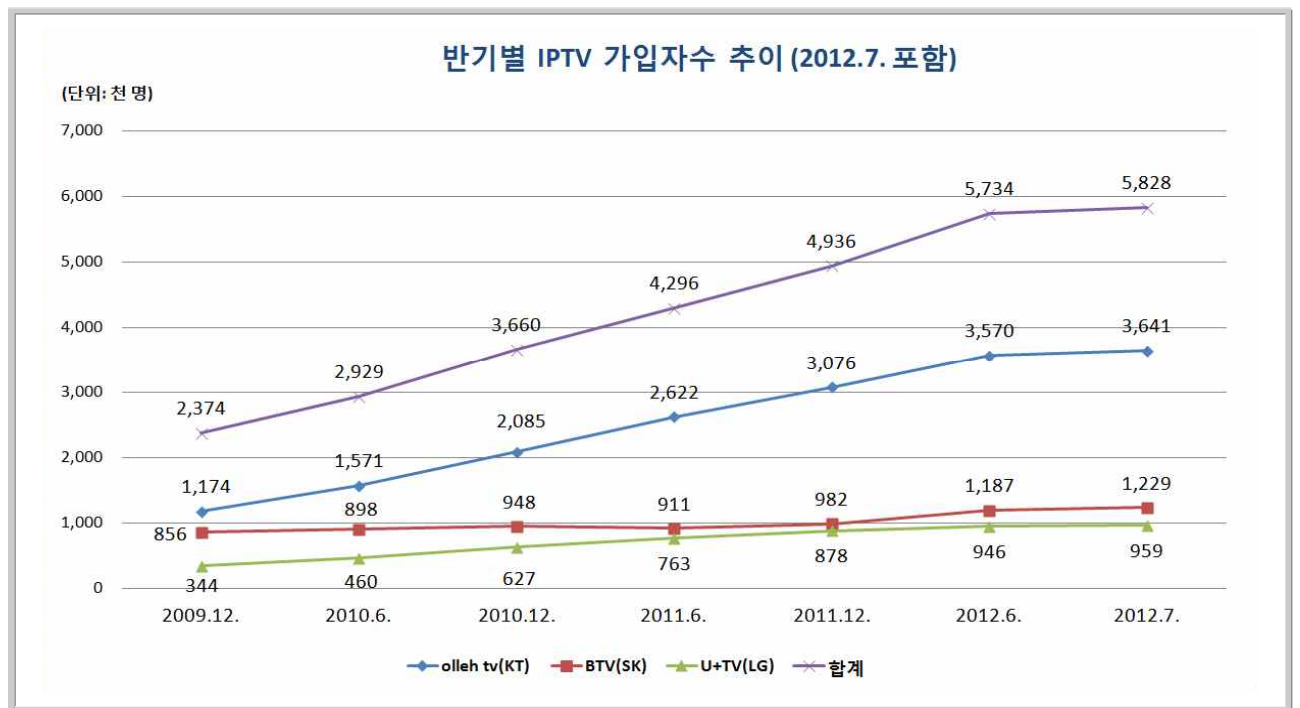
3. IPTV 가입자 현황

(단위 : 천 명)

구분	2009. 12.	2010. 6.	2010. 12.	2011. 6.	2011. 12.	2012. 1.	2012. 2.	2012. 3.	2012. 4.	2012. 5.	2012. 6.	2012. 7.
olleh tv (KT)	1,174 (1,009)	1,571 (1,184)	2,085 (1,727)	2,622 (2,308)	3,076 (2,810)	3,147 (2,885)	3,231 (2,976)	3,316 (3,067)	3,406 (3,162)	3,484 (3,245)	3,570 (3,338)	3,641 (3,419)
BTV (SK)	856 (402)	898 (574)	948 (735)	911 (756)	982 (883)	1,004 (912)	1,032 (947)	1,067 (987)	1,105 (1,031)	1,145 (1,076)	1,187 (1,121)	1,229 (1,167)
U+TV (LG)	344 (330)	460 (457)	627 (624)	763 (761)	878 (877)	888 (886)	898 (896)	905 (904)	916 (915)	932 (931)	946 (945)	959 (958)
합계	2,374 (1,741)	2,929 (2,215)	3,660 (3,086)	4,296 (3,825)	4,936 (4,570)	5,039 (4,683)	5,161 (4,819)	5,288 (4,958)	5,427 (5,108)	5,561 (5,252)	5,734 (5,404)	5,828 (5,544)

* 천 단위 이하는 절삭, 괄호 안은 실시간 채널 가입자

* 출처: 한국디지털미디어산업협회



* 2012년 6월 이후 증가추이가 꺾인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집계 단위가 6개월에서 1개월로 바뀌기 때문으로 실제로는 일정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음



10 광고

7월 인터넷 노출형 광고는 상위 30개 업체가 596억 원의 매출액을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550억 원이었던 6월 대비 46억 원(8.4%) 증가한 것이다. 상위 3개 포털인 '네이버', '다음', '네이트'의 점유율 합계는 6월과 같은 76.5%를 기록했다. 상위 3개 포털의 점유율은 3월 72.5%, 4월 73.6%, 5월 75.2%, 6월 76.5%를 기록하며 지속적으로 상승했었으나, 7월에는 변동이 없었다. 상위 3개 포털이 6월에 유치한 광고료는 486억 원으로 5월의 448억 원에 비해 38억 원 증가했으며, 상위 30위의 광고비 매출 중 3개사가 차지하는 비율은 81.6%로 집계되었다.

한편 4~6월과 같이 상위 6개 매체를 제외하고는 모두 1% 미만의 점유율을 보였으며, 상위 30개 매체가 차지하는 매출 규모는 전체 시장의 94.0%로 6월(93.7%)에 비해 0.3%p 증가했다.

▶ 인터넷 노출형 광고 현황

1. 매체별 인터넷 노출형 광고 TOP 30 (7월)

순위	매체	광고수	캠페인수	브랜드수	점유율	광고비(천원)
1	naver.com	1,190	689	362	31.5%	20,041,881
2	daum.net	1,191	697	353	28.4%	18,082,734
3	nate.com	876	371	179	16.6%	10,525,534
4	kr.yahoo.com	658	275	110	3.5%	2,215,026
5	joinsmsn.com	431	154	99	2.0%	1,258,552
6	chosun.com	357	183	123	1.0%	645,854
7	pandora.tv	280	166	124	0.9%	579,722
8	sportsseoul.com	363	185	113	0.7%	471,419
9	donga.com	333	206	140	0.7%	453,692
10	inven.co.kr	474	94	53	0.6%	373,290
11	mk.co.kr	244	91	54	0.6%	369,904
12	ohmynews.com	359	212	159	0.6%	366,819
13	zdnet.co.kr	228	77	43	0.6%	355,835
14	yonhapnews.co.kr	230	180	134	0.5%	321,345
15	maxmovie.com	422	132	80	0.5%	319,536
16	gamemeca.com	258	70	39	0.5%	318,290
17	gomtv.com	58	53	37	0.4%	254,752
18	pressian.com	230	123	98	0.4%	249,603
19	danawa.com	128	76	49	0.4%	231,441
20	hankooki.com	130	56	34	0.4%	230,555
21	dt.co.kr	329	249	152	0.4%	227,969
22	ytn.co.kr	309	197	133	0.4%	226,130
23	etnews.com	144	80	59	0.3%	215,478
24	khan.co.kr	371	195	137	0.3%	209,856
25	hankyung.com	139	60	43	0.3%	190,876
26	dreamwiz.com	301	207	125	0.3%	179,520
27	moneta	120	53	38	0.3%	176,131
28	mydaily.co.kr	207	140	82	0.3%	175,297
29	newdaily.co.kr	207	100	75	0.3%	171,631
30	ezday.co.kr	212	57	53	0.3%	169,210
	합계	10,779	5,428	3,280	94.0%	59,607,882

* 해당 수치는 인터넷매체의 고정 광고지면에 게재된 노출형광고를 장치를 통해 수집, 분류 및 통계처리하여 광고비 산출모형을 통해 계산된 값으로, 실제 금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출처: 리서치애드(www.researchad.com)

01 출판

02 만화

03 음악

04 공연

05 게임

06 영화

07 애니메이션

08 캐릭터

09 방송

10 광고

11 지식정보



01 출판

02 만화

03 음악

04 공연

05 게임

06 영화

07 애니메이션

08 캐릭터

09 방송

10 광고

11 지식 정보

7월 광고주별 인터넷 노출형 광고에서는 ‘삼성전자’가 약 32억 원의 광고를 집행하며 점유율 5.0%로 1위에 올랐다. 뒤를 이어 31억 원을 집행한 넥슨이 2위를 기록했고, 6월에 18억을 집행하며 1위에 올랐던 현대캐피탈이 17억 원으로 3위를 기록했다. 옥션과 G마켓을 소유한 이베이코리아가 16억 원으로 4위에, 아모레퍼시픽이 11억 원으로 5위에 올랐다.

한편 상위 30대 광고주의 인터넷 노출형 광고 점유율은 41.6%, 집행금액은 264억 원으로 나타나 6월 점유율 37.7%, 집행금액 220억 원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2. 광고주별 인터넷 노출형 광고 TOP 30 (7월)

순위	광고주	광고수	캠페인수	점유율	광고비(천원)
1	삼성전자	190	44	5.0%	3,187,218
2	넥슨	372	36	4.9%	3,095,553
3	현대캐피탈	134	24	2.7%	1,730,284
4	이베이코리아	314	144	2.5%	1,565,651
5	아모레퍼시픽	101	19	1.8%	1,141,237
6	신세계	264	114	1.7%	1,085,362
7	현대엠코	3	2	1.5%	983,523
8	한국피앤지	72	14	1.5%	940,117
9	포워드벤처스엘엘씨	54	26	1.4%	878,702
10	롯데쇼핑롯데엔터테인먼트	107	31	1.3%	851,385
11	밝은성모안과	78	5	1.3%	796,660
12	Ford motor	17	2	1.2%	749,433
13	SK플래닛	121	74	1.2%	740,747
14	CJEnM픽처스	118	27	1.0%	608,458
15	강남하늘안과	21	6	0.9%	587,681
16	에이블씨엔씨	23	4	0.9%	585,507
17	하나은행	93	4	0.9%	564,408
18	삼성화재	30	4	0.9%	542,554
19	SK텔레콤	84	13	0.8%	534,591
20	현대건설	18	7	0.8%	523,774
21	기아자동차	61	5	0.8%	513,741
22	한국존슨앤드존슨	36	6	0.8%	507,842
23	매일유업	62	12	0.8%	501,576
24	더페이스샵	25	3	0.8%	484,402
25	서울우유	73	6	0.7%	459,256
26	20세기폭스사	61	16	0.7%	451,002
27	아디다스	36	5	0.7%	444,732
28	라이브플렉스	119	6	0.7%	443,551
29	호텔신라	15	2	0.7%	441,327
30	동아제약	20	2	0.7%	415,567
합계		2,722	663	41.6%	26,355,841

* 해당 수치는 인터넷매체의 고정 광고지면에 게재된 노출형광고를 장치를 통해 수집, 분류 및 통계처리하여 광고비 산출모형을 통해 계산된 값으로, 실제 금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출처: 리서치애드(www.researchad.com)



7월 검색광고 시장 광고주 수는 144,000개를 기록하며 148,000개를 기록했던 6월에 비해 2.7% 감소했다. 매체별 점유율에서는 '네이버'가 33.9%로 1위를, '오버추어-네이버 공동집행'이 14%로 2위를 기록했고 '네이트'는 11.2%로 3위를 기록했다. 전월 대비 '네이버'가 3.4%p 증가한 반면 '오버추어'는 3.2%p 감소했다. '오버추어'는 6월에 전월 대비 3.0%p 증가하며 잠시 회복세를 보였었지만 다시 하락했다.

최근 7개월간 '네이버'는 점유율을 지속적으로 높이며 광고 시장에서의 주도권을 강화하고 있는 반면, '네이트'의 점유율은 2011년 12월 대비 2.0%p 하락했다. '오버추어'는 계속해서 월별 변동이 심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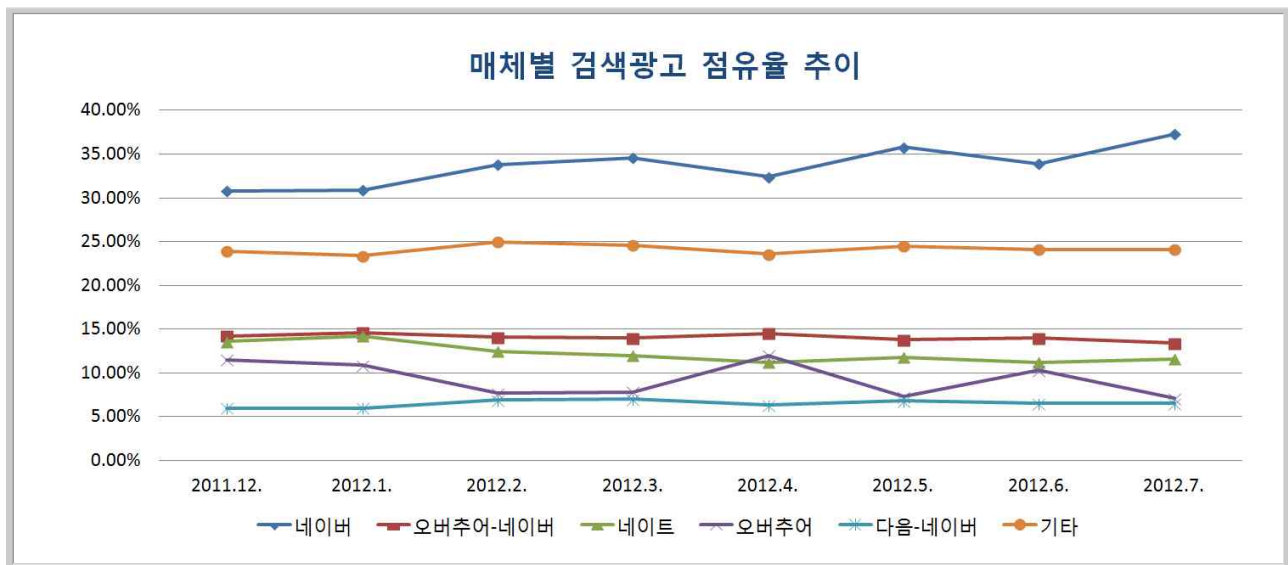
➤ **검색광고 현황**

1. 전체 광고주 수 (2011. 12. ~ 2012. 7.)

구분	2011. 12.	2012. 1.	2012. 2.	2012. 3.	2012. 4.	2012. 5.	2012. 6.	2012. 7.	전월대비 증감율
광고주 수	150,300	151,500	137,600	140,100	148,000	142,500	148,000	144,000	-2.7%

2. 매체별 점유율 (2011. 12. ~ 2012. 7.)

구분	2011. 12.	2012. 1.	2012. 2.	2012. 3.	2012. 4.	2012. 5.	2012. 6.	2012. 7.	전월대비 증감율
네이버	30.8%	30.9%	33.8%	34.6%	32.4%	35.8%	33.9%	37.3%	3.4%p
오버추어-네이버	14.2%	14.6%	14.1%	14.0%	14.5%	13.8%	14.0%	13.4%	-0.6%p
네이트	13.6%	14.2%	12.5%	12.0%	11.2%	11.8%	11.2%	11.6%	0.4%p
오버추어	11.5%	10.9%	7.7%	7.8%	12.0%	7.3%	10.3%	7.1%	-3.2%p
다음-네이버	6.0%	6.0%	6.9%	7.0%	6.3%	6.8%	6.5%	6.5%	0%p
기타	23.9%	23.4%	25%	24.6%	23.6%	24.5%	24.1%	24.1%	0%p
합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



01 출판

02 만화

03 음악

04 공연

05 게임

06 영화

07 애니메이션

08 캐릭터

09 방송

10 광고

11 지식정보



11 지식정보

7월 국내 인터넷 웹사이트 종합 순위(순방문자수 기준)에서는 '네이버'가 순방문자수 3,218만 명으로 1위에 올랐다. 뒤를 이어 '다음'과 '티스토리'가 각각 2위와 3위를 차지했지만, '티스토리'의 경우 월평균체류시간이 약 11분으로 355분을 기록한 '네이버'와 260분을 기록한 '다음'에 크게 못 미쳤다. 6월과 비교하여 큰 폭의 변동을 보인 사이트는 없었지만, 전반적으로 순방문자수가 늘어난 경향이 보였으며, 주요 포털 이외에 언론사 사이트(매일경제, 조선, 중앙, 한국경제 등)와 온라인 쇼핑몰(지마켓, 옥션, 11번가 등)에 대한 방문이 전월과 마찬가지로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옥션'의 경우 월평균 58분의 체류시간을 기록했고, '지마켓'이 47분, '11번가'는 33분을 기록했는데, 대부분의 인터넷이용자가 복수의 사이트를 중복 이용하는 것을 감안하면 온라인 쇼핑몰 이용시간이 월평균 1시간이 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 웹사이트 종합 순위 TOP 15 (7월)

순위	순위			도메인	순방문자 ¹⁷⁾	도달률(%) ¹⁸⁾	월평균 체류시간(분) ¹⁹⁾	월평균 재방문일수 ²⁰⁾	월평균 페이지뷰(회수) ²¹⁾	순방문자 증감률(%)
	7월	6월	5월							
1	1	1	naver.com	32,175,766	95.84	355.45	12.68	665.50	3.87	
2	2	2	daum.net	28,937,292	86.20	260.32	9.96	486.01	4.66	
3	3	3	tistory.com	20,735,975	61.77	10.71	3.41	11.36	8.75	
4	4	4	nate.com	18,930,508	56.39	109.42	7.05	170.55	-0.01	
5	5	6	mk.co.kr	17,433,917	51.93	10.5	3.77	10.79	6.12	
6	7	7	chosun.com	16,477,392	49.08	18.47	4.12	19.18	6.73	
7	6	5	cyworld.com	16,044,775	47.79	27.6	4.54	67.25	0.44	
8	8	10	gmarket.co.kr	15,721,548	46.83	47.38	4.05	89.03	5.86	
9	9	8	joinsmsn.com	15,588,449	46.43	17.32	3.61	45.44	7.51	
10	10	9	auction.co.kr	14,968,852	44.59	57.95	4.24	113.46	5.31	
11	12	15	donga.com	14,711,872	43.82	12.93	3.20	17.30	8.28	
12	11	11	hankyung.com	14,588,755	43.46	7.06	2.93	6.27	2.94	
13	13	12	11st.co.kr	14,535,083	43.30	32.98	3.56	52.95	7.04	
14	14	14	hankooki.com	14,194,600	42.28	10.29	3.35	15.27	6.19	
15	15	13	mt.co.kr	14,040,507	41.82	7.70	3.05	6.40	6.69	

* 본 데이터는 패널로 선출된 국내 인터넷 사용자의 PC에 설치된 소프트웨어를 통해 집계되는 통계적 추정치로써 오차가 발생할 수 있음 (조사 방법론 참조: http://www.koreanclick.com/methodology/audience_measurement.php)

* 출처: 닐슨 코리아클릭 (www.koreanclick.com)

- 17) 순방문자: 해당 기간 동안 웹사이트를 적어도 1번 이상 방문한 이용자
- 18) 도달률: 전체 인터넷 이용자수 대비 순방문자수의 비율
- 19) 평균체류시간: 측정기간 중 순방문자 1인당 발생시킨 체류시간의 평균을 의미
- 20) 평균재방문일수: 측정기간 중 해당사이트에 방문한 순방문자 1인당 평균 재방문한 일의 수
- 21) 평균페이지뷰: 측정기간 중 해당사이트에 방문한 순방문자 1인당 조회한 평균 페이지 조회수



7월 주요 서비스별 웹사이트 순위는 검색·커뮤니티·이메일 서비스 모두 여전히 주요 포털(네이버, 다음, 네이버)의 이용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검색 서비스>에서는 '구글'이 시간점유율에서 '네이트'를 앞서는 추세이고, <커뮤니티 서비스>에서도 '싸이월드'의 시간점유율이 소폭 하락하는 등 상위 2개 포털의 지배력이 강화되고 '네이트'의 영향력이 조금씩 하락하고 있다. 한편 '네이버'와 '다음'의 시간점유율을 합산하면 전체 검색 서비스의 93.21%, 커뮤니티 서비스의 92.17%, 이메일 서비스의 70.57%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 주요 서비스별 웹사이트 순위 (7월)

1. 검색 서비스

순위	도메인	순방문자	도달률(%)	월평균체류시간(분)	월평균재방문일수(일)	시간점유율(%)	증감률(%)
1	naver.com	29,487,464	87.84	75.72	10.12	76.25	3.66
2	daum.net	19,772,517	58.9	25.11	6.99	16.96	4.31
3	nate.com	10,983,243	32.72	6.33	3.05	2.37	-2.60
4	google.co.kr	7,462,327	22.23	12.22	3.52	3.11	5.06
5	yahoo.co.kr	3,714,490	11.06	3.36	2.32	0.43	-6.50
6	zum.com	3,560,462	10.61	3.49	2.57	0.42	17.42
7	google.com	1,802,173	5.37	5.32	2.52	0.33	8.00
8	dreamwiz.com	614,388	1.83	1.67	1.16	0.04	96.60
9	paran.com	565,191	1.68	1.51	1.86	0.03	-18.50
10	joinsmsn.com	242,492	0.72	1.11	1.45	0.01	12.78

2. 커뮤니티 서비스

순위	도메인	순방문자	도달률(%)	월평균체류시간(분)	월평균재방문일수(일)	시간점유율(%)	증감률(%)
1	naver.com	28,735,982	85.6	117.04	8.04	57.42	3.30
2	daum.net	24,046,595	71.63	84.63	5.96	34.75	5.11
3	cyworld.com	10,340,642	30.8	31.08	3.56	5.49	-2.43
4	google.com	2,535,306	7.55	3.1	1.9	0.13	1.38
5	yahoo.co.kr	2,373,528	7.07	6	2.06	0.24	-3.60
6	paran.com	2,344,621	6.98	1.5	1.25	0.06	2.55
7	joinsmsn.com	935,348	2.79	4.14	1.48	0.07	-4.68
8	nate.com	616,949	1.84	134.48	5.95	1.42	-13.74
9	chol.com	607,033	1.81	1.88	1.13	0.02	-19.19
10	dreamwiz.com	336,770	1	6.81	1.66	0.04	-20.80

3. 이메일 서비스

순위	도메인	순방문자	도달률(%)	월평균체류시간(분)	월평균재방문일수(일)	시간점유율(%)	증감률(%)
1	naver.com	17,276,779	51.46	40.86	5.91	28.43	0.81
2	daum.net	16,291,615	48.53	64.23	6.92	42.14	4.62
3	nate.com	9,908,393	29.51	45.67	5.94	18.22	-7.99
4	google.com	2,065,869	6.15	36.19	3.79	3.01	7.54
5	paran.com	1,966,085	5.86	30.86	4.31	2.44	-16.08
6	live.com	867,535	2.58	47.75	6.08	1.67	-1.47
7	korea.com	733,982	2.19	75.42	8.43	2.23	4.58
8	dreamwiz.com	648,335	1.93	42.92	6.05	1.12	1.78
9	yahoo.co.kr	635,563	1.89	19.75	4.18	0.51	3.65
10	chol.com	205,873	0.61	18.8	6.04	0.16	32.39

* 본 데이터는 패널로 선출된 국내 인터넷 사용자의 PC에 설치된 소프트웨어를 통해 집계되는 통계적 추정치로써 오차가 발생할 수 있음
* 출처: 닐슨 코리아클릭 (www.koreanclick.com)

01 출판

02 만화

03 음악

04 공연

05 게임

06 영화

07 애니메이션

08 캐릭터

09 방송

10 광고

11 지식정보



주제별 웹사이트 순위에서는 <뉴스/미디어 분야>의 사이트들이 상대적으로 높은 순방문자수를 기록하는 가운데 평균체류시간에서는 <전자상거래 분야>의 사이트들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 ‘매일경제’, ‘조선닷컴’, ‘동아일보’, ‘한국경제’ 등 뉴스 사이트들이 천만 명 이상의 순방문자수를 기록했지만 20분미만의 평균체류시간을 보였음에 반해, ‘G마켓’, ‘옥션’, ‘11번가’ 등 전자상거래 사이트들은 순방문자수는 뉴스/미디어에 비해 적었지만 인터파크를 제외한 10위권의 모든 사이트들이 20~50분대의 높은 평균체류시간을 기록했다.

▶ 주제별 웹사이트 순위 TOP 5 (7월)

1. 뉴스/미디어

순위	도메인	순방문자	도달률(%)	월평균체류시간(분)	월평균재방문일수(일)	시간점유율(%)	증감률(%)
1	mk.co.kr	17,433,917	51.93	10.50	3.77	6.29	6.12
2	chosun.com	16,477,392	49.08	18.47	4.12	10.46	6.73
3	donga.com	14,711,872	43.82	12.93	3.20	6.54	8.28
4	hankyung.com	14,588,755	43.46	7.06	2.93	3.54	2.94
5	hankooki.com	14,194,600	42.28	10.29	3.35	5.02	6.19
6	mt.co.kr	14,040,507	41.82	7.70	3.05	3.72	6.69
7	asiae.co.kr	13,475,180	40.14	8.74	3.01	4.05	7.99
8	seoul.co.kr	11,924,016	35.52	6.67	2.69	2.73	6.48
9	sbs.co.kr	11,551,124	34.41	8.90	2.39	3.53	13.22
10	heraldm.com	10,527,537	31.36	4.77	2.41	1.73	-3.14

2. 전자상거래

순위	도메인	순방문자	도달률(%)	월평균체류시간(분)	월평균재방문일수(일)	시간점유율(%)	증감률(%)
1	gmarket.co.kr	15,721,548	46.83	47.38	4.05	11.96	5.86
2	auction.co.kr	14,968,852	44.59	57.95	4.24	13.93	5.31
3	11st.co.kr	14,535,083	43.3	32.98	3.56	7.7	7.04
4	interpark.com	9,647,149	28.74	16.84	2.56	2.61	13.22
5	coupang.com	9,267,715	27.61	23.95	3.22	3.56	18.25
6	cjmall.com	7,409,286	22.07	32.62	3.82	3.88	11.02
7	lotte.com	7,223,876	21.52	24.86	3.23	2.88	3.06
8	ticketmonster.co.kr	6,858,866	20.43	25.82	3.43	2.84	4.46
9	gsshop.com	6,793,083	20.23	23.90	3.30	2.61	3.53
10	lotteimall.com	6,300,915	18.77	22.43	3.27	2.27	12.96

* 본 데이터는 패널로 선출된 국내 인터넷 사용자의 PC에 설치된 소프트웨어를 통해 집계되는 통계적 추정치로써 오차가 발생할 수 있음

* 출처: 닐슨 코리아클릭 (www.koreanclick.com)



〈엔터테인먼트 분야〉에서는 ‘유튜브’가 전월대비 7.37% 증가한 931만 명의 순방문자수와 19분의 평균체류시간을 기록했고, 동영상 서비스 ‘판도라(pandora.tv)’와 ‘곰TV(gomtv.com)’가 순방문자수에서 2, 3위를 기록했다. ‘2012 여수세계박람회’ 공식 홈페이지와 ‘CGV’ 홈페이지는 각각 21분, 14분의 평균체류시간을 기록하며 상대적으로 높은 이용도를 나타냈다.

〈SNS/커뮤니티 분야〉에서는 ‘티스토리(tistory.com)’가 2,000만 명이 넘는 순방문자수를 기록했지만 평균체류시간이 약 11분으로, 58분을 기록한 ‘페이스북’에 미치지 못했다. ‘페이스북’은 1,200만 명의 순방문자와 높은 체류시간을 기반으로 해당분야 35.81%의 시간점유율을 기록했다. 한편 ‘SLR클럽(slclub.com)’과 ‘일베저장소(ilbe.com)’, ‘DC인사이드(dcinside.com)’는 상대적으로 적은 순방문자수에도 불구하고 각각 92분, 32분, 21분의 평균이용시간을 기록하며 높은 충성도를 보였다.

3. 엔터테인먼트

순위	도메인	순방문자	도달률(%)	월평균체류시간(분)	월평균재방문일수(일)	시간점유율(%)	증감률(%)
1	youtube.com	9,311,948	27.74	19.19	2.61	20.36	7.37
2	pandora.tv	5,218,041	15.54	11.22	1.75	6.67	13.49
3	gomtv.com	4,494,465	13.39	4.22	1.57	2.16	7.05
4	cgv.co.kr	4,329,688	12.9	13.83	1.95	6.82	30.63
5	now.co.kr	2,600,180	7.75	4.07	2.77	1.21	32.79
6	mgoon.com	2,423,360	7.22	3.85	1.29	1.06	23.17
7	lottecinema.co.kr	2,246,353	6.69	10.41	1.76	2.66	17.66
8	moviejoy.com	1,866,271	5.56	1.42	1.32	0.3	-14.97
9	redfile.co.kr	1,739,250	5.18	3.49	2.6	0.69	-24.19
10	expo2012.kr	1,416,954	4.22	21.06	1.76	3.4	96.08

4. SNS/커뮤니티

순위	도메인	순방문자	도달률(%)	월평균체류시간(분)	월평균재방문일수(일)	시간점유율(%)	증감률(%)
1	tistory.com	20,735,975	61.77	10.71	3.41	11.23	8.75
2	facebook.com	12,214,437	36.38	57.96	4.49	35.81	-0.17
3	dcinside.com	7,465,871	22.24	21.09	2.29	7.96	4.76
4	twitter.com	7,050,463	21	7.31	2.27	2.61	17.41
5	egloos.com	5,111,998	15.23	7.43	1.72	1.92	1.66
6	me2day.net	2,921,997	8.7	4.76	1.82	0.7	34.02
7	twitpic.com	2,664,004	7.94	1.81	1.79	0.24	4.63
8	yfrog.com	2,321,470	6.92	1.86	1.85	0.22	1.16
9	ilbe.com	1,800,167	5.36	32.14	1.88	2.93	6.58
10	slclub.com	1,016,922	3.03	92.48	4.08	4.76	12.91

* 본 데이터는 패널로 선출된 국내 인터넷 사용자의 PC에 설치된 소프트웨어를 통해 집계되는 통계적 추정치로써 오차가 발생할 수 있음
 * 출처: 닐슨 코리아클릭 (www.koreanclick.com)

01 출판

02 만화

03 음악

04 공연

05 게임

06 영화

07 애니메이션

08 캐릭터

09 방송

10 광고

11 지식 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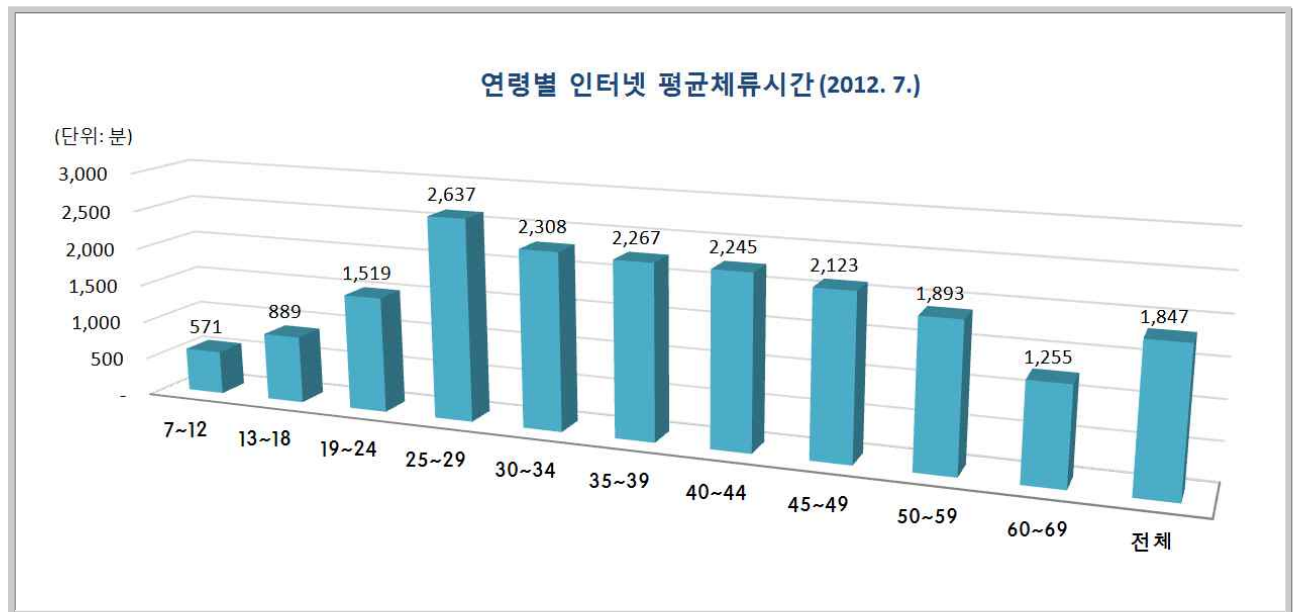
7월 인터넷 평균 이용시간은 전월 대비 2.5% 증가한 1,847분으로 나타났다. 연령별 구분에서 인터넷 이용시간이 가장 높은 집단은 '25~29세'로 7월 평균 2,637분(하루 평균 1시간 25분)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 이용시간에서 주목되는 점은 '19~24세'와 '25~29세' 사이의 편차가 크다는 점이다. 이는 수업 및 기타활동이 많은 대학생들에 비해, 직장인들의 업무 및 취미, 전자상거래 관련 인터넷 이용시간이 많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활동성이 높은 젊은 연령층의 경우 PC보다 모바일기기 이용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이유도 있을 것이다.

▶ 인터넷 이용 현황 (7월)

1. 연령별 인터넷 이용 현황 (2012. 7.)

연령	순방문자	순방문자비중(%)	도달률	방문사이트수	인터넷이용일수(일)	평균페이지뷰	평균체류시간(분)
7~12	2,489,651	7.42	94.5	27.64	10.84	1,180.95	570.71
13~18	3,614,897	10.77	95.03	44.49	12.38	1,938.98	889.26
19~24	3,798,073	11.32	95.38	66.29	13.67	3,180.81	1,519.01
25~29	3,302,808	9.84	98.13	97.77	18.04	5,308.51	2,636.57
30~34	3,802,103	11.33	98.35	84.23	17.45	4,480.29	2,307.85
35~39	3,704,550	11.04	98.42	82.07	17.84	4,271.92	2,266.87
40~44	3,912,774	11.66	97.43	75.36	18.14	4,170.08	2,244.98
45~49	3,256,918	9.70	97.04	70.67	17.13	3,994.70	2,122.83
50~59	4,482,532	13.36	98.34	63.66	16.22	3,407.02	1,893.07
60~69	1,196,112	3.56	94.62	48.74	14.4	2,250.88	1,254.76
전체	33,560,419	100.00	96.97	68.45	15.87	3,567.14	1,846.51

* 본 데이터는 패널로 선출된 국내 인터넷 사용자의 PC에 설치된 소프트웨어를 통해 집계되는 통계적 추정치로써 오차가 발생할 수 있음
* 출처: 닐슨 코리아클릭 (www.koreanclick.com)



01 출판

02 만화

03 음악

04 공연

05 게임

06 영화

07 애니메이션

08 캐릭터

09 방송

10 광고

11 지식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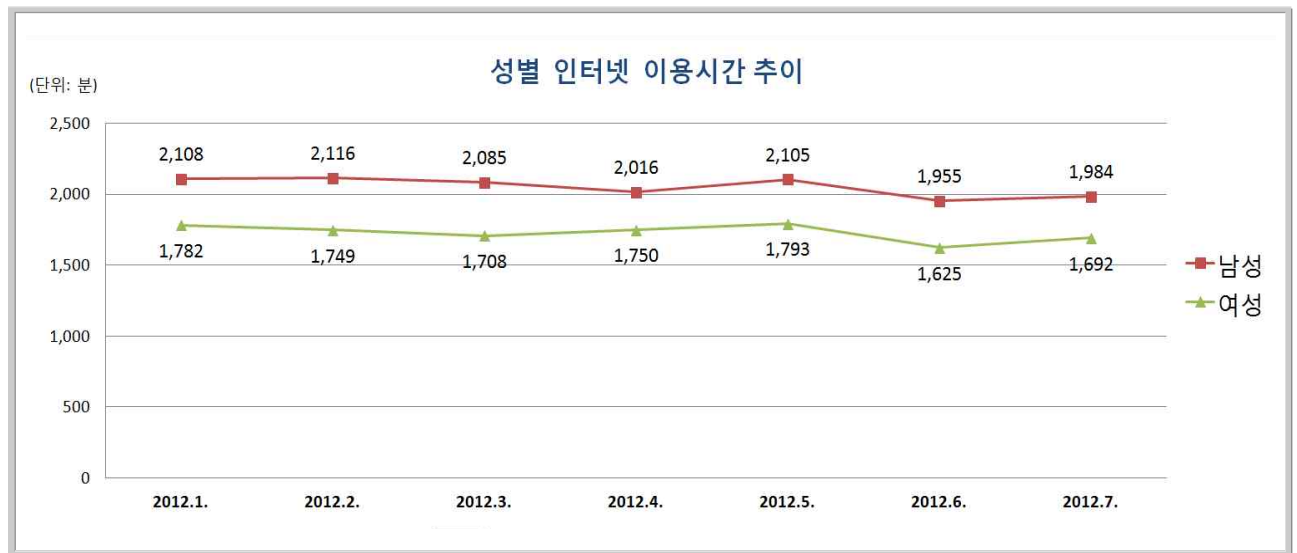
성별/연령별 인터넷 이용시간 추이에서는 '25~29세'의 인터넷 평균 이용시간이 14.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며 가장 큰 변동 폭을 보였다. 성별 기준으로는 '여성'의 이용시간이 4.1% 증가하여 1.4% 증가에 그친 '남성'과의 격차가 좁혀졌다. 한편 7월부터 세분화된 연령기준에 따르면, '50~59세'와 '60~69세'의 이용시간은 각각 1,893분과 1,255분으로 638분의 큰 차이를 보였다.

2. 성별 / 연령별 인터넷 이용시간 추이 (2012. 1. ~ 2012. 7.)

(단위 : 분)

구분	전체	남성	여성	7~12	13~18	19~24	25~29	30~34	35~39	40~44	45~49	50~59	60~69
2012. 1.	1,957	2,108	1,782	801	1,379	1,747	2,643	2,392	2,393	2,354	1,933	1,814	
2012. 2.	1,946	2,116	1,749	708	1,340	1,613	2,623	2,372	2,533	2,329	1,907	1,882	
2012. 3.	1,910	2,085	1,708	679	923	1,531	2,707	2,408	2,539	2,382	1,915	1,908	
2012. 4.	1,891	2,016	1,750	655	884	1,652	2,513	2,460	2,317	2,380	1,988	1,791	
2012. 5.	1,959	2,105	1,793	588	997	1,736	2,567	2,463	2,442	2,478	2,170	1,808	
2012. 6.	1,801	1,955	1,625	579	807	1,572	2,298	2,358	2,263	2,269	2,127	1,626	
2012. 7.	1,847	1,984	1,692	571	889	1,519	2,637	2,308	2,267	2,245	2,123	1,893	1,255

- * 2012년 1월에서 6월까지 '50세 이상'이었던 연령 항목이 7월부터 '50세~59세'와 '60세~69세'로 세분화되었음
- * 본 데이터는 패널로 선출된 국내 인터넷 사용자의 PC에 설치된 소프트웨어를 통해 집계되는 통계적 추정치로써 오차가 발생할 수 있음
- * 출처: 닐슨 코리아클릭 (www.koreanclick.com)



01 출판

02 만화

03 음악

04 공연

05 게임

06 영화

07 애니메이션

08 캐릭터

09 방송

10 광고

11 지식 정보



직업별 인터넷 이용 현황에서는 '사무직'의 방문사이트수가 87.45개로 가장 높았고 '학생'이 49.63개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월평균이용시간 역시 '사무직'이 2,580분으로 1,060분을 기록한 '학생'에 비해 2.4배가 많았다.

가족소득별 인터넷 이용 현황에서는 직업별 이용 현황에 비해 집단 간에 큰 차이가 나타나진 않았다. 가족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집단이 1,974분의 이용시간을 기록하며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고, '200~300만원'인 집단이 1,687분으로 가장 적은 시간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직업별 인터넷 이용 현황 (2012.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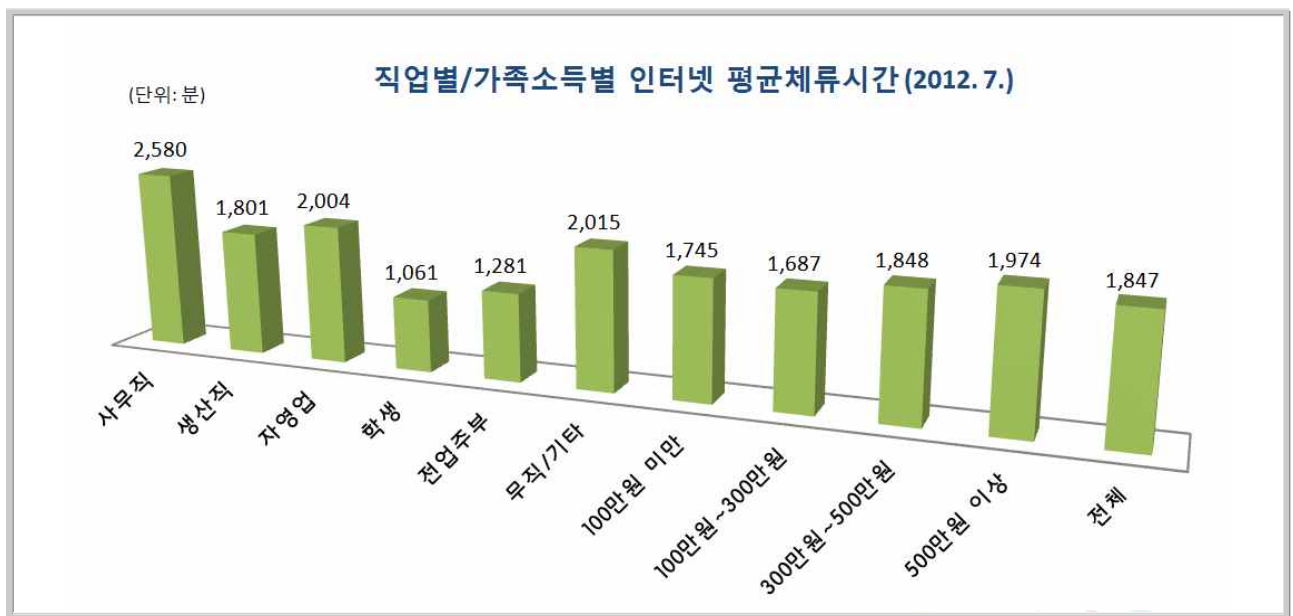
구분	순방문자	순방문자비중(%)	방문사이트수	인터넷이용일수(일)	평균페이지뷰	평균이용시간(분)
사무직	13,094,999	39.02	87.45	18.56	4,803.35	2,580.15
생산직	2,924,418	8.71	64.35	15.89	3,357.10	1,800.69
자영업	1,963,224	5.85	69.00	17.09	3,756.95	2,004.38
학생	10,127,569	30.18	49.63	12.68	2,303.73	1,060.81
전업주부	3,737,878	11.14	54.82	14.11	2,498.61	1,280.82
무직/기타	1,712,330	5.10	70.71	16.46	4,059.33	2,015.26
전체	33,560,419	100.00	68.45	15.87	3,567.14	1,846.51

4. 가족소득별 인터넷 이용 현황 (2012. 7.)

구분	순방문자	순방문자비중(%)	방문사이트수	인터넷이용일수(일)	평균페이지뷰	평균체류시간(분)
100만원 미만	985,928	2.94	68.11	15.15	3,615.13	1,745.37
100만원 ~ 300만원	7,880,431	23.48	64.73	15.26	3,297.91	1,687.24
300만원 ~ 500만원	14,218,797	42.37	68.56	15.98	3,565.48	1,848.23
500만원 이상	10,475,262	31.21	71.15	16.23	3,767.42	1,973.53
전체	33,560,419	100.00	68.45	15.87	3,567.14	1,846.51

* 본 데이터는 패널로 선출된 국내 인터넷 사용자의 PC에 설치된 소프트웨어를 통해 집계되는 통계적 추정치로써 오차가 발생할 수 있음

* 출처: 닐슨 코리아클릭 (www.koreanclick.com)





7월의 애플리케이션 순위에서는 <멀티미디어 분야>에서 동영상 재생 프로그램인 ‘곰플레이어’ 이용자가 순이용자 수 1,416만 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월평균이용시간은 10시간이 넘는 것으로 측정되었다. <P2P 분야>에서는 영화, 음악, 유틸리티 등의 음성적 다운로드에 주로 이용되는 ‘uTorrent’의 이용자가 647만 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클라우드 컴퓨팅 시대의 도래와 더불어 네이버, KT, 다음 등 유력 사업자들이 경쟁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N드라이브’, ‘유클라우드’, ‘다음 클라우드’ 등의 애플리케이션이 빠른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 애플리케이션 종류별 TOP 5 (7월)

1. 멀티미디어

순위	공급자	애플리케이션	순이용자	도달률(%)	월평균이용시간(분)	평균재방문일수(일)	전월대비증감률(%)	일평균이용자
1	Gomtv	Goplayer	14,161,299	42.18	618.18	5.52	3.47	2,507,810
2	Microsoft	Microsoft Windows media player	7,774,205	23.16	247.70	2.72	12.08	681,073
3	Gomtv	Gomaudio	3,369,359	10.04	565.54	3.70	1.03	401,700
4	Daum	PotPlayer	2,984,057	8.89	604.22	5.10	2.69	494,082
5	Apple	iTunes	2,913,195	8.68	501.33	3.90	-9.84	375,556

2. P2P

순위	공급자	애플리케이션	순이용자	도달률(%)	월평균이용시간(분)	평균재방문일수(일)	전월대비증감률(%)	일평균이용자
1	Utorrent	uTorrent	6,470,595	19.27	2,602.58	8.25	8.36	1,724,896
2	Naver	N드라이브	1,250,500	3.72	5,291.54	11.73	4.53	465,928
3	Olleh	ucloud 매니저	581,623	1.73	6,211.19	11.48	13.44	208,888
4	Sharebox	ShareBox	544,444	1.62	251.48	3.67	13.79	65,813
5	Daum	Daum 클라우드	421,657	1.26	7,564.23	14.92	14.49	202,304

* 출처: 닐슨 코리아 클릭 (www.koreanclick.com)

01 출판

02 만화

03 음악

04 공연

05 게임

06 영화

07 애니메이션

08 캐릭터

09 방송

10 광고

11 지식정보



01 출판

02 만화

03 음악

04 공연

05 게임

06 영화

07 애니메이션

08 캐릭터

09 방송

10 광고

11 지식정보

7월 어플리케이션 순위 <게임 분야>에서는 넥슨의 ‘메이플 스토리’ 이용자가 순이용자수 209만 명, 도달률 6.1%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월평균이용시간에서는 ‘리그 오브 레전드’가 1,480분으로 가장 앞섰다. ‘리그 오브 레전드’는 100만 명이 넘는 이용자가 평균 25시간 동안 게임을 즐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 분야>에서는 7월과 마찬가지로 알툴스의 압축 프로그램 ‘알집’과 어도비의 PDF 파일 뷰어 ‘아크로벳 리더’가 1,100만 명 이상의 이용자수를 기록했다. 알툴스의 ‘알씨’는 677만 명의 순이용자수를 기록하며 3위에 올랐다.

3. 게임

순위	공급자	어플리케이션	순이용자	도달률(%)	월평균이용시간(분)	평균재방문일수(일)	전월대비증감률(%)	일평균이용자
1	Nexon	Maple Story	2,094,187	6.24	942.93	6.05	98.16	405,534
2	HanbitSoft	Starcraft	1,143,010	3.40	402.91	4.26	-1.26	158,582
3	Riot Games	League Of Legends	1,070,963	3.19	1,479.56	7.73	13.08	255,967
4	Pmang	FIFA Online2	993,848	2.96	407.40	4.70	30.16	145,204
5	Pmang	Pmang 뉴맛고	869,959	2.59	805.20	8.15	14.53	223,752

4. 기타

순위	공급자	어플리케이션	순이용자	도달률(%)	월평균이용시간(분)	평균재방문일수(일)	전월대비증감률(%)	일평균이용자
1	Altools	Alzip	11,848,126	35.29	71.60	2.92	-0.58	1,110,660
2	Adobe	Adobe Acrobat Reader	11,770,206	35.06	384.64	4.30	-0.83	1,629,832
3	Altools	Alsee	6,770,703	20.17	249.40	4.30	1.03	936,021
4	Live	Sidebar Gadgets	2,399,849	7.15	4,506.93	11.90	3.66	914,404
5	Gobest	GoClean	1,719,884	5.12	29.39	3.47	5.23	187,555

* 출처: 닐슨 코리안클릭 (www.koreanclick.com)



팟캐스트 순위에서는 대신 이슈의 부각과 함께 <나는 꼼수다>, <주진우의 현대사>, <이슈 털어주는 남자> 등 뉴스 및 정치 분야를 논평하는 프로그램들이 인기를 끌었다. 유머러스한 사연 소개로 오랫동안 사랑을 받고 있는 <컬투쇼> 시리즈도 상위권을 지켰고, 기술·오락·디자인에 관련된 훌륭한 강의를 제공하는 <TEDTalks> 시리즈가 대거 순위권에 올랐다. 정통 라디오 시사프로그램으로 신뢰를 쌓아온 <손석희의 시선집중>은 전월 대비 4계단 하락한 14위를 기록했다.

▶ 팟캐스트 종합 TOP 15 (7월)

순위	변동	제목	에피소드	카테고리	방송등록일	최종 업데이트
1	△1	나는 꼼수다	57	뉴스 및 정치	2011. 04. 28.	2012. 07. 25.
2	New	주진우의 현대사	4	뉴스 및 정치	2012. 06. 19.	2012. 08. 03.
3	▽2	컬투쇼 레전드 사연 BEST 100	50	음악	2012. 06. 25.	2012. 07. 27.
4	New	나는 탄따라다	8	사회 및 문화	2012. 06. 11.	2012. 08. 01.
5	New	나는 꼼사리다	38	비즈니스	2011. 11. 19.	2012. 08. 02.
6	▽2	두시탈출 컬투쇼	200	음악	2012. 05. 31.	2012. 08. 07.
7	△178	TEDTalks 비즈니스	42	비즈니스	2006. 06. 27.	2012. 03. 16.
8	▽1	이슈 털어주는 남자	155	뉴스 및 정치	2011. 12. 27.	2012. 08. 07.
9	New	(공식) 이근철의 굿모닝 팝스	20	언어 교육 과정	2012. 07. 18.	2012. 08. 06.
10	▽4	최진기의 뉴스워크	58	교육	2011. 04. 19.	2012. 07. 28.
11	△181	TEDTalks 사회와 문화	51	사회 및 문화	2006. 07. 10.	2012. 04. 10.
12	▽4	손석희의 시선집중	658	뉴스 및 정치	2010. 07. 16.	2012. 08. 27.
13	△180	TEDTalks 교육	43	교육	2006. 06. 27.	2012. 06. 14.
14	△175	TEDTalks 기술	48	과학	2006. 08. 01.	2012. 06. 05.
15	▽4	김어준의 뉴욕타임스(Audio)	234	뉴스 및 정치	2009. 06. 22.	2012. 08. 24.
16	△172	TEDTalks 예술	50	예술	2007. 02. 09.	2012. 06. 09.
17	▽12	뉴스타파	34	뉴스 및 정치	2012. 03. 21.	2012. 08. 25.
18	△179	TEDTalks 과학과 의료	45	과학 및 의학	2006. 06. 27.	2012. 04. 06.
19	New	TEDTalks 뉴스와 정치	47	뉴스 및 정치	2007. 01. 02.	2012. 05. 31.
20	▽8	나는 친박이다 시즌2	25	뉴스 및 정치	2012. 07. 02.	2012. 08. 26.

* 출처: 팟빵 (www.podbbang.com)

01 출판

02 만화

03 음악

04 공연

05 게임

06 영화

07 애니메이션

08 캐릭터

09 방송

10 광고

11 지식 정보



01 출판

02 만화

03 음악

04 공연

05 게임

06 영화

07 애니메이션

08 캐릭터

09 방송

10 광고

11 지식정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스마트폰 및 태블릿용) 순위에서는 컴투스의 모바일 소셜 게임인 '타이니 팜'이 매출액 기준으로 <앱스토어>에서 1위, <플레이스토어>에서 2위를 기록했다. '타이니 팜'은 다양한 동물들을 키워나가며 자신만의 목장을 경영하는 게임으로, <앱스토어> 6월 1위를 기록했던 '룰 더 스카이'를 2위로 밀어냈다.

무료앱 중에서는 실시간TV서비스인 'pooq'이 아이패드 앱스토어 1위, 아이폰 앱스토어 2위에 올랐다. 네이버에서 출시한 모바일 커뮤니티 앱 'BAND'도 아이폰 앱스토어 1위에 올랐으며, 플레이스토어에서는 '네이버' 앱이 무료 다운로드 1위에 기록했다.

<티스토어>에서는 영상 콘텐츠(VOD)가 유료 어플리케이션 분야에서 많은 다운로드수를 기록했으며, 특히 최근 개봉했던 국내 영화 및 드라마의 비중이 컸다.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TOP 10 (7월)

순위	아이폰			아이패드		
	유료	무료	매출	유료	무료	매출
1	Master of Dungeon	밴드 - BAND	Tiny Farm	iPlan for iPad	pooq for iPad	Tiny Farm
2	I'm clock	pooq for iPhone	Rule the Sky	AV PlayerHD	Pen HD	Rule the Sky
3	MyCalendar Mobile	폰요금줄이는어플 폰플	풍운삼국	Infinity Blade II	Riptide GP	Infinity Blade II
4	Infinity Blade II	Riptide GP	KakaoTalk	Asphalt 7: Heat	Download Everything Free	Hancom Office Hanword
5	Asphalt 7: Heat	Fancy	MelOn	영단어속어50권 전집-SUPER 영단어집 50권	Play Dogs	풍운삼국 iPad 버전
6	Here She Comes Interactive Sex Guide	카카오맵 KakaoMap	패션시티 - Fashion City by Hangame	iPhoto	연합뉴스 for iPad	Polaris Office
7	Voice Translate Pro	Monster Geeks	벅스 - 무제한 다운로드	Hancom Office Hanword	Metal Slug Deluxe 2012	Smurfs' Village
8	성격의 비밀	심톡	컴투스프로야구 2012	Hunters 2	360 Panorama	Ice Age Village
9	Hunters 2	셀프헤어스타일연출법	Infinity Blade II	Master of Dungeon	Cover Orange HD	AV PlayerHD
10	애정남 생활영어	롯데시네마 모바일 예매시스템	Ragnarok (Uprising: Valkyrie)	Polaris Office	London 2012 - Official Mobile Game	Three Kingdoms Heroes
순위	Play 스토어			티스토어		
	유료	무료	매출	유료	무료	
1	Beautiful Widgets	네이버 - Naver	Rule the Sky	[VOD] 후궁: 제왕의 첩	스마트청구서	
2	Where's My Water?	HD wallpapers Live background	Tiny Farm	[VOD] 아부의 왕	트리 오브 어비스	
3	Asphalt 7: Heat	Tiny Flashlight + LED	Fishing Superstars	[VOD] 유령	겁없는 녀석들	
4	Minecraft - Pocket Edition	hoppin(호핀) - 스마트폰 버전	컴투스 프로야구2012	[VOD] 내 아내의 모든 것	롬맞고	
5	Paper Camera	Gmail	바이킹아일랜드[카카오 게임]	[VOD] 각시탈	사이메라	
6	Poweramp Full Version Unlocker	Phone Theme Shop	Temple Run	[게임] 아스팔트 7: 히트	타이니팜	
7	Rune Master Puzzle	네이버 웹툰	Smurfs' Village	[VOD] 차형사	컴온베이비	
8	Where's My Perry?	KakaoTalk	가로세로 낱말맞추기2013	[VOD] 두 번의 결혼식과 한 번의 장례식	카카오톡	
9	Talking Tom Cat 2	GO Launcher EX	Coin Dozer	[게임] 낚시여행4	T baseball	
10	FANTASY x RUNNERS	PhotoWonder	Inotia 4	[게임] Generation of Chaos	스페셜포스 NET	

* 출처: 앱애니, 티스토어 (국내 순위 / 유료·무료는 다운로드 수, 매출은 금액 기준 / 2012. 8. 8. 기준)



2012년 8월 6일 기준으로 애플 앱스토어에는 약 70만 개의 애플리케이션이 등록되어 있다. 이 중 49.24%의 앱이 무료이고, 유료앱인 경우에도 3달러 미만(39.62%)이 3달러 이상(11.14%)에 비해 3배 이상 많다.

애플리케이션의 전체 평균 가격은 7월 2일보다 0.16달러 하락한 1.82달러를 기록했고, 평균 앱 가격이 1.94달러인 반면, 평균 게임 가격은 1.04달러를 기록했다.

7월에는 하루 평균 112개의 게임과 572개의 비게임 애플리케이션이 제출되고 있다(등록과 별개). 7월에 제출된 총 애플리케이션은 22,545개로, 이는 6월에 비해 1,323개 줄어든 수치다.

등록된 앱을 카테고리별로 분류하면 게임(17.59%), 교육(9.97%), 엔터테인먼트(9.61%), 도서(9.21%), 라이프스타일(8.45%), 유틸리티(6.01%), 여행 관련 앱(5.07%)의 순서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 애플 앱스토어 현황 (2012. 8. 6.)

1. APP. 등록 현황

구분	개수	변동 (7.2. 대비)
총 활성 앱 (현재 다운로드 가능)	701,702	+22,354
총 비활성 앱 (더이상 다운로드 불가능)	193,442	+193,256
미국 앱스토어 누적 앱	895,144	+29,344
미국 앱스토어 활동 제작자수	176,698	+6,161

2. APP. 가격 분포

구분	개수	비율	변동 (7.2. 대비)
무료	345,529	49.24%	16,864
\$ 0.99 미만	173,204	24.68%	3,374
\$ 1 ~ \$ 1.99	70,831	10.09%	882
\$ 2 ~ \$ 2.99	34,058	4.85%	401
\$ 3 이상	78,078	11.14%	832

3. APP. 평균 가격

구분	가격	변동 (7.2. 대비)
평균 앱 가격	\$ 1.94	- \$ 0.21
평균 게임 가격	\$ 1.04	- \$ 0.02
전체 평균 가격	\$ 1.82	- \$ 0.16

4. APP. 월별 제출 현황 (7월)

구분	개수	1일 평균 제출개수	변동 (6월 대비)
게임	3,378	112	-116
비게임	17,183	572	-3,191
전체	22,545	751	-1,323

5. 카테고리별 등록 APP. 현황

구분	개수	비율	구분	개수	비율
게임	123,408	17.59%	생산성	18,666	2.66%
교육	69,965	9.97%	뉴스	18,526	2.64%
엔터테인먼트	67,461	9.61%	건강 & 운동	17,371	2.48%
도서	64,635	9.21%	사진	15,765	2.25%
라이프스타일	59,292	8.45%	금융	15,167	2.16%
유틸리티	42,161	6.01%	의료	13,865	1.98%
비즈니스	36,225	5.16%	소셜 네트워킹	13,508	1.93%
여행	35,609	5.07%	네비게이션	10,621	1.51%
음악	27,211	3.88%	기타	4,400	0.52%
레퍼런스	23,427	3.34%	날씨	2,951	0.42%
스포츠	19,932	2.84%	합계	699,425	100.00%

* 2012. 8. 6. 기준

* 출처: 148Apps.biz (<http://148apps.biz>)

01 출판

02 만화

03 음악

04 공연

05 게임

06 영화

07 애니메이션

08 캐릭터

09 방송

10 광고

11 지식 정보



01 출판

02 만화

03 음악

04 공연

05 게임

06 영화

07 애니메이션

08 캐릭터

09 방송

10 광고

11 지식정보

주요 방송통신서비스 가입자는 2012년 6월 말일 기준으로 시내전화 1,847만 명, 이동전화 5,300만 명, IPTV 583만 명, 휴대인터넷(와이브로) 96만 명을 기록하고 있다.

최근 8년간의 추이를 살펴보면 시내전화 가입자의 점진적인 감소와 이동전화, 초고속인터넷, IPTV, 와이브로 가입자의 증가세가 특징적이다. 또한 이동전화와 초고속인터넷 가입자수의 증가율은 완만해지는 추세인데 반해 IPTV와 와이브로 가입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동전화의 전체 가입자수는 정체되어 있긴 하지만, 내용적으로는 스마트폰의 보급과 LTE 서비스로의 전환을 통해 VOD 서비스 및 모바일 게임,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의 소비 여건이 빠르게 개선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방송통신서비스 가입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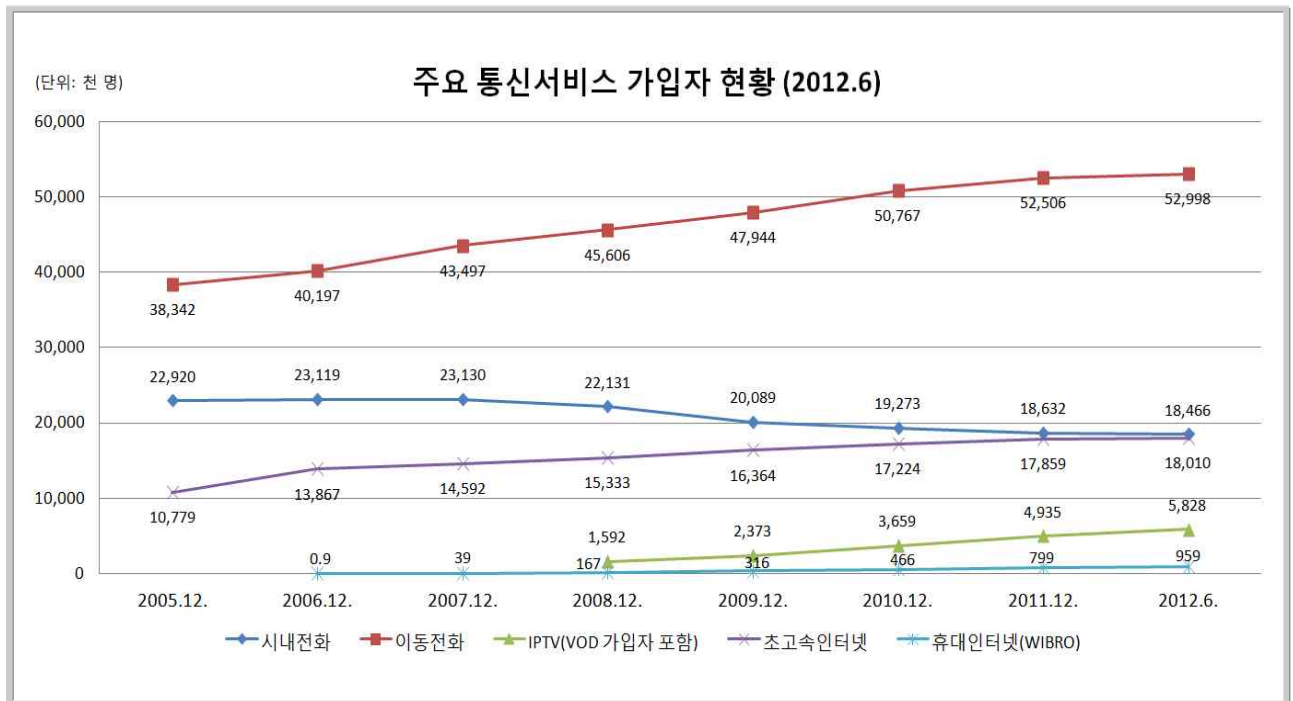
1. 주요 방송통신서비스 가입자 (2005. 12. ~ 2012. 6.)

(단위 : 천 명)

구분	2005. 12.	2006. 12.	2007. 12.	2008. 12.	2009. 12.	2010. 12.	2011. 12.	2012. 6.
시내전화	22,920	23,119	23,130	22,131	20,089	19,273	18,632	18,466
이동전화	38,342	40,197	43,497	45,606	47,944	50,767	52,506	52,998
IPTV	-	-	-	1,592	2,373	3,659	4,935	5,828
초고속인터넷	10,779	13,867	14,592	15,333	16,364	17,224	17,859	18,010
휴대인터넷 (WIBRO)	-	0.9	39	167	316	466	799	959

* 천 단위 이하는 절삭

* 출처: 방송통신위원회 자료 KOCCA 재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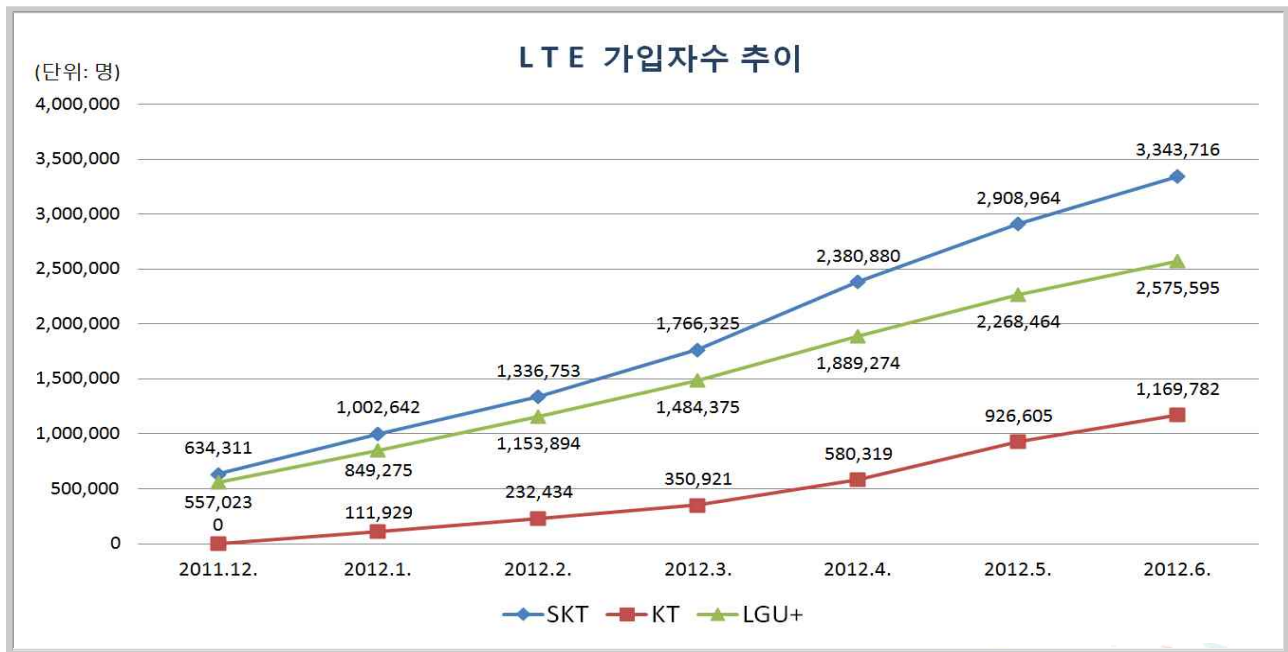
기술방식별 이동전화 가입자는 6월 말 기준 5,396만 명을 기록했다. 각 통신회사들이 LTE 서비스의 주도권 확보를 위해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는 가운데, 5월 대비 SKT가 43만 명, KT가 24만 명, LG U+가 31만 명의 LTE 가입자를 추가 확보하며 6월에만 100만 명에 가까운 가입자가 늘었다. LTE 서비스 전체 가입자수는 709만 명으로, 이 중 SKT가 334만 명, KT가 117만 명, LG U+가 258만 명을 기록하고 있다. 지금과 같은 추세라면 LTE가입자는 9월 또는 10월에 1,000만 명을 돌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 이동전화 가입자 (기술방식별)

(단위 : 명)

구분	2011.12.	2012. 1.	2012. 2.	2012. 3.	2012. 4.	2012. 5.	6월 가입현황		2012. 6.	
							증감	증감율		
SKT	CDMA	6,881,756	6,646,324	6,442,711	6,288,478	6,122,264	5,961,020	-156,485	-2.6%	5,804,535
	WCDMA	19,036,649	18,922,532	18,767,412	18,501,345	18,083,172	17,740,974	-230,227	-1.3%	17,510,747
	LTE	634,311	1,002,642	1,336,753	1,766,325	2,380,880	2,908,964	434,752	14.9%	3,343,716
	WiBro	55,330	55,589	61,057	64,290	62,165	60,106	-2,052	-3.4%	58,054
KT	CDMA	99,835	44,220	29,721	23,209	21,090	19,926	-723	-3.6%	19,203
	WCDMA	16,463,323	16,464,241	16,377,705	16,224,641	15,922,401	15,536,426	-237,491	-1.5%	15,298,935
	LTE	-	111,929	232,434	350,921	580,319	926,605	243,177	26.2%	1,169,782
	WiBro	744,134	786,409	806,205	835,981	847,132	877,763	23,779	2.7%	901,542
LGU+	CDMA	8,833,896	8,577,396	8,326,120	8,069,790	7,788,118	7,506,773	-230,483	-3.1%	7,276,290
	LTE	557,023	849,275	1,153,894	1,484,375	1,889,274	2,268,464	307,131	13.5%	2,575,595
합계	53,306,257	53,460,557	53,534,012	53,609,355	53,696,815	53,807,021	151,378	0.3%	53,958,399	

- * DBDM 단말기 가입자는 상위 기술방식으로 분류
- * WCDMA 진화형인 HSDPA, HSUPA, HSPA+는 WCDMA 가입자 수에 포함
- * 출처: 방송통신위원회 자료 KOCCA 재구성



01 출판

02 만화

03 음악

04 공연

05 게임

06 영화

07 애니메이션

08 캐릭터

09 방송

10 광고

11 지식 정보



초고속인터넷 가입자는 6월 말 기준으로 1,801만 명을 기록했다. 가입자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추세는 정체된 상태이다. 반면에 IPTV는 지난 1월 가입자 500만 명을 돌파한 이래 7월 말 기준 583만 명을 확보하며 무난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매월 10만 명 이상의 증가추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9월에 가입자 600만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3. 초고속인터넷 가입자

(단위 : 천 명)

구분	2009. 12.	2010. 6.	2010. 12.	2011. 6.	2011. 12.	2012. 1.	2012. 2.	2012. 3.	2012. 4.	2012. 5.	2012. 6.
KT	6,952	7,188	7,423	7,188	7,822	7,845	7,881	7,921	7,935	7,944	7,966
SK브로드밴드	3,846	3,798	3,599	3,798	3,293	3,259	3,237	3,216	3,196	3,181	3,169
SKT(재판매)	-	110	402	110	898	941	982	1,024	1,062	1,099	1,133
LG U+	2,521	2,640	2,773	2,640	2,809	2,794	2,783	2,765	2,755	2,755	2,755
종합 유선	2,810	2,832	2,826	2,832	2,857	2,857	2,857	2,857	2,857	2,857	2,857
기타	216	218	198	218	177	177	177	177	177	128	128
합계	16,348	16,789	17,224	16,789	17,859	17,876	17,919	17,963	17,985	17,967	18,010

* 천 단위 이하는 절삭

* 출처: 방송통신위원회 자료 KOCCA 재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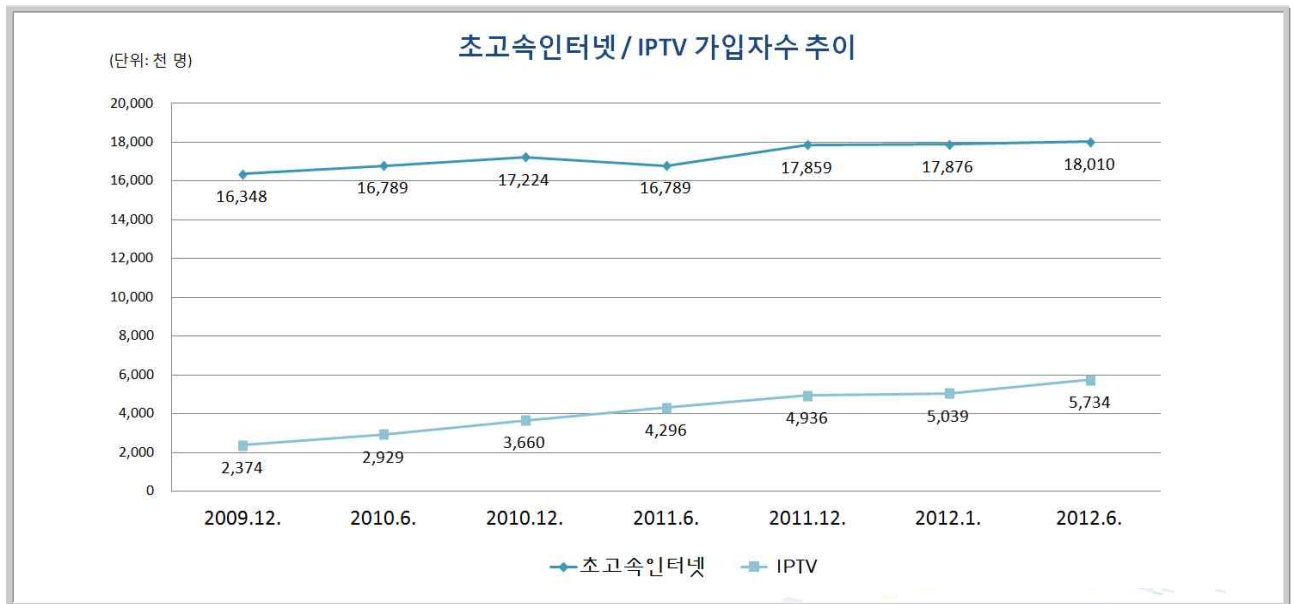
4. IPTV 가입자

(단위 : 천 명)

구분	2009. 12.	2010. 6.	2010. 12.	2011. 6.	2011. 12.	2012. 1.	2012. 2.	2012. 3.	2012. 4.	2012. 5.	2012. 6.	2012. 7.
olleh tv (KT)	1,174 (1,009)	1,571 (1,184)	2,085 (1,727)	2,622 (2,308)	3,076 (2,810)	3,147 (2,885)	3,231 (2,976)	3,316 (3,067)	3,406 (3,162)	3,484 (3,245)	3,570 (3,338)	3,641 (3,419)
BTV (SK)	856 (402)	898 (574)	948 (735)	911 (756)	982 (883)	1,004 (912)	1,032 (947)	1,067 (987)	1,105 (1,031)	1,145 (1,076)	1,187 (1,121)	1,229 (1,167)
U+TV (LG)	344 (330)	460 (457)	627 (624)	763 (761)	878 (877)	888 (886)	898 (896)	905 (904)	916 (915)	932 (931)	946 (945)	959 (958)
합계	2,374 (1,741)	2,929 (2,215)	3,660 (3,086)	4,296 (3,825)	4,936 (4,570)	5,039 (4,683)	5,161 (4,819)	5,288 (4,958)	5,427 (5,108)	5,561 (5,252)	5,734 (5,404)	5,828 (5,544)

* 천 단위 이하는 절삭, 괄호 안은 실시간 채널 가입자

* 출처: 한국디지털미디어산업협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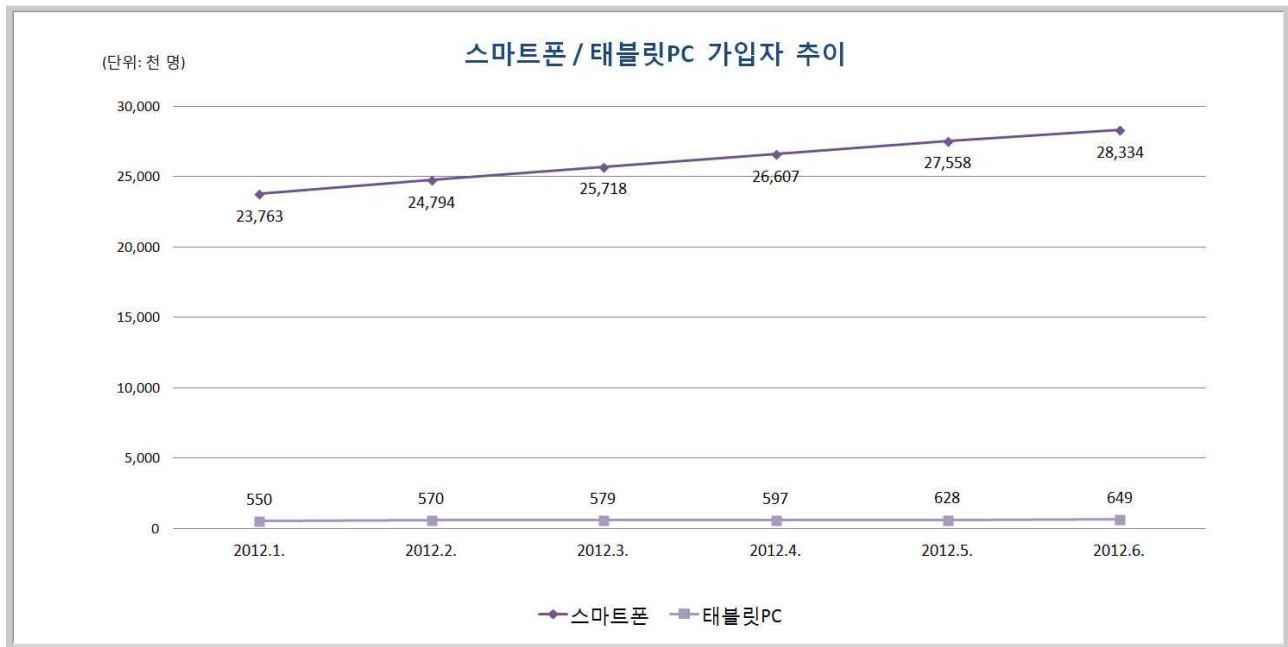
스마트폰과 태블릿 PC 가입자는 전월대비 2.8%, 3.4%의 무난한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스마트폰 가입자는 6월 말 기준 2,833만 명을 넘었고, 태블릿PC 가입자는 65만 명을 돌파했다. 이는 통신사 서비스에 가입된 태블릿PC의 수량으로, 와이파이 전용 태블릿을 포함하면 전체 사용자는 100만 명을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스마트기기 이용의 확장과 더불어 태블릿PC 가입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5. 스마트폰 / 태블릿PC 가입자 현황

(단위 : 천 명)

구분		2012. 1.	2012. 2.	2012. 3.	2012. 4.	2012. 5.	6월 가입현황		2012. 6.
							변동(명)	증감율	
스마트폰	SKT	11,639	12,126	12,574	12,995	13,403	383,642	2.9%	13,787
	KT	8,022	8,317	8,537	8,709	8,971	164,392	1.8%	9,135
	LGU+	4,101	4,350	4,607	4,903	5,183	228,184	4.4%	5,411
	합 계	23,763	24,794	25,718	26,607	27,558	776,218	2.8%	28,334
태블릿PC	SKT	229	240	248	257	274	10,747	3.9%	285
	KT	311	315	318	325	339	9,728	2.9%	348
	LGU+	10	14	13	13	14	911	6.1%	15
	합 계	550	570	579	597	628	21,386	3.4%	649

* 천 단위 이하는 절삭 / 태블릿PC는 통신사 가입자만을 대상으로 한 집계 수치임
 * 출처: 방송통신위원회 자료 KOCCA 재구성



01 출판

02 만화

03 음악

04 공연

05 게임

06 영화

07 애니메이션

08 캐릭터

09 방송

10 광고

11 지식 정보

콘텐츠 통계 브리핑





KOCCA 통계브리핑
제12-04호(국내편)



Statistics
Briefing

국내 콘텐츠산업의 시장집중도 분석

박 성 원 (KOCCA 통계정보팀 선임연구원)

“3대 메이저 중심으로 시장이 지배되는 구조”, “견제받지 않는 권력, 규제는 가능할까” 최근에 기사화된 뉴스의 머리말(headline) 중 일부분이다. 이 일부분만 보고는 기자가 어떤 산업에 대하여 이야기 하고자 했는지 알아차리기 어렵다. 이제는 독과점 또는 소수 업체의 시장 지배란 말이 정유 산업 또는 통신 산업 등의 산업을 얘기할 때만 나오는 것이 아니다. 위의 머리말 전문은 “영화시장, 3대 메이저 중심으로 시장이 지배되는 구조”, “네이버독주시대, 견제 받지 않는 권력, 규제는 가능할까”이다. 이처럼 콘텐츠산업이 성장함에 따라 콘텐츠산업의 독점 또는 독과점에 대한 우려를 낫설지 않게 볼 수 있다.

2012년 2월 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광업·제조업 분야에서 매출액 기준 최상위 사업체 3개의 시장집중도 단순평균은 2002년 40.7%, 그리고 2009년 45.0%로 나타났다. 그러나 국내 콘텐츠산업은 최근 몇 년간 지속적으로 성장해왔으며, 콘텐츠 산업의 성장에 따라 CJ CGV, 넥슨, NHN과 같은 대형 기업이 등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콘텐츠산업의 시장집중도 분석은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콘텐츠산업의 시장집중도 분석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2010년 기준 국내 11개(방송, 광고, 영화, 출판, 만화, 애니메이션, 캐릭터, 음악, 게임, 지식정보, 콘텐츠솔루션) 콘텐츠산업 분야별 시장집중도를 분석하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장지배적 사업자²²⁾를 판별하는 잣대로 시장집중도(CR: Concentration Ratio)²³⁾라는 지표를 사용하는데, 콘텐츠산업의 시장집중도 분석 또한 이 지표를 사용하였으며, 구체적으로는 콘텐츠 산업 분야별 매출액 상위 3개, 5개, 그리고 10개 사업체의 시장집중도(CR3, CR5, CR10)를 분석하였다.

22) '시장 지배적 사업자'는 일정한 분야에서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업자와 함께 상품이나 서비스의 가격이나 수량 등 거래조건을 결정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사업자를 의미한다. 이들 사업자는 생산량을 감소시켜 가격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인상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능력을 시장 지배력이라고 한다. 1개 기업이 시장 지배력을 행사하면 독점, 2개 이상 소수 기업이면 과점이라고 한다. 이런 불완전 경쟁 시장과 달리 많은 기업들이 시장에 참여해 가격에 영향력을 미칠 수 없을 경우를 완전경쟁시장이라고 한다.

23) CR1은 매출액 기준 상위 1개사의 시장점유율의 합계를 의미하고 CR3은 매출액 기준 상위 3개사의 시장점유율의 합계를 의미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개사의 시장점유율이 50% 이상이거나, 2개 또는 3개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의 합계가 75% 이상인 경우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하고 있다. 다만 연간 매출액 또는 구매액이 40억 원 미만인 사업자는 제외한다.





[그림 1]에 따르면, 국내 콘텐츠 산업 중 상위 3개사의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산업은 방송 산업(28.1%)으로 나타났고, 두 번째로 상위 3개사의 매출액 비중이 큰 산업은 영화 산업 (25.8%), 그리고 세 번째는 광고 산업(20.5%)으로 나타났다. 다음은 지식정보 산업 19.7%, 게임 산업 19.6%, 애니메이션 산업 13.4%, 콘텐츠솔루션 산업 5.4%, 출판 산업 4.3%, 만화 산업 4.1%, 음악 산업 3.3%, 캐릭터 산업 2.7% 순으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 국내 콘텐츠 산업에서 1개 사업체의 시장점유율이 50% 이상인 산업이 존재하지 않으며, 3개 사업체의 시장점유율 합계가 75% 이상인 산업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콘텐츠산업을 크게 분류하여 분석했을 때에는 독점 또는 과점 현상이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콘텐츠 산업에서 독점 또는 과점 현상이 나타나고 있지는 않다고 할지라도, 소수의 매출액 상위 기업들이 특정 산업의 매출을 독식하여 경쟁이 유효하게 작동되는 것을 막을 수도 있다. 이러한 이유로 상위 5개사 매출이 특정 산업 전체의 매출액 중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지 CR5와 상위 10개사 매출이 특정 산업 전체의 매출액 중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지 CR10을 살펴보았다. [그림 1]에 따르면 상위 5개사 매출액 비중이 가장 높은 산업은 방송 산업(37.9%)으로 나타났으며, 두 번째로 상위 5개사 매출액 비중이 높은 산업은 영화 산업 (29.2%), 그 다음은 게임 산업(28.3%), 광고 산업(28.1%) 순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상위 10개사 매출액 비중이 가장 높은 산업을 살펴본 결과에서도 CR3, CR5 에서와 마찬가지로 상위 기업의 매출액 비중이 가장 높은 산업은 방송 산업(49.4%)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은 게임 산업 (34.9%), 영화 산업(34.3%), 광고 산업(31.1%)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1] 2010년 콘텐츠산업 시장집중도





〈표 1〉 2010년 콘텐츠산업 순위별 시장집중도

구분	산업 (비중)										
	1위	2위	3위	4위	5위	6위	7위	8위	9위	10위	11위
CR3	방송 (28.1%)	영화 (25.8%)	광고 (20.5%)	지식정보 (19.7%)	게임 (19.6%)	애니메이션 (13.4%)	콘텐츠솔루션 (5.4%)	출판 (4.3%)	만화 (4.1%)	음악 (3.3%)	캐릭터 (2.7%)
CR5	방송 (37.9%)	영화 (29.2%)	게임 (28.3%)	광고 (28.0%)	지식정보 (22.2%)	애니메이션 (16.5%)	콘텐츠솔루션 (9.0%)	만화 (6.4%)	출판 (5.3%)	음악 (4.6%)	캐릭터 (3.7%)
CR10	방송 (49.4%)	게임 (34.9%)	영화 (34.3%)	광고 (31.1%)	지식정보 (25.2%)	애니메이션 (21.9%)	콘텐츠솔루션 (16.7%)	만화 (9.1%)	출판 (6.4%)	음악 (5.8%)	캐릭터 (5.1%)

※ 출처: 문화체육관광부·한국콘텐츠진흥원(2012), “2011 콘텐츠 산업통계” 재구성

분석 결과, 국내 11개의 콘텐츠 산업의 시장집중도를 분석했을 때, 소수의 사업체가 특정 산업을 독식하는 구조가 아니며, 완전 경쟁 시장의 형태를 띠는 것으로 나타났다. 완전 경쟁 시장 형태일 때, 거래거절(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 끼워팔기, 경쟁사업자 배제 등의 불공정거래행위가 일어날 가능성이 적으며, 건전한 경쟁과 혁신이 보다 더 잘 일어날 수 있다. 콘텐츠산업의 특성상 영세한 사업체가 많고, 혁신이 다른 산업보다 중요할 수 있으므로 분석 결과가 고무적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본 분석은 콘텐츠를 대분류(방송, 광고, 영화, 출판, 만화, 애니메이션, 캐릭터, 음악, 게임, 지식정보, 콘텐츠솔루션) 기준으로 나누어 이루어졌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즉, 한 단계 더 세분화하여 분류한 중분류 기준으로 제작업, 유통업 등을 나누어 분석한다면, 특정 산업의 일부 업종에서는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존재할 수도 있다. 중분류로 나누어 분석하는 예를 들어본다면, 지식정보산업은 ‘e-learning업’, ‘기타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제공업’ 그리고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서비스업’을 포함하고 있다. 이 중 유명 포털사이트 네이버(NAVER), 다음(DAUM), 네이트(NATE) 등이 포함된 업종은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서비스업’이다. 이 포털 사이트들의 2011년 상반기 검색엔진 유입률²⁴⁾을 살펴보면 네이버(NHN)가 72.8%를 차지하여, 포털시장에서 NHN은 시장지배적 사업자임이 드러났다. 다음은 소분류로 나누어 분석하는 예를 들어보고자 한다. 영화산업에 중분류로 영화 제작 및 지원, 유통업이 있고, 그 하위에 영화 기획 및 제작, 영화 배급, 극장 상영과 같은 소분류들이 존재한다. 이 소분류 중 극장 상영업의 경우 복합상영관 3사(CJ CGV, 롯데 시네마, 메가박스)의 2010년 전국 관객점유율은 61%이며, 스크린 점유율은 86.7%인데, 이는 극장 상영시장의 독과점이 일어날 우려가 상당히 높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준다. 그러므로 향후에 대분류뿐만 아니라 보다 세부적인 시장 집중도의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24) 에이스카운터(www.acecounter.com), “검색엔진 유입률 분석(2011년 상반기)”, 2011년 7월



KOCCA 통계브리핑
제12-05호(국내편)



Statistics
Briefing

콘텐츠산업의 고용구조 분석과 시사점

노 준 석 (KOCCA 통계정보팀 수석연구원)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국내경제는 ‘저성장·저고용·고물가’라는 3중고를 겪고 있으며, 실업률까지 높아지는 등 경제 위기상황까지 나오고 있다. GDP와 고용에서 서비스업 비중이 증가하고 있으나, 서비스업의 낮은 생산성, 저부가가치 업종중심, 고용의 질 악화 등으로 양질의 고용 창출이 발휘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 취업자 중에서 서비스산업 비중이 73.9%(2005년) → 76.4%(2010년)로 증가, 농림어업은 7.9% → 6.6%로 감소, 제조업은 18.1% → 17.0%로 감소

이에 따라 사회복지와 일자리 창출이 국가의 중요한 정책과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정부는 올해 일자리 창출 4대 분야로 ‘청년 창업 활성화, 고졸자 취업지원 확대, 문화·관광·글로벌 일자리 창출,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를 발표하기도 하였다. 한편 정부실패의 위험성을 제기하는 측면에서는 직접적인 재정투입과 시장개입을 통한 일자리 창출보다는 제도개선, 인력양성, 인프라 확충 등 산업기반을 강화하여 산업성장을 통해 고용창출을 유도해야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세계경제의 패러다임은 제조업에서 서비스 경제로, 정보·지식에서 창의성·감성 중심의 창조경제(Creative Economy) 시대로 변화하고 있다. 미국, 영국 등의 문화선진국들은 서비스업의 취약한 고용구조를 개선하고 창의인력의 육성과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대안으로서 창조산업(Creative Industries)을 육성한 결과, GDP와 고용에서 기여도가 컸으며, 글로벌 금융위기에도 고용 기여도(비중)는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예술적 상상력과 문화적 창의력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현재와 미래의 산업발전에 대응하고 있다. 이처럼 세계 각국은 창의적 인재, 아이디어, 기술과 감성 및 문화의 활용 등의 창의적 혁신을 국가경쟁력의 핵심요소로 규정하고 있다.

〈표 1〉 미국, 영국, 한국의 경제 기여도 비교

구분	미국 (핵심저작권산업)	영국 (창조산업)	한국 (콘텐츠산업)
GDP 대비 비중	6.36%	2.89%	2.54%
전체 종사자 대비 비중	3.93%	5.14%	3.29%
1인당 부가가치(백만원)	206.5	44.6	51.3

*미국 핵심저작권산업: 신문, 간행물, 영화, 음악, 방송, 소프트웨어 등

**영국 창조산업: 광고, 건축, 공예, 디자인/패션, 영화, 음악, 공연, 출판, SW, 방송, 쌍방향SW

***한국 콘텐츠산업: 출판, 만화, 애니메이션, 캐릭터, 음악, 방송, 영화, 게임, 광고, 지식정보, 콘텐츠솔루션

※ 출처: IIPA(2011), DCMS(2012), 문화부(2012)

콘텐츠산업은 대표적인 서비스산업이자 소프트 파워의 원천으로서 노동과 자본만으로는 차별화가 불가능한 상상력과 아이디어의 한계비용이 제로인 산업이다. 특히 열정·창의성 발휘가 가능한 청년 일자리의 보고(寶庫)로서 청년 실업을 해소에 기여하며, 타 분야 대비 높은 고용유발효과와 직접 및 간접·파생 일자리 창출을 유도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고용유발계수(2012)에서 문화산업(12.0)은 전체산업(8.6), 자동차(7.2), 반도체(4.9)보다 훨씬 상회한다. 또한 콘텐츠산업은 출판·만화·광고산업을 제외한 대부분 산업에서 29세 이하 및 30~34세의 종사자 수가 50%를 상회하며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등 콘텐츠 분야에서 청년과 여성이 선호하는 다양한 신규 유망 직업이 확대되는 추세이다. 예컨대, 국내 게임회사 엔씨소프트의 전체 직원 2,773명 중 20-30대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을 보아도 알 수 있다.

여기서는 콘텐츠산업의 고용 현황과 특성을 살펴봄으로써 향후 고용창출을 위한 산업인력에 대한 정책방향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먼저 국내 콘텐츠산업의 고용규모는 2010년 기준 약 58만 명으로 한국 전체 고용의 3.29% 비중을 차지하였다. 콘텐츠산업의 고용규모 중 출판(20만명, 35%), 게임(9만5천명, 16.3%), 음악(7만7천명, 13.2%), 지식정보(5만명, 8.3%)가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국내 콘텐츠 기업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콘텐츠 종사자는 약 1% 증가하였다.

〈표 2〉 한국 콘텐츠산업의 고용 및 기업규모 비교

(단위: 천 명, 천 개)

구분	2007년	2010년	CAGR (2007-2010)
한국 전체 근로자수	15,850.2	17,657.8	3.67% (1,807,000명 ↑)
한국 콘텐츠산업 근로자수 (전체 근로자 대비 비중)	564.3 (3.56%)	581.3 (3.29%)	0.99% (17,000명 ↑)

※ 문화부·콘텐츠진흥원(2011), 2010년 콘텐츠산업 통계조사

※ 통계청(2011), 2010년 경제 총 조사(사업체조사)

둘째, 콘텐츠산업은 비정규직 중심의 고용구조를 보이고 있다. 이는 프로젝트 제작 기반의 산업활동에 따라 단기계약의 임시고용 형태가 다수이기 때문이다. 그 결과, 인력의 숙련도가 지속되기 힘들고 안정된 생활기반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예컨대, 2010년 콘텐츠산업의 전체 종사자(392,851명) 중 정규직은 84.7%(362,068명), 비정규직은 15.3%(65,221명)이나 최근 3년간('08-'10년) 비정규직이 8.4% 증가하였다. 공연예술분야에서도 전국 2,114개 공연단체의 총 인력수는 47,175명이며, 상근단원(37.4%)이 비상근단원(62.6%)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셋째, 콘텐츠산업은 영세한 기업이 많아 종사자가 소규모화이다. 최근 5년간(06~10년) 전체 콘텐츠 기업 중 86% 이상이 4인 이하의 작은 규모에서 운영되고 있을 만큼 대부분의 콘텐츠 기업이 영세하고 종사자 비중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넷째, 콘텐츠산업 종사자는 수도권에 집중화되어 있다. 예컨대, 서울과 경기도를 중심으로 콘텐츠산업 종사자가 2010년 72.3%로 대부분 집중되고 있다. 반면, 최근 3년간('08-'10년) 경기도 등 지방 9개도의 종사자가 증가(2.3%)한 것은 콘텐츠산업 진흥정책에 의한 간접효과로 볼 수 있다.

넷째, 콘텐츠산업은 다수의 고학력자가 종사하고 있다. 콘텐츠산업 종사자의 고학력(4년제 대학졸업이상) 비중은 62.8%로 제조업(22%)과 서비스업(30.9%)을 훨씬 능가하고 있다. 전문대학 졸업 이상을 고려할 때 84.4%가 되어 전체 콘텐츠산업 10명중 8명 이상이 전문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 소지자라 할 수 있다.

〈표 3〉 콘텐츠산업, 서비스산업, 제조업의 교육수준별 분포

구분	고등학교 졸업	전문대학 졸업	대학교 졸업	대학원 이상
콘텐츠산업	15.6%	21.6%	53.3%	9.5%
제조업	61.3%	16.8%	19.7%	2.3%
서비스산업	52.2%	16.9%	25.4%	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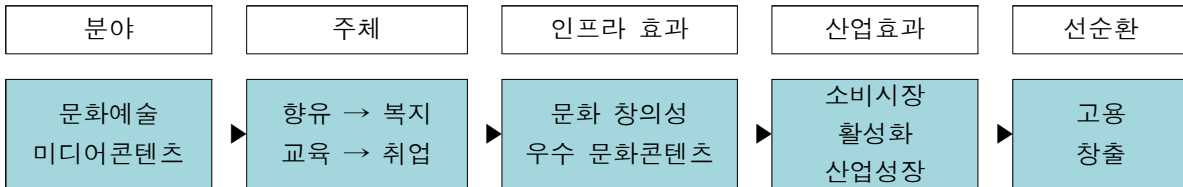
※ 통계청(2011), 지역별 고용통계조사

다섯째, 하지만 콘텐츠 및 문화예술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저임금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들 근로자 중 비정규직이 받는 임금은 생계유지가 곤란할 정도의 낮은 임금을 받고 있다. 콘텐츠산업(10년)의 경우, 출판·영상·방송통신·정보서비스업의 월평균 임금은 287만원이나 비정규직은 137만원으로 정규직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특히 영화스탭은 연봉 623만원 이하가 48%를 차지할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다. 반면 86개 콘텐츠 상장사의 월평균 임금은 403만원으로 비정규직의 약 3배이다. 문화예술(10년)의 경우, 예술·스포츠·여가서비스업의 월평균 임금은 136만원이나 비정규직은 92만원으로 정규직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문화예술인의 월평균 수입도 100만원 이하가 62.8%를 차지할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다.

마지막으로 콘텐츠산업은 제작 직무에 편중되는 등 만화산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콘텐츠산업에서 제작 직무 종사자가 43.3%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3년간('08-10년) 전체 종사자 대비 사업기획(2008년 7.4% → 2010년 8.8%) 직무의 비중은 증가하고 있다. 콘텐츠 업체의 인력수요조사 결과, 고기능 수준을 지닌 기획과 기술 직무의 부족율이 높게 나타난 점은 미스매치 현상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콘텐츠산업의 고용구조 분석을 통해 나타난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향후 콘텐츠산업의 선순환 구조(창의적 문화상품 개발 → 국내외 시장창출 → 공급부문 경쟁력 강화)에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산업기반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미국과 영국의 문화산업 또는 콘텐츠산업의 경제적 효과는 문화예술과 미디어콘텐츠 확산이 문화복지뿐만 아니라 소비촉진과 문화생산을 위한 창의성으로 이어져 산업성장에 따른 고용창출이라는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림 1〉 창조산업의 생산적 복지모델



둘째, 콘텐츠산업은 다양성 확대와 유망 아이템 개발 가속화로 창업·창직이 매우 활발한 영역이다. 예컨대, 로비오 엔터테인먼트는 〈앵그리 버드〉로 스마트폰을 통해 등장한 혁신기업으로 2011년 매출이 1,200억 원을 기록할 정도로 플랫폼을 확장하면서 캐릭터 이미지를 활용한 다양한 상품을 개발하고 판매하는데 성공하였다. 이는 창의적 발상으로 새로운 비즈니스모델을 만들어서 시장을 선도한 매우 바람직한 창업의 유형이다.

이처럼 콘텐츠산업에서 창업은 창의성·감성·기술 등을 핵심생산요소로 하여 ‘문화기업가 정신’을 통해 활성화될 필요가 있는데, 바로 1인 창조기업 육성으로 대학 청년층 인력을 고용으로 흡수가 가능하다. 또한 창직은 스마트폰 확산, 3D콘텐츠 수요 증가 등으로 창의적인 아이디어에 기반한 새로운 유망직종(프로게이머·웹디자이너·CG·1인 미디어·브랜드관리사·스토리텔러·문화기획자 등)을 창출하면서 고용창출로도 연결될 수 있다.

셋째, 스마트 미디어 환경에서 융복합화를 통한 신규 콘텐츠 시장창출이 가능하다. 먼저 예술·미디어콘텐츠와 제조업·서비스업 결합을 통한 융합프로젝트 추진이 필요하다. 예컨대 문화유산 등 전통자원과 신화·설화 등 문화원형에서 창작소재를 발굴하여 현대적 문화상품으로 재가공하는 전통문화의 창조적 발전전략이 필요하다. 또한 공연과 전시, 전통문화와 교육, 문화체험과 복지, 지역사회와 공공디자인, 문화관광, 기능성 콘텐츠(기능성게임, 학습만화, 영어 애니메이션, 음악 및 미술치료, 패션디자인 등) 등 문화예술과 문화산업의 융복합화를 통해 새로운 시장수요 창출이 가능하다. 또한 콘텐츠산업의 연관산업 간 원소스 멀티유즈 특성을 활용하여 콘텐츠와 디바이스 등이 융합된 콘텐츠 개발이 필요하다. 특히 브로드밴드의 확산, 디지털세대로 소비주체의 변화, 디지털미디어기기의 일상화 등으로 스마트 혁명이 도래하여 신규시장 창출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디지털 스마트미디어 환경을 선도하여 신규시장을 창출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스마트 콘텐츠 상품화 및 인큐베이팅 지원 사업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콘텐츠산업은 노동시장 특성으로 인해 신규인력의 공급과잉, 필요인력의 부족이라는 질적 수급불일치(skill mismatch) 현상이 심각하다. 따라서 콘텐츠산업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높이고, 창의인력의 원활한 수급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콘텐츠산업 장르별로 특화되고 산업현장에 투입가능한 인력양성 및 활용과 고용창출을 연계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또한 기업의 채용 후 현장투입이 가능하도록 산업현장이 필요로 하는 인력을 양성하는 교육훈련 프로그램도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

2012 월간 콘텐츠 시장동향

콘텐츠산업 자문단 (41명)

강덕원 (게임동아 대표)	윤 하 (영화진흥위원회 산업팀장)
강형석 (게임트릭스 팀장)	이광세 (한국이러닝산업협회 이사)
김도학 (M&E산업연구소 소장)	이민재 (한국문화콘텐츠라이선싱협회 사무국장)
김민규 (아주대 문화콘텐츠학과 교수)	이병우 (캐릭터&완구신문 대표)
김세훈 (세종대 만화애니메이션학과 교수)	이승엽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김영재 (한양대 문화콘텐츠학과 교수)	이용준 (대진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김원제 (유플러스연구소 소장)	이종규 (인터파크INT공연사업 본부장)
김태원 (푸른여름 대표)	이혜경 (한국애니메이션제작자협회 팀장)
나익진 (한국게임산업협회 과장)	이호준 (한국광고협회 팀장)
박관형 (이미지프레임 편집장)	임진욱 (예술경영지원센터 연구원)
박상호 (한국방송협회 연구위원)	전영문 (영상물등급위원회 위원)
박성만 (메이븐스퀘어 이사)	정용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박인하 (청강문화산업대 만화창작과 교수)	정우식 (21세기경제학연구소 연구위원)
박정민 (EBS 외화애니부 PD)	송경희 (문화부 문화산업정책과 사무관)
박정수 (산업연구원 서비스산업연구센터 소장)	조한석 (문화부 정보통계담당관실 사무관)
박준흠 (가슴네트워크 대표/대중음악 SOUND 발행인)	주은수 (미디어경영연구소 소장)
박호상 (한국출판연구소 선임연구원)	최광호 (한국음악콘텐츠산업협회 사무국장)
백수진 (한국만화영상진흥원 과장)	최영균 (아이러브캐릭터 편집장)
송철민 (한국음원제작자협회 음악정보센터 실장)	최원석 (닐슨컴퍼니코리아 국장)
오세성 (한국방송광고공사 연구위원)	황성연 (AGB닐슨 미디어리서치 차장)
오수정 (한국언론진흥재단 조사분석팀장)	

2012 월간 콘텐츠 시장동향

<2012 월간 콘텐츠 시장동향>은 '콘텐츠산업자문단'과 'KOCCA 통계정보팀'이 공동작업하여 온라인으로 발간하는 월간지입니다.

콘텐츠산업 자문단

- 단 장 정우식 (21세기경제학연구소 연구위원)
종합위원 박정수 (산업연구원 서비스산업연구센터 소장)
김원제 (유플러스연구소 소장)
박성만 (메이븐스퀘어 이사)
분 과 장 이용준 (대진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출판/만화/지식정보분과)
김도학 (M&E산업연구소 소장, 영화/애니메이션/캐릭터분과)
박준흠 (가슴네트워크 대표, 음악/공연분과)
강덕원 (게임동아 대표, 게임분과)
김태원 (푸른여름 대표, 방송/광고분과)

한국콘텐츠진흥원

- 총괄기획 및 감수 노준석 (통계정보팀 팀장)
공동기획 및 감수 김은정 (통계정보팀 선임연구원)
김영수 (통계정보팀 선임연구원)
박성원 (통계정보팀 선임연구원)
강중구 (통계정보팀 연구원)
정길영 (통계정보팀 인턴)

발행인 홍 상 표

발행일 2012년 8월 30일 (통권 4호)

발행처 한국콘텐츠진흥원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400

한국콘텐츠진흥원 통계정보팀에서는 **콘텐츠산업정보포털(<http://www.kocca.kr>)**을 통해 각종 콘텐츠 기업정보, 시장현황, 산업통계 등 최신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 보고서들의 내용에 대한 무단전재를 금하며, 가공 및 인용할 때는 반드시 출처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콘텐츠 관련 단행본, 정기간행물, 영상자료, 게임자료, 음향자료 등을 서비스 받으실 수 있는 **콘텐츠도서관(<http://library.kocca.or.kr>)**을 평일(9:00~18:00)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용 바랍니다.

(콘텐츠도서관 문의) 통계정보팀 신란희 (02-3153-1376/rhshin@kocca.kr)

(월간 콘텐츠 시장동향 문의) 통계정보팀 강중구 (02-3153-3021/kjungoo@kocca.kr)

(기타 문의) 콘텐츠종합지원센터 "콘텐츠에 대해 알고 싶은 모든 것! 1566-1114"